기출 PICK

정답과 해설

윤리와 사상

01 도덕적 질서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개념 확인 문제 6쪽

001 인 002 시비지심 003 천인지분 004 성즉리
005 지행합일 006 서 007 호연지기 008 성무선악설
009 존천리거인욕 010 치양지

난이도별 필수 기출 6~21쪽

011 유가	012 ④	013 ⑤	014 ①	015 ⑤	016 ①
017 ②	018 ④	019 ②	020 ②	021 ③	022 ④
023 해설 참조		024 ④	025 해설 참조		026 ①
027 ④	028 ④	029 해설 참조		030 ⑤	031 ⑤
032 ③	033 ①	034 ③	035 ②	036 ⑤	037 ③
038 ⑤	039 ⑤	040 ②	041 ④	042 ④	043 ②
044 해설 참조		045 ②	046 해설 참조		047 ⑤
048 ④	049 ④	050 ⑤	051 ⑤	052 ②	
053 해설 참조		054 ④	055 해설 참조		056 ⑤
057 ③	058 ⑤	059 ②	060 ④	061 ④	062 ①
063 ③	064 ②	065 ①	066 ④	067 ②	068 ④
069 ③	070 ④	071 ④	072 ③	073 ④	074 ①
075 ④	076 ④	077 ⑤			

011 제자백가 중 유가(유교)에 대한 설명이다. 유가의 대표적 사상가로는 공자, 맹자, 순자가 있다.

012 ㄱ. 공자는 강제된 법률이나 형벌보다 도덕과 예의로 다스리는 덕치(德治)를 이상적인 정치로 보았다. ㄷ. 공자에 따르면 인(仁)의 실천은 가족 관계에서 출발하여 사회와 국가로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ㄹ. 인의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이 여기는 서(恕)가 있다.

바로알기 | ㄴ. 공자가 외면적 사회 규범으로 제시한 것은 예(禮)이며,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인 인(仁)과 함께 강조하였다.

013 대화 속 스승은 공자이며, (가)에 들어갈 말은 인(仁)이다. 공자는 춘추 시대의 사회 혼란이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인과 예를 통해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①, ② 공자는 효제(孝悌)를 인(仁)을 실천하는 근본으로 삼아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낼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③, ④ 인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충서(忠恕)를 제시하여, 진실되게 상대를 대하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⑤ 예(禮)를 기준으로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순자의 화성기위(化性起僞)에 해당한다.

01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ㄱ, ㄴ. 공자는 개인의 수양인 수신(修身)을 바탕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으며, 통치자가 먼저 덕성을 갖추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수기안인(修己安人)]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ㄷ. 인위적인 도덕규범에서 벗어나 타고난 본성 그대로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을 강조한 것은 도가 사상이다. ㄹ. 공자는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역할에 걸맞은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정명(正名) 사상을 강조하였다.

015 공자는 인(仁)의 실현을 중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충서(忠恕)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군자를 제시하였으며, 정치에서는 덕에 의한 통치인 덕치(德治)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 공자에 따르면 통치자는 재화의 적음보다 분배의 형평성을 걱정하여, 분배를 고르게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01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① 공자는 인(仁)과 예(禮)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잘 살아가는 이상적인 공동체인 대동 사회(大同社會)를 지향하였다.

바로알기 | ② 순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③ 묵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공자는 존비친소의 구별을 전제로 한 차등적 사랑을 강조하였다. ④ 도가의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맹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017 공자는 통치자가 먼저 자신을 수양하고 덕으로써 백성을 이끄는 덕치(德治)를 강조하였다. 덕치는 법과 형벌에 의존하지 않고 통치자의 도덕적 모범이 백성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 방식으로, 수기안인(修己安人)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바로알기 | ① 공자는 친소에 따라 사랑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공자가 제시할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엄격한 법령과 상벌 제도로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 것은 법가의 입장이다. ④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예 중심의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순자이다. ⑤ 공자는 예를 통한 사회 질서 회복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이 기존의 신분 질서와 예를 폐지하자는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01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④ 공자는 통치자가 먼저 자신을 수양한 후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수기안인(修己安人)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사회 질서가 바로잡힌다고 본 사상가는 순자이다. ② 무위자연의 삶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 것은 도가의 입장이다. ③ 통치자가 엄격한 형벌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본 것은 법가의 입장이다. 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할 것을 강조한 것은 묵가의 입장이다.

019 제시된 글은 군주와 신하가 각자의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공자의 정명(正名) 사상을 바탕으로, 덕치를 통한 도덕적 질서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정명 사상에 따르면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의 신분과 역할에 걸맞은 도리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한다.

바로알기 | ①, ⑤ 엄격한 법과 형벌을 통한 사회 기강 확립과 부국강병책의 추진을 강조한 것은 법가의 입장이다. ③ 선한 본성의 확충을 통한 사단 실현과 왕도 정치 구현을 강조한 것은 맹자의 입장이다. ④ 공자는 귀신을 섬기는 일보다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도리를 다하는 것을 우선시하였다.

02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ㄴ. 공자는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면 인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공자는 각자가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정명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공자에 따르면 인은 내면적 도덕성이고, 예는 외면적 사회 규범에 해당한다. ㄷ. 음악이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삼가야 한다는 것은 묵자의 비악론(非樂論)에 해당한다. 공자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조화롭게 하고 도덕성을 함양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02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가까운 관계에서 출발하는 인의 실천, 덕과 예를 통한 백성의 교화, 분배의 균등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 공자는 존비친소의 구별을 전제로 가까운 관계에서 출발하여 점차 확장되는 사랑을 강조하였다. 존비친소의 구별이 없는 보편적 사랑을 강조한 사상가는 묵자이다.

02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④ 공자의 사상에서 인(仁)은 존비친소의 구별을 전제로 가까운 관계에서 출발하여 사회와 국가로 확장해 나가는 사랑이다.

바로알기 | ① 공자는 인과 예와 같은 도덕적 덕목을 실천하여 자신을 수양하고, 도덕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엄격한 법과 술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본 것은 법가이다. ③ 존비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묵자의 겸애(兼愛)이다. ⑤ 도덕적 질서 회복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우선시한 것은 법가로, 공자는 내면적 도덕성인 인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023 **모범 답안** 맹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 측은지심, ㉡ 수오지심, ㉢ 사양지심, ㉣ 시비지심의 네 가지 선한 마음인 사단을 타고난다고 보았으며, 이를 근거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024 밑줄 친 ㉠은 맹자이다. 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근거로 측은, 수오, 사양, 시비지심의 사단(四端)을 제시하였다. ② 맹자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보는 민본주의에 입각한 정치를 강조하였다. ③ 맹자는 군주가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이상적 정치로 제시하였다. ⑤ 맹자는 의로운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는 집의(集義)를 통해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 이상적 인간인 대장부(大丈夫)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④ 맹자는 백성이 일정한 생업인 항산(恒産)을 지니면 도덕적 마음인 항심(恒心)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군주는 백성의 생계를 안정시켜 도덕적 삶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개념 보충

사단(四端)과 사덕(四德)의 관계

사단	의미	사단과 사덕의 관계
측은지심(惻隱之心)	남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인(仁)의 단서
수오지심(羞惡之心)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	의(義)의 단서
사양지심(辭讓之心)	양보하고 겸손하려는 마음	예(禮)의 단서
시비지심(是非之心)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지(智)의 단서

→ 맹자는 사단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 인간에게 인의예지의 사덕이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단을 확충하여 인간의 선한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함.

025 **모범 답안** 맹자의 입장에서 A는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잃어버린 본래의 선한 마음을 되찾는 구방심(求放心)의 수양을 실천해야 한다.

026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A에는 맹자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 B에는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②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였으므로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따라서 A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③, ④, ⑤ 모두 맹자의 입장에서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므로 B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도덕적 마음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보았으므로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따라서 A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02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그는 누구나 남의 고통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는 선한 마음인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을 지닌다는 것을 근거로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④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편다면 백성들도 군주를 잘 따르게 되어 도덕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맹자에 따르면 호연지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는 집의(集義)를 통해 길러진다. ② 맹자는 인간이 선한 마음의 실마리인 사단을 선천적으로 타고나며, 후천적인 수양을 통해 이를 확충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맹자는 군주가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028 맹자는 선천적인 도덕 인식 능력을 양지(良知), 선천적인 도덕 실천 능력을 양능(良能)이라고 하였다.

바로알기 |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개를 뜻한다. 호연지기는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기를 수 있다.

029 **모범 답안** 밑줄 친 ㉠은 맹자이다. 인간은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능력(양지)과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능력(양능)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단을 확충하면 인의예지의 사덕을 실현할 수 있다.

03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ㄷ. 맹자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고 백성을 저버린다면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였다. ㄹ. 맹자는 백성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며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인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왕도 정치는 군주가 무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면서 그것을 인(仁)으로 가장하는 패도 정치와 구분된다.

바로알기 | ㄱ. 맹자는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양지(良知)와 배우지 않고도 행할 수 있는 양능(良能)이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ㄴ. 맹자는 백성이 변치 않는 도덕적 마음인 항심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생업인 항산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031 갑은 공자, 을은 묵자이다. 공자는 사랑이 가까운 관계에서 출발하여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묵자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겸애(兼愛)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묵자는 공자에게 ⑤ 사랑을 실천할 때 친소의 구별 없이 동등하게 대해야 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존비친소의 구별을 두지 않는 사랑인 겸애를 강조한 사상가는 묵자이므로 공자가 묵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다. ② 예악이 백성의 삶에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삼가야 한다는 것은 묵자의 입장이므로 공자가 묵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다. ③ 통치자는 덕이 아닌 상과 벌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본 것은 법가의 입장으로, 묵자가 제기할 비판이 아니다. ④ 묵자는 백성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였으므로 경제적 이익보다 도덕적 교화를 우선시해야 함을 간과한다는 비판은 묵자가 공자에게 제기하기 어렵다.

032 갑은 맹자, 을은 고자이다. ③ 고자는 성무선악설을 주장하여 선악은 선천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후천적 환경과 선택의 결과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맹자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 선천적으로 주어진다고 보았다. 맹자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네 가지 선한 마음이 주어져 있다. ② 맹자는 사단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며, 이를 확충하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④ 고자는 인간이 선하게 되는 것은 타고난 본성을 따른 결과가 아니라 후천적 환경과 선택의 결과라고 보았다. ⑤ 고자는 본성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고 보았으므로 고자의 입장에서 도덕적 본성이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033 갑은 공자, 을은 맹자이다. ① 공자는 덕치를 통해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맹자 역시 왕도 정치를 통해 백성을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두 사상가 모두 도덕적 수양과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알기 | ②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른 법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 것은 법가의 입장이다. ③ 성인이 제정한 외적 규범으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본 것은 순자의 입장이다. ④ 공자와 맹자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공자는 인과 예를 실천하기 위한 도덕적 수양을 강조하였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본 것은 맞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사단을 확충하는 후천적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⑤ 이상적 인간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 것은 도가의 입장이다. 공자는 인과 예를 바탕으로 덕을 갖춘 인간인 군자를, 맹자는 호연지기를 갖춘 대장부를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

☑ 개념 보충

공자와 맹자의 사상 비교

구분	공자	맹자
인성론	인(仁)의 실천을 강조하긴 하였으나 인간의 본성이 선한지, 악한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성선설: 사단(四端)을 근거로 인간은 선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주장함
수양론	극기복례(克己復禮), 충(忠), 서(恕) 실천을 중시함	구방심(求放心), 집의(集義)를 중시함
정치론	• 덕치(德治):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다스리는 정치 • 정명(正名):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도리를 다함	• 왕도 정치(王道政治): 백성을 사랑하며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 • 민본주의(民本主義):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김
이상적 인간상	군자(君子): 인과 예를 바탕으로 덕을 갖춘 인간	대장부(大丈夫): 호연지기를 갖춘 인간

03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①, ②, ④, ⑤ 순자에 따르면 예는 사회의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성인이 제정한 것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조절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는 올바른 사회 질서를 세우려면 예와 교육을 통한 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인간은 욕망을 절제하고 예를 실천하는 후천적 노력을 통해 선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③ 맹자의 입장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는 성악설을 주장하였으며, 예를 통해 본성을 교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03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ㄱ. 순자는 덕과 능력을 기준으로 관직을 부여하고 공평하게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순자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선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은 예를 배우고 익히는 노력을 기울여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순자는 하늘을 도덕의 근원이 아닌 자연 현상으로 파악하였으며, 하늘과 인간이 맡은 일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는 천인지분(天人之分)을 주장하였다. ㄹ. 선천적으로 타고난 도덕적 감정을 확충하여 사덕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맹자이다.

03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⑤ 순자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문제 상황의 원인으로 보고, 성인이 제정한 규범인 예(禮)를 통한 본성의 교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순자는 하늘을 도덕의 근원이 아닌 자연 현상으로 파악하였으며, 하늘은 자연일 뿐이므로 하늘을 도덕적으로 여기면서 칭송하는 것보다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였다. ② 순자는 욕구 자체의 완전한 제거가 아니라 예를 통해 욕구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순자는 엄격한 처벌에만 의존하기보다 예(禮)에 따른 교육과 수양을 통해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교화할 것을 더욱 강조하였다. ④ 맹자의 입장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03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①, 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혼란이 발생하므로 성왕이 제정한 예를 통해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순자에 따르면 ② 하늘은 도덕의 근원이 아니라 자연 현상일 뿐이며, ④ 인간은 교육과 수양을 통해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바로알기 | ③ 인간 내면에 있는 타고난 도덕적 마음인 사단(四端)을 보존해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맹자이다.

03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ㄷ. 순자는 성왕이 예를 제정한 것은 인간의 욕구를 절제시키고 사회적 분별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ㄹ. 순자는 인간이 악한 본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예를 배우고 인위적 노력을 거듭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순자는 천인지분을 주장하면서 하늘을 자연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ㄴ. 순자는 예와 교육을 통한 화성기위(化性起僞)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03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하늘을 자연 현상으로 보았고, 예를 통해 악한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그는 덕과 능력에 따라 관직을 부여하고 재화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예치(禮治)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인간의 타고난 선한 본성은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사덕으로 실현된다고 본 사상가는 맹자이다. ② 순자는 하늘을 도덕의 근원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보았다. ③ 인간의 본성에는 선악의 구분이 없으므로 환경과 노력에 따라 선해질 수 있다고 본 사상가는 고자이다. ④ 인간의 교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강력한 법(法)과 술(術)로써 다스려야 한다고 본 것은 법가이다.

04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성인(聖人)은 유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인의 덕을 완성하고 공동체에서 이를 실천하여 백성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② 순자는 성인과 일반 사람의 본성은 같지만, 성인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본성을 교화하고 인위(人爲)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④ 순자는 성인과 일반 사람 모두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다. ③ 맹자의 입장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보았다. ⑤ 순자에게 예란 인간의 선천적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041 타고난 본성은 배워서 얻을 수 없지만 예의는 성인이 후천적으로 만든 인위이므로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순자의 학문론으로 귀결됨

> 갑(순자): 무딘 쇠는 반드시 숫돌에 간 뒤에라야 날카로워지듯이, 지금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은 반드시 스승과 법도의 가르침이 있은 뒤에야 다스려진다.
>
> 을(고자): 동쪽으로 물길을 트면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본성에 선과 불선이 없음은 물에 동서의 분별이 없음과 같다.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성무선악설(性無善惡說)을 주장하면서 선악은 후천적인 환경과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봄

갑은 순자, 을은 고자이다. ④ 고자는 성무선악설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에는 선악의 구분이 없다고 보았다. 반면에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며, 이를 방치하면 반드시 쟁탈과 혼란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므로 순자가 고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본 사상가는 고자이다. ②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선하므로 이를 확충해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맹자이다. ③ 순자는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는 천인지분을 주장하였다. 순자에게 하늘은 자연 현상이다. ⑤ 순자는 예를 통해 욕망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보았지, 모두 소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042 갑은 순자, 을은 공자이다. A에는 순자는 '예', 공자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 B에는 순자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C에는 공자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④ 순자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으로 B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순자와 공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두 사상가 모두 교육과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순자와 공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두 사상가 모두 도덕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순자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⑤ 공자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공자는 도덕적 수양과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043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ㄱ. 맹자는 사단을 확충하면 누구나 이상적 인간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ㄹ. 두 사상가 모두 인간이 후천적 수양과 노력을 통해 도덕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맹자는 선천적 본성의 확충을, 순자는 제도적 규범과 표준으로서의 예를 통한 후천적 교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로알기 | ㄴ. 순자는 예가 인간의 타고난 도덕성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 아니라 성인이 인위적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ㄷ.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더라도 예와 교육을 통한 후천적 노력으로 도덕적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개념 보충

맹자, 순자, 고자의 인성론 비교

구분	맹자	순자	고자
인성론	성선설(性善說):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을 타고남	성악설(性惡說):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한 본성을 타고남	성무선악설(性無善惡說): 인간의 본성은 선악의 구분이 없음
이상적 삶의 실현 방법	선한 본성의 확충	예(禮)와 교육을 통한 교화	후천적 환경과 자신의 선택
공통점	모두 인간이 도덕적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봄		

044 모범 답안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와 순자 모두 인간이 후천적인 수양과 노력을 통해 도덕적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045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ㄱ, ㄹ. 순자는 인간의 선천적 본성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도덕적 삶을 이룰 수 없으며, 예(禮)의 본질은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순자가 맹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바로알기 | ㄴ. 순자는 인간의 욕구를 완전히 억압해야만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지 않았다. 예를 통해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고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ㄷ. 순자는 하늘을 자연 현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본성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지 않았다.

046 모범 답안 갑인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바탕으로 성왕이 제정한 예를 통해 본성을 교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예치(禮治)를 강조하였다. 을인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을 타고난다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군주가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王道政治)를 강조하였다.

047 갑은 고자, 을은 순자이다. ⑤ 고자는 인간이 선해지는 것이 후천적 환경과 선택의 결과라고 보았고, 순자 역시 인간이 선해지는 것은 성왕이 제정한 예를 통한 후천적 교화의 결과라고 보았다. 따라서 고자와 순자 모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사회 혼란의 원인은 인간이 선한 본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본 사상가는 맹자이다. 따라서 두 사상가 모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②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선하므로 사단을 확충해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맹자이다. 따라서 두 사상가 모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③ 고자는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으므로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④ 순자는 하늘과 인간의 일을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048 제시된 글의 '나'는 순자이며, '어떤 학자'는 맹자이다. (가)에는 순자가 맹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한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④ 순자는 맹자와 달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였으므로, 맹자에게 인간은 예와 후천적 노력으로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인간의 선천적인 본성에는 선과 악의 구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사상가는 고자이다. ② 인간의 본성을 보존하지 않으면 도덕적 삶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맹자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③ 맹자 역시 군주의 덕을 바탕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으므로, 순자가 맹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하늘의 이치로서 부여받은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 수양의 핵심이라는 점은 공자, 맹자, 성리학의 입장이다. 순자는 하늘을 자연 현상으로 보았으므로 하늘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04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ㄴ. 주희는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통괄한다고 보았는데, 이를 심통성정(心統性情)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본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감정은 마음의 작용으로, 본성이 발하여 감정으로 드러난다. ㄹ. 주희는 본연지성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부여되지만 기질지성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주희는 이(理)가 만물에 내재하는 존재 원리이자 도덕 법칙이며, 기(氣)는 만물을 이루는 재료라고 보았다. ㄷ. 주희는 이와 기가 현실에서 서로 떨어질 수 없으나[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 논리적으로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고 보았다. 따라서 이와 기를 개념적으로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05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ㄴ. 주희는 이와 기가 현실에서 분리되지 않으나 개념적으로는 구별된다고 보았다. ㄷ. 주희는 성즉리(性卽理)를 바탕으로 본연지성은 순선하나 기질지성은 기질에 따라 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ㄹ. 이일분수(理一分殊)에 따라 만물은 동일한 하나의 이(理)를 온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주희는 순선한 이(理)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으며, 후천적인 수양을 통해 기질을 변화시켜 본래의 선한 본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다.

05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⑤ 주희에 따르면 본연지성은 순선한 이(理)만을 가리키는 반면에 기질지성은 이와 기가 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현실에서 인간의 본성은 기질지성의 형태로 존재한다.

바로알기 | ① 주희는 마음의 본체는 본성이고 마음의 작용은 감정이라고 보았으므로, 감정이 본성보다 근원적이라고 본 것은 주희의 입장이 아니다. ② 주희는 기질지성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본연지성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였다. ③ 주희는 마음이 본성을 함양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실천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④ 왕수인의 입장이다. 주희는 마음 밖에도 사물의 이치가 존재하므로, 격물치지를 통해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052 제시된 대화 속 스승은 주희이다. ㄱ, ㄹ. 주희는 이일분수(理一分殊)를 바탕으로 하나의 태극[理]이 각각의 사물에 온전히 내재하며, 사물 간의 차이는 기(氣)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주희는 태극이 만물의 수만큼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태극이 만물 각각에 온전히 내재한다고 보았다. ㄷ. 주희는 이일분수에 따라 만물이 공유하는 존재 원리인 이가 만물 각각에 온전히 깃들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물이 많아진다고 해도 이(理)의 양은 줄어들지 않는다.

053 **모범 답안** 주희는 성인이 되려면 도덕적 앎과 도덕적 실천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앎과 실천이 서로 영향을 주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지행병진(知行竝進)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올바른 앎을 먼저 갖추어야 참된 실천을 할 수 있다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을 주장하며 사물의 이치에 대한 탐구를 중시하였다.

05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ㄴ. 주희에 따르면 만물은 이(理)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의 차원에서 사람은 바른 것을, 사물은 치우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차이가 생겨난다. ㄹ. 주희는 심통성정(心統性情)에 근거하여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통솔하는 실천 주체임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실천 없이 앎만으로 도덕적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은 성리학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주희는 앎과 실천이 서로 의존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지행병진(知行竝進)을 강조하였다. ㄷ. 본연지성은 이와 기를 아울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이(理)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

055 **모범 답안** 주희에 따르면 마음의 본체는 본성이고 마음의 작용은 감정이다. 본성이 발하여 감정으로 드러나며, 인간은 마음을 통해 본성을 함양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즉 마음은 본성과 감정을 통솔[심통성정(心統性情)]한다.

05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3) 주희는 본연지성이 인의예지의 사덕을 지니므로 순선하다고 보았다. (4) 주희는 거경과 궁리를 함께 실천하는 거경궁리(居敬窮理)를 수양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1)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실천은 본래 하나이므로 순서를 구별할 수 없다고 본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주희는 앎과 실천 중 순서를 논한다면 앎이 먼저라고 보았다. (2) 주희의 입장에서 기질지성은 탁한 기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이치 그 자체로서의 본성이라고 본 진술은 옳지 않다. 주희는 기질지성이 아닌 본연지성이 순수한 이치 그 자체로서의 본성이라고 보았다.

05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ㄴ, ㄷ. 주희는 기질지성이 기질에 따라 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질을 바로잡아 본연지성의 순선함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며, 거경궁리와 함께 존양성찰을 수양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ㄱ. 주희는 이일분수(理一分殊)에 따라 만물은 동일한 하나의 이(理)를 부여받는다고 보았다. ㄹ. 주희는 마음이 본성을 함양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을 주재하고 사물에 응대하는 실천적 역할도 수행한다고 보았다.

05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ㄴ, ㄷ, ㄹ. 주희는 현실적으로 이와 기는 항상 결합되어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이가 기보다 선행하므로 서로 섞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질지성은 기질에 따라 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지행병진과 함께 선지후행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주희는 이(理)가 만물을 생성하는 근본이고, 기(氣)가 만물을 생성하는 도구라고 보았다.

059 제시된 글은 성리학자인 주희가 강조한 수양론을 보여 준다. 그의 입장에서 ② 수양은 사물의 이치 탐구인 궁리(窮理)와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거경(居敬)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인위적인 규범과 지식을 내려놓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수양이라고 본 것은 도가의 입장이다. ③ 마음속 욕망을 씻어 내어 텅 빈 경지에 도달하면 만물의 본성인 도에 통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도가의 입장이다. ④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번뇌를 제거하고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것은 불교의 입장이다. ⑤ 주희는 본성을 발휘하기 위한 수양의 방법으로 천리를 잘 보존하고 인간의 욕구나 욕망을 멀리하는 존천리거인욕(存天理去人欲)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계의 참모습에 대하여 밝게 알아야 하는 격물치지(格物致知)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면서 나쁜 마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존양성찰(存養省察)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06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ㄱ. 주희는 앎과 실천의 관계에 관하여 앎이 행함보다 먼저라는 선지후행과 앎과 실천이 서로 의존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지행병진을 주장하였다. ㄷ, ㄹ. 주희는 거경궁리와 존양성찰을 수양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ㄴ. 마음 자체가 곧 천리이므로 마음의 본래 상태를 회복하는 것만으로 도덕적 실천이 완성된다고 본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06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① 주희에게 이(理)는 모든 존재의 원리이고 기(氣)는 만물을 형성하여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재료이다. ② 주희는 존천리거인욕을 수양의 핵심 목표로 삼았으며, ③ 마음 밖에도 사물의 이치가 존재한다고 보고 격물치지를 통해 외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⑤ 주희는 만물에 부여된 본연지성은 모두 같고 순선하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④ 마음이 곧 이치이므로 마음 밖의 사물에서 도덕적 이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본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06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② 주희는 우리 마음 안에 본성이 있고 본성이 발하면 감정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③, ④ 주희는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통괄하고 주재한다고 보았지만, 마음 자체를 천리(天理)와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⑤ 주희는 만물에 부여된 본연지성은 모두 같고 순선하지만 기질지성은 각각의 기질에 따라 다르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주희에 따르면 본성은 인의예지의 사덕이고, 이것이 발하여 도덕적 감정, 즉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사단이 된다.

06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1) 주희는 이와 기는 현실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이기불상리와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 섞일 수 없다는 이기불상잡을 주장하였다. (4) 주희는 이일분수(理一分殊)에 따라 이(理)는 만물에 하나로 내재하지만 기의 다름으로 사물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2) 주희는 이(理) 자체에는 운동하거나 작용하는 능력이 없으며, 이(理)는 기(氣)를 통해 현실에 드러난다고 보았다. (3) 왕수인의 입장이다. 주희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해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하고 도덕적 앎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았다.

064 왕수인은 도덕 법칙으로서의 이치가 마음 밖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에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마음 밖에는 어떤 이치도 없고, 마음 밖에는 어떤 사물도 없다. 양지(良知)는 하늘이 부여한 본성으로 내 마음의 본체이다. 의념이 일어나면 내 마음의 양지는 언제나 스스로 인식하며, 그것이 선하든 불선하든 양지가 자연히 알아차린다.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①, ③, ④, ⑤ 왕수인은 양지가 선천적인 것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양지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격물치지가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아 양지(良知)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외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지 않고도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온전히 실현하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왕수인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강조하여 도덕적 앎과 실천이 본래 하나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앎이 실천에 앞선다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은 주희의 입장이다. 왕수인은 앎과 실천이 본래 하나라고 보았다.

065 가상 인터뷰의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① 왕수인은 참된 앎에는 반드시 실천이 수반되며, 앎과 행함은 본래 하나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그는 앎이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참으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앎은 행함보다 먼저라고 본 사상가는 선지후행을 강조한 주희이다. ③ 바깥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고 본 사상가는 격물치지를 강조한 주희이다. ④ 기질을 바로잡지 않으면 도덕적 실천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사상가는 주희이다. ⑤ 도덕적 이치가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탐구되어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주희이다.

06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④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여 도덕적 이치가 마음 안에 있으며, 마음의 양지를 통해 사물 탐구 없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주희의 격물치지와 달리 내면의 양지를 실현하는 치양지(致良知)를 수양의 핵심으로 삼은 것으로, 두 사상가가 지닌 수양론의 차이를 보여 준다.

바로알기 | ① 도덕적 앎이 먼저 갖추어진 뒤에야 비로소 참된 도덕적 실천이 가능하다고 본 사상가는 선지후행을 강조한 주희이다. ② 바깥 사물의 이치를 하나씩 궁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도덕적 앎이 극진해진다는 것은 주희의 입장에서 해석한 격물치지이다. ③ 본성이 곧 천리이므로 기질을 바로잡아 본연지성이 드러나도록 수양해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주희이다. ⑤ 만물은 각자 도에 따르는 적합한 본성을 부여받았으므로 인위적 규범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수양이라고 본 것은 도가의 입장이다.

06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ㄱ. 왕수인은 도덕적 앎이 곧 도덕적 행함의 시작이며 행함이 앎의 완성이라는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다. ㄷ. 왕수인에 따르면 마음 밖에는 별도의 이치가 없으므로[심외무리(心外無理)]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곧 도덕적 실천이 된다.

바로알기 | ㄴ. 본성이 곧 천리이므로 혼탁한 기질을 바로잡아 본래의 순선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주희이다. ㄹ. 개별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격물치지를 통해 앎이 극진해질 때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 사상가는 주희이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 사물의 이치가 없기에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할 필요가 없고, 마음속 양지를 실현하면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06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④ 왕수인은 지행합일(知行合一)에 근거하여 불선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이미 불선을 실천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조금의 사욕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수양의 요체라고 하였다.

바로알기 | ① 왕수인은 양지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② 마음과 이치를 본래 별개의 것이라고 본 것은 왕수인의 입장이 아니다. 왕수인은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였다. ③ 왕수인에 따르면 양지의 대표적인 기능은 현상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판단이란 분석이나 추론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좋아하고 그른 것은 싫어하는 도덕적 감정을 중심으로 즉시 결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왕수인은 이 양지를 확충하고 실천하는 것이 곧 치양지라고 보았다. ⑤ 도덕적 앎은 외부 사물의 이치 탐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축적된다고 본 것은 주희의 격물치지 입장이다.

06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ㄴ, ㄷ. 왕수인은 지행합일에 근거하여 앎과 실천이 본래 하나이며, 불선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불선을 행한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왕수인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비지심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양지(良知)라고 보았다. ㄹ.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여 마음 밖에 별도의 이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070 제시된 개념들은 모두 왕수인의 핵심 사상이다. ① 왕수인은 양지를 선천적으로 주어진 도덕 인식 능력으로 보았으며, 학습 없이도 시비를 즉각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왕수인은 도덕적 앎이 곧 실천의 시작이며 도덕적 실천은 앎의 완성이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③ 왕수인은 인욕에 가려진 양지를 회복하고 실현하는 치양지(致良知)를 수양의 핵심으로 보았다. ⑤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이치도 사물도 없으므로 도덕적 이치는 외부 사물이 아닌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④ 왕수인은 양지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인욕을 제거하여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수양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071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ㄱ. 왕수인은 마음 밖에 이치가 없으니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앎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ㄴ, ㄹ. 주희와 왕수인 모두 인욕 제거와 천리 보존을 수양의 목표로 삼았다는 점은 같으나, 주희는 사물의 이치 탐구를 통해, 왕수인은 마음의 양지 실현을 통해 이를 이루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로알기 | ㄷ. 수양을 통해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왕수인만의 입장이 아니라 왕수인과 주희의 공통 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C가 아닌 B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072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ㄱ. 왕수인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여 참된 앎에는 반드시 실천이 수반된다고 보았다. ㄴ. 주희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을 강조하였으나 중요도 면에서는 도덕적 앎보다 도덕적 행함을 더 중시한다는 행중지경(行重知輕)을 주장하였다. ㄹ. 두 사상가 모두 존천리거인욕(存天理去人欲)을 수양의 목표로 삼았다.

바로알기 | ㄷ. 마음 밖에는 어떤 이치도 없으므로 마음 밖의 사물에서 도덕적 이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본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주희는 마음 밖에도 이치가 존재한다고 보고, 격물치지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개념 보충

주희와 왕수인이 바라본 도덕적 앎과 행함의 관계 비교

구분	주희	왕수인
앎과 실천의 관계	선지후행(先知後行): 순서상 앎이 실천보다 먼저임	지행합일(知行合一): 앎과 실천은 본래 하나임
핵심 주장	앎과 실천은 서로 의존하며, 순서상 앎이 먼저이고 중요도 면에서는 행함이 더 중요함	참된 앎에는 반드시 실천이 수반되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참된 앎이 아님
불선(不善)에 대한 입장	불선한 생각과 불선한 행위를 구별함	불선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불선을 행한 것이라고 봄
공통점	앎과 실천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한 도덕적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봄	

073 갑은 순자, 을은 왕수인이다. ㄱ. 순자는 누구나 후천적 노력으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순자는 인간이 도덕적 인식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고, 왕수인도 양지를 통해 시비를 즉각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두 사상가 모두 사욕의 다스림을 도덕적 삶의 핵심 과제로 삼았으나, 순자는 예와 교육을 통한 교화를, 왕수인은 마음의 양지 실현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로알기 | ㄴ. 도덕적 앎이 충분히 갖추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올바른 실천이 가능하다고 본 진술은 주희의 선지후행(先知後行)에 해당한다. 왕수인은 도덕적 앎과 도덕적 실천이 본래 하나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074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① 주희는 격물치지를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환하게 트여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바로알기 | ② 주희가 아니라 왕수인의 입장이다. ③, ④ 왕수인이 아니라 주희의 입장이다. ⑤ 두 사상가 모두 경전 공부를 통해 도덕적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격물치지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격물치지는 이치를 깨닫기 위한 것이다. 주희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도덕적 앎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왕수인은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아 양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 개념 보충

주희와 왕수인의 격물치지(格物致知) 비교

구분	주희	왕수인
격물(格物)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함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아 양지를 실현함
치지(致知)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극진히 함	양지(良知)를 온전히 실현하는 치양지(致良知)

075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ㄴ. 왕수인은 심즉리의 입장에서 모든 사물의 이치는 마음속에 존재하므로 마음속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서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고 보았다. ㄹ. 주희와 왕수인 모두 사욕의 제거를 수양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바로알기 | ㄱ. 주희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중 본연지성은 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이(理)로서 순선하다고 보았다. ㄷ. 왕수인은 양지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보았으며, 수양의 근본을 치양지에서 찾았다.

076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ㄴ. 주희는 거경(居敬)과 궁리(窮理)를 통해 내적 수양과 외적 수양을 함께 강조하였다. ㄹ. 주희와 왕수인 모두 앎과 실천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한 도덕적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주희는 앎과 실천의 순서에 있어서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을 강조하여 올바른 실천을 위해 먼저 이치를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요도 면에서는 실천이 앎보다 더 중요하다는 행중지경(行重知輕)의 입장을 취하였다. ㄷ. 왕수인은 양지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경전의 이치를 탐구하는 공부가 수양의 근본이라고 보지 않았다.

077

개별 사물의 이치 탐구가 쌓이면 한순간 전체 이치에 통한다고 주장함

갑(주희): 도덕적 수양을 위해서는 마음 바깥의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하나씩 탐구해야 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환하게 트여 천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 심즉리(心卽理)

을(왕수인): 아닙니다. 이치는 이미 내 마음 안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치는 마음을 떠나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마음 바깥에서 이치를 찾는 것은 근본을 잃은 공부입니다. ← 심외무리(心外無理)

갑(주희): 제 생각에 당신은 [(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⑤ 주희는 성즉리(性卽理)에 근거하여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격물치지가 도덕적 수양의 필수 과정임을 왕수인이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도덕적 앎과 실천이 본래 하나로서 분리될 수 없다고 본 것은 왕수인의 입장이므로 주희가 왕수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다. ② 주희는 기질지성(氣質之性)이 각각의 타고난 기질의 영향을 받은 본성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가)에 들어가기 어렵다. ③, ④ 모든 인간에게 마음의 양지가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으며, 격물치지를 치양지로 해석하는 것은 왕수인 사상의 특징이므로 왕수인이 간과할 내용이 아니다.

02 진정한 평화, 영원한 자유와 평등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 인간의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개념 확인 문제 24쪽

078 유무상생 079 무위자연 080 소요유 081 연기
082 집성제 083 소국과민 084 물아일체 085 심재
086 제법무아 087 보살

난이도별 필수 기출 24~35쪽

088 ④ 089 ② 090 ① 091 ③ 092 ⑤
093 해설 참조 094 ③ 095 ⑤ 096 ④ 097 ④
098 ④ 099 ③ 100 ① 101 ④
102 (가): 심재, (나): 좌망 103 ④ 104 ②
105 해설 참조 106 ③ 107 ④ 108 ④ 109 ③
110 ④ 111 ① 112 ③ 113 ⑤ 114 ③ 115 ⑤
116 ① 117 ② 118 ③ 119 ④ 120 ⑤ 121 ④
122 해설 참조 123 ② 124 ⑤ 125 해설 참조
126 ① 127 ④ 128 ② 129 ④ 130 ② 131 ⑤
132 ④ 133 (육)바라밀 134 ⑤ 135 ④ 136 ②
137 ④ 138 ④ 139 ③

088 노자는 도가 인간의 언어와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만물의 근원임을 강조하였으며, 도에 따라 자연히 그러하게 사는 무위자연의 삶을 추구하였다. 또한 상덕(上德)을 지닌 성인은 억지로 덕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소국과민은 작은 영토에 적은 백성이 모여 사는 사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국과민이 문명과 제도를 발전시켜 백성의 지식과 욕망을 충족해 주는 이상 사회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노자는 백성이 무지와 무욕의 상태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를 이상적으로 여겼다.

08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② 노자는 상덕(上德)을 지닌 성인은 덕을 행하려는 의도 없이 무위할 뿐 결코 억지로 하지 않으며, 도에 따라 자연히 그러하게 살아가는 무위자연의 삶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노자는 아름다움과 추함, 있음과 없음 같은 대립 개념들이 상대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③ 노자는 인위적 법령과 제도를 강화할수록 오히려 도에서 멀어진다고 보았다. ④ 인의와 예악을 바탕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라고 본 것은 유교의 입장이다. ⑤ 노자는 통치자가 인위적인 규범이나 가치를 초월하여 백성들의 무지와 무욕을 지향하는 통치를 행할 때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보았다.

090 제시된 글은 노자의 사상을 보여 준다. ① 노자는 대립해 보이는 개념들이 상대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임을 유무상생(有無相生)으로 설명하였으며, 통치자는 인위적으로 다스리지 않는 무위(無爲)의 방식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이일분수(理一分殊)는 주희의 이기론과 관련된 개념으로, 노자의 사상과 무관하다. 거경(居敬)은 주희의 수양 방법이다. 심외무리(心外無理)는 왕수인의 사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개념이다. 존천리(存天理)는 주희와 왕수인의 수양론과 관련 있는 개념이다.

09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③ 노자는 상덕(上德)을 지닌 성인은 의도적으로 덕을 행하려 하지 않고 도와 합일된 삶을 살며,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소유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물이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낮은 곳에 머무는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정신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노자는 성인이 덕을 드러내지 않고 낮은 곳에 머문다고 보았다. ② 노자는 통치자가 백성들의 무지와 무욕을 지향하는 통치를 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무지란 인위적인 규범이나 가치에 대한 지식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인의의 규범을 확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본 것은 유교의 입장이다. ⑤ 노자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소국과민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작은 영토에 적은 백성이 모여 사는 사회를 의미한다.

092 제시된 글은 인위적인 제도와 문명을 거부하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소박하고 무욕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상으로 제시한 노자의 ⑤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설명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제물은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바라보는 경지로, 장자의 개념이다. ② 좌망은 조용히 앉아서 인의와 형체의 집착까지 내려놓는 장자의 수양법이다. ③ 물아일체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로, 도가의 이상적 삶의 모습이다. ④ 유무상생은 있고 없음은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뜻으로, 세상 만물의 이치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강조하는 노자의 개념이다.

093 모범 답안 노자는 당시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인위적인 사회 질서나 제도에서 찾았다. 그는 인의, 효도, 충신과 같은 덕목이 강조되는 것 자체가 이미 도에서 멀어진 증거라고 보았다. 노자는 사회 혼란을 해결하려면 인위적 규범을 내세우기보다 도에 따라 자연히 그러한 무위자연의 삶을 살고, 통치자는 무위(無爲)의 방식으로 백성이 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94 노자는 인의와 같은 도덕규범이 강조되는 것 자체가 이미 도에서 멀어진 증거라고 보았으며, 상덕을 지닌 성인은 덕을 의도적으로 행하려 하지 않고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바로알기 | ㄱ. 노자에 따르면 도는 우주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 또는 만물이 변화하는 법칙으로서 형체가 없다. 그러므로 도는 인간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으며, 인간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 ㄹ. 노자는 인위적인 법령과 제도를 강화할수록 도에서 멀어진다고 보았다.

095 노자는 부귀와 명예를 좇는 욕망을 줄이고 마음을 텅 비워 고요함을 유지하는 허정(虛靜)의 수양을 통해 인위적 욕망에서 벗어나 청정한 삶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노자는 인의가 강조되는 것 자체가 도에서 멀어진 증거라고 보았다. ② 노자에 따르면 소국과민 사회에서 통치자는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 즉 무위의 다스림을 행함으로써 백성이 스스로 바르고 순박해지도록 해야 한다. ③ 이웃 나라와 활발히 교류하고 문명을 발전시킬수록 백성이 소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본 것은 노자의 소국과민 사상에 어긋난다. ④ 노자는 도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09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ㄱ. 통치자가 무위지치를 실행하여 백성이 무지, 무욕의 상태에서 소박하게 살도록 이끄는 것이 참된 다스림이라고 주장하였고, ㄷ. 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보았다. 또한 노자는 ㄹ. 만물을 상대적으로 바라볼 때 다툼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바로알기 | ㄴ. 노자가 강조한 도는 우주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으로서 형체가 없다. 그러므로 도는 인간의 언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감각 기관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09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① 노자는 마음을 비우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허정(虛靜)을 통해 인위적 욕망에서 벗어나 도(道)의 근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그는 도란 형체가 없어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언어로 규정되는 순간 이미 영원한 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③ 통치자가 희귀한 것을 숭상하고 재능을 치켜세우면 백성의 욕망이 자극되어 무위자연의 삶에서 멀어지고 사회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⑤ 노자는 있음과 없음, 어려움과 쉬움처럼 대립하는 개념들은 서로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④ 외부 사물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경험을 넓힐수록 도에 가까워진다고 본 것은 노자의 입장이 아니다. 노자는 멀리 떠돌수록 참된 앎이 줄어든다고 보았으며, 억지로 힘쓰지 않아도 성인은 모든 것을 이루어 낸다고 하였다.

098

공자는 내면의 사욕을 극복하고 외면의 규범인 예를 회복하는 것이 곧 인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갑(공자): 자신의 사욕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을 실현하는 길이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아야 한다.

을(노자): 훌륭한 상인은 재화를 깊이 간직하여 겉으로는 텅 빈 것처럼 보이고, 참된 군자는 덕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모습은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법이다. 자연히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참된 덕이 드러나는 것이다.

재물을 감추는 상인처럼 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연히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참된 덕이 드러난다는 무위(無爲)의 태도를 비유로 보여 줌

갑은 공자, 을은 노자이다. ④ 노자는 인위적 규범을 강조할수록 도에서 멀어진다고 보았으며, 덕을 드러내지 않고 자연히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참된 덕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노자의 이러한 입장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의예지를 하덕(下德)으로 보고 무위의 상덕(上德)이 참된 덕임을 강조한 것과 연결된다.

바로알기 | ① 사회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법과 제도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법가의 입장이다. 노자는 무위의 다스림을 행하면 인위적으로 다스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하기 위해 예가 필요하다고 본 것은 순자의 입장이다. ③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격물치지의 수양을 강조한 것은 주희의 입장으로, 노자가 제기할 비판이 아니다. ⑤ 노자는 예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억압하고 사회를 오히려 혼란하게 만드는 인위적 규범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도를 잃은 후에 덕이 생기고, 덕을 잃은 후에 인이 생기고, 인을 잃은 후에 의가 생기고, 의를 잃은 후에 예가 생긴다고 하였다.

099 갑은 순자, 을은 노자이다. 순자에 비해 노자는 '통치자가 무위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정도(X)'가 높고, '예의와 법도로써 타고난 본성을 교화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Y)'가 낮으며, '인위적 교화보다 자연 그대로의 본성을 따르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정도(Z)'가 높다. 갑의 입장과 비교한 을 입장의 상대적 특징은 그림의 ㉢이다.

100 갑은 노자, 을은 공자이다. ㄱ. 노자는 통치자가 인의와 같은 인위적 규범을 내세워 백성을 교화하려 할수록 오히려 도에서 멀어진다고 보았다. ㄴ. 공자는 내면의 도덕성인 인(仁)을 근거로 예를 실천함으로써 군자의 인격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악하므로 성인이 제정한 예로써 본성을 교정해야 한다고 본 것은 순자의 입장이다. ㄹ. 인위적 규범과 제도를 철폐하여 사회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고 본 것은 노자만의 입장이다. 공자는 인위적 규범인 인의와 예를 회복하여 사회 혼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101 갑은 노자, 을은 맹자이다. ㄱ. 노자는 유교적 덕목을 하덕(下德)으로 보아 무위의 상덕(上德)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ㄷ. 맹자는 노자와 달리 도덕규범의 확립과 실천을 통해 사회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노자는 자연의 본성을, 맹자는 선천적인 선한 본성을 따르는 것이 이상적 삶의 근거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천적으로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태어날 때 본성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진술은 맹자의 입장이 아니다.

102 장자는 제물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심재(心齋)와 좌망(坐忘)을 제시하였다. 심재는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텅 비워서 깨끗이 하는 것이고, 좌망은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103 장자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지인, 신인, 성인, 진인 등을 제시하였다. 장자가 보는 이상적 인간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공적과 명예에 얽매이지 않으며, 도와 합일되어 정신적 자유와 내면적 평화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바로알기 | ① 장자는 도가 개미나 오물에도 깃들어 있을 만큼 만물에 두루 존재한다고 보았다. ② 장자는 시비와 미추 등의 분별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임을 강조하였다. ③ 장자는 인의의 덕과 같은 인위적 도덕규범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⑤ 장자는 삶과 죽음을 도(道)의 관점에서 동등하게 바라본 사상가로서 삶과 죽음을 자연의 순환 과정으로 보고 생과 사에 초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② 장자는 도가 개미나 기와, 심지어 오물에도 깃들어 있을 만큼 만물에 두루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제물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장자는 인의(仁義)와 같은 인위적 도덕규범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양법으로 심재와 좌망을 제시하였다. ③ 이상적 인간은 삶을 기뻐하고 죽음을 슬퍼하는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 것은 장자의 입장이 아니다. 그는 삶과 죽음을 도(道)의 관점에서 동등하게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집착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보았다. ④ 장자는 인간의 상대적이고 유한한 인식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절대적인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장자는 사물의 관점이 아닌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볼 때 제물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105 **모범 답안** 장자는 명예와 공적에 대한 집착이 자연적 본성을 해치고 정신적 자유를 가로막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장자는 A에게 관심과 수익에 대한 욕심,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분별적 사고를 내려놓고, 마음속 잡념을 씻어 내어 내면을 텅 비우는 심재(心齋)와 명예, 공적에 대한 집착을 잊어버리는 좌망(坐忘)의 수양을 실천할 것을 권할 것이다.

10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① 장자는 도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만물에 편재하며, 만물은 도를 본성으로 삼아 존재한다고 보았다. ② 장자는 이상적 인간은 세속적 명예와 공적에 집착하지 않고 도와 하나가 되어, 삶과 죽음조차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④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높고 낮음, 옳고 그름은 인간의 주관적 분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인위적 기준으로 만물 사이에 우열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⑤ 장자는 심재로 마음속 욕구를 비워 내면을 고요히 하고, 좌망으로 인의와 형체에 대한 집착까지 완전히 내려놓음으로써 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③ 장자는 좌망의 수양이 예악과 인의를 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았으며, 인위적 도덕규범의 실천이 아닌 도와의 합일을 통해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심재와 좌망을 통해 자기중심적 편견을 내려놓고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르는 장자의 수양론과 연결된다.

10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 역시 인간의 자기중심적 기준에서 비롯된 상대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즉 장자는 시비, 미추와 같은 인위적 분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세속의 구속에서 해방된 소요유의 경지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장자는 인위적인 도덕규범을 따르는 삶보다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르는 삶을 살 때 사회적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무력으로 백성을 다스려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태도는 장자의 무위자연 사상과 거리가 멀다.

10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④ 장자에 따르면 만물은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지고 생겨났지만, 도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차이에 따른 우열이 없다. 이처럼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제물(齊物)의 경지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장자는 시비, 귀천, 미추, 생사 등의 분별을 초월하여 자연 만물이 평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장자의 입장에서 선악과 미추는 상대적인 가치를 지닐 뿐이다. ② 마음을 비우는 수양을 강조한 사상가는 장자이지만, 사덕의 실현을 강조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③ 장자는 공적과 명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것을 강조하였다. ⑤ 장자는 스스로 근본이 되는 도는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만물에 두루 존재한다고 보았다.

109 갑은 노자, 을은 장자이다. ③ 장자는 만물 사이의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할수록 자기중심적 편견에 빠져 도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노자는 인위적 규범과 제도를 강화할수록 도에서 멀어진다고 보았다. ② 노자는 인의와 같은 유교적 덕목을 하덕(下德)으로 보았다. ④ 경(敬)의 자세로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본 사상가는 이황이다. ⑤ 노자, 장자 모두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다.

110 갑은 장자, 을은 맹자이다. ① 장자는 맹자에게 인의의 규범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② 장자는 맹자에게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③ 맹자는 장자에게 사단과 같은 도덕 감정이 중요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⑤ 맹자는 장자에게 사회 규범이 중요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④ 도와 합일하는 무위의 삶은 장자가 강조하는 내용이므로 맹자가 장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111 갑은 공자, 을은 장자이다. ① 장자는 인위적 규범과 학문적 탐구를 강조할수록 자기중심적 분별이 심해져 자연적 본성에서 멀어진다고 보았으므로 공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② 사단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것이 이상적 인간이 되는 핵심 수양임을 간과한다고 본 것은 맹자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③ 덕치보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사회 혼란을 극복하는 근본임을 간과한다고 본 것은 법가의 입장에서 공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④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 사이의 귀천과 시비의 구별은 절대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본 것은 장자의 입장이 아니다. 장자는 이러한 분별이 상대적임을 강조하였다. ⑤ 이상적 인간은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바탕으로 삼독(三毒)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본 것은 불교의 입장이다.

112 갑은 순자, 을은 장자이다. A에는 순자는 '예', 장자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 B에는 순자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C에는 장자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③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은 스승의 가르침과 예를 통해 교화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B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순자는 부정, 장자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 사이에 귀천의 차이가 없다는 것에 장자는 긍정하지만 순자는 사회적 분별과 구분을 강조하였으므로 부정할 것이다. ④ 순자는 예로써 타고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경(敬)과 성(誠)을 통해 천리(天理)와 합일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 것은 성리학의 입장이다. 따라서 장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13 그림의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연기(緣起)의 원리에 따라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라고 보았다. ⑤ 그는 무아(無我)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아와 세계가 영원하다는 착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의 상호 관계에 의해 생겨난다고 보았다. ② 석가모니는 무아의 진리를 깨달아야 해탈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원인이 마음속 집착에 있다고 보았다. ④ 석가모니는 연기의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의 만물은 다른 대상과의 상호 작용을 배제한 채 홀로 존재하거나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1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③ 석가모니는 삼법인을 통해 만물은 영원하지 않고[제행무상(諸行無常)],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없으며[제법무아(諸法無我)], 이를 깨달을 때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열반적정(涅槃寂靜)]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석가모니는 만물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소멸한다고 보았다. ② 석가모니 입장에서 삼독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④ 석가모니는 나와 타자가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나와 다른 존재는 연기의 법칙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⑤ 석가모니는 만물은 오온이 인연에 의해 결합한 존재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 역시 오온이 결합하여 임시로 머무는 존재이므로 불변하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제법무아(諸法無我)] 보았다.

11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⑤ 석가모니는 욕망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무아의 진리를 깨닫고 오온에 집착하지 않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난 경지인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석가모니는 모든 것은 변하며, 모든 존재에는 고정불변의 실체적 자아가 없다는 제행무상과 제법무아의 진리를 강조하였다. ② 절대적 존재의 가르침에 귀의할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석가모니의 입장이 아니다. ③ 연기에 따르면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와 현상도 독립적일 수 없다. ④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원인이 마음속 집착에 있다고 보았다.

11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① 석가모니는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연기적 세계관을 깨달아 실천할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② 초월적 존재에 귀의하여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괴로움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석가모니의 입장이 아니다. ③ 석가모니는 자아의 불변하는 실체를 부정하였다. ④ 석가모니는 고통의 근본 원인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와 탐착에 있다고 보았다. ⑤ 석가모니는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강조하였다.

117 제시된 글은 불교의 입장이다. ㄱ, ㄷ. 불교는 만물이 서로 원인과 조건이 되어 생겨난다고 보는 연기설을 강조하였으며, 열반에 이르면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불교에서는 무명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ㄹ. 불교에서는 수행을 할 때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118 제시된 글은 불교의 입장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색·수·상·행·식의 오온(五蘊)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오온은 모두 무상하므로 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불교에서는 고정불변의 자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1)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생겼다고 보므로 불변하는 실체의 자아도 부정한다.

119 (가)는 팔정도이다. 불교에서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열반을 실현하고자 한다. 팔정도는 삼학으로 집약되며, 중도의 수행법으로서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불교가 초월적 존재나 신 중심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수행과 깨달음을 강조하는 사상임을 잘 보여 준다.
바로알기 | ㄷ. 팔정도의 수행이 절대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본 것은 석가모니의 입장이 아니다. 불교는 스스로의 깨달음과 수행을 통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개념 보충

팔정도(八正道)와 삼학(三學)의 관계

삼학	팔정도	특징
계(戒)	• 정어(正語): 올바른 말 • 정업(正業): 올바른 행동 • 정명(正命): 올바른 생업	몸, 말, 생각으로 범하는 나쁜 짓을 방지하고 선업(善業)을 쌓는 수행임
정(定)	• 정정진(正精進): 올바른 노력 • 정념(正念): 올바른 집중 • 정정(正定): 올바른 명상	한곳에 정신을 집중하여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임
혜(慧)	• 정견(正見): 올바른 견해 • 정사(正思): 올바른 생각	고요한 상태에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리를 깨닫는 수행임

120 사성제(四聖諦)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이다. ㉠ 고성제는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진리이다. 괴로움의 예로는 생로병사 등이 있다. ㉡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과 관련한 진리이다. 불교에서는 욕망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고 본다. ㉢ 멸성제는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에 관한 진리이다. ㉣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로, 팔정도의 수행법을 제시한다.
바로알기 | ㉤ 팔정도는 극단적 쾌락과 극단적 고행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의 수행법이다.

12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④ 석가모니는 모든 것은 오온이 연기의 원리에 따라 임시로 결합한 것이며, 이를 깨달아 집착을 버릴 때 괴로움에서 벗어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는 고유한 실체가 없으며, 연기에 의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할 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② 석가모니는 연기의 법칙에 따라 생겨난 존재는 불변하는 본질이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보았다. ③ 석가모니는 무아(無我)의 원리를 깨달으면 무명의 아집에서 벗어나 집착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열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석가모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독립된 자아가 없음을 깨닫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보았다.

122 **모범 답안** (가)는 사성제이다. 사성제의 네 가지 진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성제는 고통받는 현실에 대한 진리이다. 둘째,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로, 불교에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 때문에 고통이 발생한다고 본다. 셋째, 멸성제는 고통의 소멸에 대한 진리로, 삼독의 번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열반의 상태를 말한다. 넷째, 도성제는 멸성제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진리이다. 열반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는 극단적 쾌락이나 극단적 고행에 빠지지 않는 바른 수행인 팔정도(八正道)가 있다.

123 제시된 글은 사성제 중 고성제를 설명한다. 고성제는 인생이 고통이라는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는 것으로, 고통받는 현실의 참모습을 자각할 때 비로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연기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원인과 조건의 상호 관계로 생겨난다는 불교의 핵심 원리이다. ③ 집성제는 무명과 욕망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진리이다. ④ 멸성제는 삼독의 번뇌를 소멸시켜 열반에 이른 상태를 제시하는 진리이다. ⑤ 도성제는 열반에 이르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는 진리이다.

12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팔정도를 실천하여 무명으로 인한 집착을 소멸시킬 때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석가모니는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극단적 쾌락이나 고행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수행을 말한다.

125 **모범 답안** 불교에서는 삼독을 극복하기 위한 수행의 세 가지 유형으로 계(戒), 정(定), 혜(慧)의 삼학을 제시한다. 계는 몸, 말, 생각으로 범하는 악행을 막고 선업을 쌓는 수행이고, 정은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하는 수행이며, 혜는 고요한 상태에서 진리를 깨달아 일체의 분별심을 제거하는 수행이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할 때 삼독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

126 석가모니는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으며, 삼독을 소멸할 때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열반은 삼독의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이다.
바로알기 | ②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고 보았다. ③ 석가모니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를 부정하였다. ④ 극단적 고행을 통한 엄격한 수행을 거쳐야만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본 것은 석가모니의 중도 사상에 어긋난다. ⑤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원인이 마음속 집착에 있다고 보았다.

12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① 석가모니는 고통과 번뇌를 소멸하는 실천적 수행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였다.

② 그는 연기의 이치를 깨달으면 나와 타인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③ 삼법인을 통해 모든 존재는 계속 변하며,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고 강조하였고, 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을 제거할 때 비로소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④ 석가모니는 무위(無爲)가 아니라 연기와 무아의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 삼독에서 벗어날 때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무위는 도가의 핵심 개념으로, 인위적 규범에서 벗어나 자연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다.

128 갑은 석가모니, 을은 순자이다. ② 석가모니는 외적 규범이 아닌 연기의 깨달음을 통해 괴로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므로 순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예를 통한 교화 없이는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③ 인간의 본성이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고자이다. ④ 내면의 본성을 확충하는 것이 수양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⑤ 하늘의 도덕을 바탕으로 본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주장은 순자의 천인지분(天人之分)에 어긋난다.

129 (가)는 대승 불교이다. 대승 불교는 보살행과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며, 연기의 원리를 바탕으로 자비를 모든 생명체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ㄷ. 개인의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삼는 것은 부파 불교의 입장이다. 대승 불교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보살을 제시한다.

130 제시된 글은 대승 불교의 경전 중 하나인 『유마경』의 일부이다. ㄱ, ㄷ. 대승 불교는 자타불이를 바탕으로 깨달음과 중생 구제가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ㄴ. 출가를 통해 개인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은 부파 불교의 입장이다. ㄹ. 모든 현상과 존재에 자성이 있다는 주장은 대승 불교의 공(空) 사상에 어긋난다.

131 대승 불교의 바라밀에는 선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반야가 있다. ⑤ 선정은 헛된 생각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고요히 한곳에 집중하는 수행이다.

바로알기 | ① 보시는 타인을 위한 봉사, ② 지계는 규칙과 선의 실천, ③ 인욕은 고난을 참고 용서하는 것, ④ 정진은 끊임없는 노력, 반야는 분별을 떠나 모든 이치를 밝게 꿰뚫어 보는 지혜를 의미한다.

132 제시된 글은 대승 불교의 바라밀을 설명하고 있다. ㄱ. 바라밀 중 반야는 다른 바라밀의 바탕이 된다. ㄷ, ㄹ. 바라밀은 깨달음과 중생 구제를 이루기 위한 보살의 수행법으로, 바라밀의 실천은 자기완성의 깨달음과 공동체 안에서의 배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준다.

바로알기 | ㄴ. 대승 불교는 깨달음과 중생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133 대승 불교에서는 깨달음과 중생 구제를 이루기 위한 보살의 수행법으로 바라밀(波羅蜜)을 강조한다. 바라밀은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번뇌와 고통이 없는 경지인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가 있다.

13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대승 불교의 공(空) 사상을 체계화한 용수이다. 그는 연기에 의해 생겨난 모든 존재에는 독자적 자성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모든 존재는 연기에 의해 상호 의존적이므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불교의 기본 바탕이 된다.

바로알기 | (1) 공(空)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를 의미한다고 본 진술은 옳지 않다. 용수의 사상에서 공은 유와 무의 극단을 떠난 중도적 입장을 말한다.

135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용수이다. 그는 모든 존재가 인과 연에 따라 성립하므로 고정불변하는 독자적인 성질, 즉 자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용수는 공이 유(有)와 무(無)의 극단이 아님을 주장하며 중도를 강조하였으므로 공을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으로 보지 않았다.

바로알기 | ㄹ. 용수는 인연에 의존하여 잠정적으로 성립한 현상에도 변하지 않는 고유한 본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즉 연기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독립적인 자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무자성(無自性)을 공으로 이해하였다.

136 갑은 대승 불교 사상가 용수, 을은 장자이다. ② 용수는 모든 존재에 자성이 없음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도가 사상가인 장자 역시 인위적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만물의 고유한 실체를 탐구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본 것은 용수와 장자 모두의 입장이 아니다. ③ 만물의 본질을 언어로 규정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본 것은 두 사상가 모두의 입장이 아니다. ④ 인위적 규범과 제도를 통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 것은 유교 또는 법가의 입장이다. ⑤ 사회 구성원 각자가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때 도덕적 질서가 실현된다고 본 것은 공자의 입장이다.

137 갑은 부파 불교, 을은 대승 불교의 입장을 지닌다. ㄱ. 부파 불교는 엄격한 수행과 교리 연구를 통한 개인의 해탈을 중시한다. ㄷ. 대승 불교는 부파 불교의 이러한 경향이 대중과 멀어졌다고 비판하며 자비의 실천을 강조한다. 갑, 을은 계율과 교리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차이점을 보이지만, ㄹ. 두 입장 모두 궁극적으로 깨달음과 해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바로알기 | ㄴ. 대승 불교는 대중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수행자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깨달음도 중시한다. 수행자가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 것은 부파 불교이다.

138 갑은 대승 불교, 을은 부파 불교의 입장을 지닌다. ④ 부파 불교는 교리 연구와 개인의 번뇌 소멸을 수행의 핵심으로 보았다. 대승 불교는 이를 비판하면서 자타불이를 바탕으로 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보살행을 이상적 수행으로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① 대승 불교는 공(空) 사상을 통해 모든 존재에 자성이 없음을 강조한다. ② 대승 불교는 깨달음과 중생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③ 대승 불교의 입장이다. ⑤ 대승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은 보살이며, 부파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은 아라한이다.

139 갑은 부파 불교, 을은 대승 불교이다. ③ 부파 불교는 아라한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보며 개인의 번뇌 소멸을 수행의 목표로 삼는다.

바로알기 | ① 대승 불교는 보살행의 실천을 통해 깨달음과 중생 구제를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② 부파 불교와 대승 불교 모두 연기의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임을 강조할 것이다. ④ 대승 불교는 자비를 모든 생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대승 불교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실천 덕목 중 반야는 다른 바라밀의 바탕이 되지만 순서상 선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 01~02강 | 36~39쪽

140 ⑤	141 ②	142 ④	143 ②	144 ④	145 ④
146 ①	147 ③	148 ④	149 ①	150 ④	151 ⑤
152 ④	153 ⑤	154 ③	155 ⑤		

14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⑤ 맹자는 군주가 인의를 저버려 천명을 잃으면 백성이 새로운 군주를 세울 수 있다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주장하였다. 이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보는 민본주의적 왕도 정치론과 연결된다.

바로알기 | ① 맹자에 따르면 일반 백성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가질 수 있다. ② 사단은 후천적 수양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③ 군주가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백성을 다스릴 때 도덕적 질서가 실현된다고 본 것은 법가의 입장이다. ④ 엄격한 법, 술, 세를 갖춘 군주만이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 것은 법가의 입장이다.

141 갑은 공자, 을은 묵자이다. ㄴ. 공자는 인(仁)의 실천이 가까운 혈연관계에서 출발하여 사회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ㄹ. 묵자는 친소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겸애(兼愛)를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백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통치자의 중요한 책무라는 것에 공자, 묵자 모두 긍정할 것이다. ㄷ. 예악을 장려해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공자이다. 묵자는 예악이 백성의 삶에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삼가야 한다는 비악론(非樂論)을 주장하였다.

142 갑은 맹자, 을은 순자, 병은 고자이다. 맹자는 사단 확충과 집의를 통한 호연지기를, 순자는 예(禮)를 통한 본성 교화와 능력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였으며, 세 사상가 모두 후천적 수양을 통해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선하게 되는 것은 타고난 본성이 아닌 후천적 환경과 노력의 결과라는 주장은 순자와 고자의 입장에 부합한다.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는 부정할 진술이다.

14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② 주희는 심통성정(心統性情)에 근거하여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통솔하며, 인의예지의 사덕이 발하여 측은, 수오, 사양, 시비의 사단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주희는 이일분수(理一分殊)에 따라 하나의 이가 만물 각각에 온전히 내재한다고 보았다. ③ 본연지성은 이와 기를 아울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이(理)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 ④ 도덕적 앎과 실천은 본래 하나이므로 불선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불선을 행한 것이라고 본 것은 왕수인의 지행합일 입장이다. ⑤ 본연지성(本然之性)은 천리 그 자체로서의 본성이며, 기질지성(氣質之性)은 각각의 타고난 기질의 영향을 받은 본성이다. 따라서 기질지성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맑게 하여 본연지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144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ㄱ. 왕수인은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이미 불선한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ㄴ. 주희는 본연지성은 사덕(四德)을 지니므로 순선하지만, 기질지성은 기질의 상태에 따라 선과 불선이 가능하므로 도덕적으로 행위하려면 기질을 바로잡아 본래의 순선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천리로서의 본성을 보존하려면 거경궁리(居敬窮理)의 수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ㄹ. 두 사상가 모두 사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존천리거인욕(存天理去人欲)]을 수양의 핵심으로 삼았다.

바로알기 | ㄷ. 도덕적 이치는 마음 안에 있으므로 사물의 탐구 없이도 양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주희는 사물의 이치 탐구를 강조하였다.

145 북쪽 바다의 큰 물고기[鯤]가 붕새[鵬]로 변해 하늘로 솟구치는 것을 작은 새가 비웃는 것은 좁은 시야에 갇혀 큰 경지를 헤아리지 못함을 보여 줌

북쪽 바다에 사는 커다란 물고기가 새로 변해 하늘로 솟구쳐 오른다. 작은 새는 이를 보고 비웃지만 그것은 자신의 좁은 시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성인은 시비(是非)의 어느 한쪽에 서지 않고 자연에 비추어 볼 뿐이다.

장자가 주장한 제물론(齊物論)의 가르침으로, 인위적 분별과 시비를 넘어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을 동등하게 바라볼 것을 강조함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ㄱ, ㄴ, ㄷ. 그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 사이에 귀천과 우열의 차이가 없다는 제물(齊物)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양 방법으로 심재와 좌망을 제시하였고,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한 지인은 공적과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삶과 죽음에도 초연하게 대처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ㄹ. 장자는 인위적 도덕규범에서 벗어나 도와의 합일을 추구하였다.

146 갑은 노자, 을은 공자이다. ① 노자는 인의와 같은 도덕규범이 강조되는 것 자체가 이미 도에서 멀어진 증거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통치자는 강제된 법보다 덕과 예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사상가는 공자이므로 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③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통치자가 솔선하여 덕성을 함양하고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공자이므로 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④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명분에 걸맞은 역할을 다할 때 도덕적 질서가 실현된다고 본 사상가는 공자이므로 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⑤ 노자, 공자 모두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백성의 경제적 안정보다 도덕적 교화를 먼저 실현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갑,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147 갑은 순자, 을은 노자이다. ③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하기 위해 성인이 제정한 예와 교육이라는 인위적 규범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순자는 천인지분을 주장하여 하늘을 자연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② 순자는 마음에 선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④ 노자는 예치(禮治)가 아니라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하고 백성이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무위지치(無爲之治)를 통해 소국과민의 이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순자만의 입장이다. 노자는 인위적인 도덕규범이 오히려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148 갑은 공자, 을은 순자, 병은 노자이다. ④ 공자와 순자는 모두 예(禮)를 통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공자는 예를 인(仁)의 외면적 실천 형식으로, 순자는 성인이 인위적으로 제정한 규범으로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인위적 도덕규범을 버려야 한다고 본 것은 도가의 입장이다. ② 순자에 따르면 예란 귀천, 장유, 빈부 등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사회 질서를 유지해 준다. ③ 노자는 정치에 있어서도 무위지치(無爲之治)를 행하면 인위적으로 다스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순자는 하늘을 도덕적 의지가 없는 자연 현상으로 보는 천인지분(天人之分)을 주장하였다. 노자는

하늘이 아니라 도(道)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으며, 인위적인 도덕규범에서 벗어나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개념 보충

공자, 순자, 노자의 사상 비교

구분	공자	순자	노자
인성론	본성의 선·악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성악설: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한 본성을 타고남	인간의 본성은 도(道)에 따라 자연히 그러한 것
수양론	극기복례(克己復禮), 충(忠), 서(恕) 실천	화성기위(化性起僞): 예(禮)와 교육으로 이기적 본성을 교화함	허정(虛靜): 마음을 비우고 무위자연의 삶을 실천함
정치론	덕치(德治): 덕으로 백성을 교화함	예치(禮治): 예와 법도로 사회 질서를 유지함	무위지치(無爲之治): 인위적 규범 없이 도에 따라 다스림
하늘관	하늘을 도덕의 근원으로 여겨 존중함	천인지분(天人之分): 하늘은 자연 현상임	하늘도 도(道)를 본받음

149 갑은 맹자, 을은 장자이다. 맹자가 강조한 의(義)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사회적 정의를 말한다. ① 맹자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의로운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므로 장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② 좌망과 심재를 통해 분별심을 버려야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음을 간과한다고 본 사상가는 장자이다. ③ 인위적 도덕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제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 사상가는 장자이다. ④ 군주는 패도가 아닌 왕도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맹자이다. ⑤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후천적 교화가 필요하다고 본 사상가는 고자이다.

15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④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한다는 연기의 이치를 깨닫고, 나와 타자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며 욕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불성(佛性)은 모든 중생이 본래 지니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② 자아의 불변하는 실체를 확립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근본이라고 본 것은 석가모니의 제법무아 사상에 어긋난다. ③ 절대적 존재에 귀의하여 구원을 기다릴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은 석가모니의 입장이 아니다. ⑤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원인이 마음속 집착에 있다고 보았다.

15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그는 연기의 원리에 따라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며, 무명으로 인한 집착을 소멸하고 자타불이를 깨달아 자비를 실천할 때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석가모니는 인간의 삶이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석가모니는 사성제를 통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152 갑은 왕수인, 을은 석가모니이다. ㄱ. 왕수인은 지행합일을 강조하였고, ㄷ. 석가모니는 무상, 무아의 진리를 깨달아 번뇌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ㄹ. 두 사상가 모두 도덕적 실천의 근거를 내면에서 찾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바로알기 | ㄴ. 석가모니는 제법무아를 강조하여 고정불변하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53 용수는 ㉠ 모든 존재가 여러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여 성립하므로 독립적이고 고정된 자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무자성을 일컬어 공이라고 하였다. ㉡ 공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임시적으로 성립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 또한 연기에 의해 성립하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가명(假名)으로 이해하였으며, ㉣ 있음[有]에 집착하거나 없음[無]에 빠지는 양극단에서 벗어나는 중도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 용수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인연이 모여 생겼다가 흩어질 때까지 임시로 있으므로 있는 것도 아니고[非有] 없는 것도 아니다[非無]. 그는 모든 것이 있음[有]과 없음[無]의 양극단이 아닌 중도의 자리에 머문다고 주장하였다. 즉 중도는 유와 무를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154 제시된 글은 대승 불교의 입장을 보여 준다. ㄴ. 대승 불교에서는 보시를 행할 때 형상이나 감각적 대상뿐만 아니라 자신이 따르는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지향한다. 또한 ㄷ. 대승 불교는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지혜와 중생의 고통을 덜어 주는 자비를 함께 실천하는 보살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삼는다.

바로알기 | ㄱ. 공 사상을 중심으로 발전한 대승 불교는 모든 존재에 독립적이고 고정된 자성이 없음을 깨닫는 공의 지혜를 강조하지만, 이를 모든 현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므로 자성이 없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ㄹ.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여러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것도 독립된 실체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보살의 보시는 베푸는 자와 도움을 받는 중생을 각각 고정된 실체로 파악하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의 이치를 깨닫고 주체와 대상, 행위 자체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155 갑은 부파 불교, 을은 대승 불교이다. A에는 부파 불교에서 '예', 대승 불교에서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 B에는 부파 불교에서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C에는 대승 불교에서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ㄷ. 부파 불교는 아라한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삼아 개인의 번뇌 소멸을 수행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ㄹ. 대승 불교는 모든 현상에 고정불변하는 자성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므로 각각 B,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다.

바로알기 | ㄱ.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임을 강조하는가?'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모두 긍정한다. ㄴ. '삼독(三毒)을 소멸하고 팔정도를 실천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삼는가?'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사상 모두 긍정한다.

03 사상적 차이는 어떻게 해소되고 조화될 수 있는가?

개념 확인 문제 41쪽

156 원융회통 157 일심 158 내외겸전 159 돈오점수
160 정혜쌍수 161 일심이문 162 무애 163 선종 164 교종
165 의천

난이도별 필수 기출 41~45쪽

166 ① 167 ③ 168 해설 참조 169 ⑤ 170 ③
171 ④ 172 ⑤ 173 ④ 174 ① 175 해설 참조
176 ② 177 ⑤ 178 ④ 179 ⑤ 180 ② 181 ⑤
182 해설 참조 183 ⑤ 184 ① 185 ⑤ 186 ②

166 원효는 일심(一心)을 화쟁의 근거로 삼아, 대립하는 종파의 이론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 모두 하나로 융합될 수 있다는 원융회통을 주장하였다. ㄱ. 그는 염불만으로도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으며, ㄷ. 일심은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두 측면을 포괄하는 인간 본연의 청정한 마음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원효는 어느 특정 종파를 우위에 두지 않고, 모든 종파의 이론이 일심의 관점에서 하나로 회통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불성을 단번에 자각한 이후에도 오랜 습기(習氣)를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지눌이 주장한 돈오점수(頓悟漸修)이다.

16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③ 원효는 각 종파의 이론이 하나의 진리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립하는 종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각자의 이론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 진단하였으며, 모든 다툼은 일심이라는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화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원효는 복잡한 경전 공부 없이도 진심으로 염불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보아 학문 장려보다 대중 교화에 힘썼다. ② 원효는 논쟁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일심의 관점에서 대립을 넘어서는 화해를 추구하였다. ④ 원효는 특정 종파의 주장을 우위에 두지 않고, 서로 다른 종파의 주장을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⑤ 원효에 따르면 일심은 진여문과 생멸문을 포괄하며, 이 둘은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일심의 두 양상이라고 보았다.

168 **모범 답안** 화쟁 사상이란 대립하는 이론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원융회통의 논리를 바탕으로, 대립과 논쟁을 화해와 조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보는 사상이다.

16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ㄴ, ㄷ, ㄹ. 그는 현상 세계의 모든 것은 일심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각 종파의 이론들도 일심의 시각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평등하며 차별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일심은 진여와 생멸을 아우르며,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원효는 출가나 경전 공부를 수행의 필수 조건으로 보지 않았으며, 진심 어린 염불만으로도 극락왕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170 원효는 화쟁 사상을 통해 원융회통의 논리로 각 종파 간 대립을 화해시키려 하였으며,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바로알기 | ㉢ 원효는 특정 경전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다른 경전을 해석하고 우열을 가린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전과 교설을 일심의 관점에서 조화롭게 이해하는 화쟁을 강조하였다.

17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④ 원효는 무애(無碍)를 새긴 표주박을 들고 전국을 누비며 무애행을 실천하였는데, 이는 신분이나 학식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려는 그의 대중적 불교관을 잘 보여 준다.

바로알기 | ① 원효는 불성을 깨닫기 위해 반드시 세속을 떠나 수행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세속에서 백성들과 어울리며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자 하였다. ② 원효는 불교의 종파마다 추구하는 진리가 일심의 차원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③ 원효는 특정 경전을 중심으로 나머지를 해석하는 방식을 거부하였다. ⑤ 원효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바탕으로 참된 진리는 마음 안에 있으며 마음 밖에서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17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의 화쟁 사상은 각 집단의 주장이 부분적 진리를 담고 있음을 인정하고,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옳다고 단정하는 대신 일심(一心)이라는 더 높은 차원에서 대화와 화해를 이끌어 내는 논리이다. 이를 집단 간 갈등 상황에 적용하면, ⑤ 상대를 배척하거나 특정 집단을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의 주장을 포용하며 대화와 화해를 모색해야 한다.

바로알기 | ① 다수 집단의 신념으로 소수를 교화하는 것은 특정 기준의 우위를 전제하는 방식으로, 원효의 원융회통 정신과 어긋난다. ② 가장 오래된 전통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특정 집단을 중심에 두는 방식이므로, 원효의 입장으로 옳지 않다. ③ 원효는 특정 신념이나 교리만을 옳다고 인정하여 다른 집단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④ 원효는 대립하는 이론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분리와 단절을 권하지 않을 것이다.

17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일심(一心)을 근거로, 서로 대립하는 종파의 이론들이 각각 부분적 진리를 담고 있으며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융합될 수 있다는 원융회통(圓融會通)의 화쟁(和諍) 사상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원효는 가장 옳은 하나의 이론만 남기고 나머지를 물리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④ 대립하는 이론들도 부분적 진리를 담고 있으므로 일심 안에서 회통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마음 안의 양지(良知)를 온전히 실현하면 앎과 실천이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행합일(知行合一)과 치양지(致良知)를 주장한 왕수인의 입장이다. ② 자신의 본성을 단번에 깨치면 그 즉시 수행이 완성되어 더 이상의 닦음이 필요 없다[돈오돈수(頓悟頓修)]는 것은 혜능의 입장이다. ③ 교(敎)와 선(禪)을 함께 닦는 수행을 통해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한 사상가는 의천과 지눌이다. 원효의 화쟁은 두 종파의 통합이 아니라 여러 학파의 다양한 이론을 일심의 관점에서 회통하려는 것이었다. ⑤ 인위적 분별과 집착을 버리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제물(齊物)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장자의 입장이다.

17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① 무애행(無碍行)은 원효가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자신과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실천한 것을 의미한다. 그는 신분이나 학식에 관계없이 모든 백성이 불교에 다가올 수 있도록 힘써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바로알기 | ② 교관겸수(敎觀兼修)는 교(敎)와 관(觀)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의천의 수행법이다. ③ 돈오점수(頓悟漸修)는 단번에 깨달은 뒤에도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눌의 수행법이다. ④ 정혜결사(定慧結社)는 지눌이 타락한 불교계를 정화하기 위해 전개한 결사 운동이다. ⑤ 정혜쌍수(定慧雙修)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지눌의 수행법이다.

175 **모범 답안** 원효는 같은 물이라도 마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듯, 모든 현상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지어낸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깨달음을 얻었다. 즉, 참된 진리는 마음 밖에서 따로 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다.

17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의천이다. ㄱ, ㄹ. 의천은 교종이 중시하는 경전 탐구에만 몰두하거나 선종이 중시하는 참선에만 치우치는 것을 모두 편향된 수행으로 비판하면서, 교리 공부와 마음을 닦는 지관(止觀)을 균형 있게 함께 실천하는 교관겸수(敎觀兼修)와 내외겸전(內外兼全)을 강조하였다. 그는 교종을 중심으로 교선 통합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선종 중심의 지눌과 구별된다.
바로알기 | ㄴ.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는 통합을 추구한 것은 지눌이다. 의천은 교종(천태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아우르는 방향을 취하였다. ㄷ. 의천은 경전 공부를 보조 수단으로 격하하지 않았으며, 교리 공부와 마음 수행을 함께 중시하였다.

17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의천이다. ①, ②, ③, ④ 의천은 원효의 화쟁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계승하였으며, 교관겸수를 제시하며 한쪽으로 치우친 수행을 비판하고, 교리 공부와 마음을 다스리는 지관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교종의 외적 공부와 선종의 내적 참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내외겸전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⑤ 의천은 교(敎)와 지관(止觀)이 서로 다른 목적의 수행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닦아야 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수행자의 성향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전 탐구와 참선 중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의천이 비판한 치우친 태도이다.

17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④ 지눌은 정(定)은 마음의 본체이고 혜(慧)는 마음의 작용으로,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며 정혜쌍수를 점수의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① 지눌은 단번에 깨달음을 얻더라도 오랫동안 쌓인 번뇌의 습관은 즉각 사라지지 않으므로 돈오 이후에 반드시 점수가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② 정혜쌍수는 돈오 이전이 아니라 돈오 이후의 점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③ 교(敎)와 관(觀)을 함께 실천하는 교관겸수를 강조한 사상가는 의천이다. ⑤ 지눌은 돈오 이후에도 점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돈오만으로 수행이 완성된다는 입장을 비판하였다.

17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지눌은 본성이 곧 부처임을 단번에 깨치는 돈오 이후에도 오랜 습기를 점차 제거하는 점수가 필요하다는 돈오점수를 주장하였으며, 돈오 이후의 수행 방법으로 정혜쌍수를 제시하였다. 그는 선정[定]과 지혜[慧]는 선후의 구분 없이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선(禪)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의 말씀이므로 그 근본이 다르지 않다는 선교일원(禪敎一元)의 관점에서 선교 통합을 추구하였다.
바로알기 | ㄱ.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포용하여 선교의 대립을 해소하려 한 것은 교종 중심의 통합을 추구한 의천의 입장이다.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는 통합을 추구하였다.

18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지눌은 선정과 지혜가 본체와 작용의 관계로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보아 정혜쌍수를 강조하였으며, ② 마음속 청정한 불성을 단번에 깨달았더라도 오랜 시간 형성된 그릇된 번뇌의 습관을 닦아 내는 꾸준한 수행, 즉 점수가 뒤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바로알기 | ① 지눌은 선정과 지혜 사이에 순서를 두지 않았다. 정과 혜는 본체와 작용으로 동시에 함께 닦아야 하는 것이다. ③ 교관겸수를 강조한 것은 의천이다. ④ 지눌은 선종과 교종의 근본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며, 수행자가 종파를 골라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⑤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아우르고자 했으므로, 교종의 경전 탐구가 근본이고 참선이 보조라고 본 것은 지눌의 입장이 아니다.

181 정혜결사(定慧結社)는 지눌이 권력에 오염된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하고, 명예와 이익을 내려놓은 채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순수한 수행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전개한 결사 운동이다.
바로알기 | ①, ② 교관겸수와 내외겸전은 의천이 강조한 수행 방법이다. ③ 돈오점수는 지눌이 강조한 수행 방법이다. ④ 선교일원은 선종과 교종의 근본이 다르지 않다고 본 지눌의 사상적 입장이다.

182 **모범 답안** 의천은 교관겸수와 내외겸전을 통해 경전 공부와 실천 수행을 함께 닦을 것을 강조하였고, 지눌은 돈오점수와 정혜쌍수를 통해 깨달음 이후에도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사상가 모두 어느 한쪽 수행에만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 수행을 함께 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183 갑은 의천, 을은 지눌이다. 의천은 교관겸수, 내외겸전을 강조하며 교종을 중심으로 교선 통합을 추구하였다. ㄷ. 지눌은 자신의 본래 마음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단번에 깨닫는 돈오(頓悟)가 이루어진 뒤에야 진정한 수행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ㄹ. 두 사상가 모두 교종과 선종 어느 한쪽의 독주를 비판하며 통합을 지향하였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바로알기 | ㄱ. 의천은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 두 가지에 모두 힘써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ㄴ. 불성을 단번에 자각하면 이후 수행 없이도 깨달음이 완성된다고 본 돈오돈수(頓悟頓修)는 혜능의 입장이다. 의천은 교리 공부와 지관 수행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보았다.

184 갑은 의천, 을은 지눌이다. 의천은 교종 중심의 통합을 추구하며 경전 공부와 지관 수행을 함께 닦는 교관겸수를 강조하였고, 지눌은 돈오 이후에도 오랜 습기를 제거하는 점수가 필요하다고 보아 두 사상가는 통합의 방향과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바로알기 | ㄴ.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추구하며 불교 본연의 모습 회복에 힘쓴 것은 의천과 지눌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에 해당하므로 의천만 긍정하고 지눌이 부정할 질문으로 볼 수 없다. ㄷ. 불성을 단번에 자각한 이후에도 습기를 점진적으로 소멸시키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지눌의 입장이다.

✓ 개념 보충

의천과 지눌의 사상 비교

구분	의천	지눌
사상적 배경	교종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함	선종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함
수행 방법	• 내외겸전(內外兼全) • 교관겸수(敎觀兼修)	• 돈오점수(頓悟漸修) • 정혜쌍수(定慧雙修)
공통점	모두 교리 공부와 마음 수행이 깨달음에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함	

185 갑은 지눌, 을은 의천이다. ⑤ 의천은 교(敎)와 지관(止觀)을 함께 닦는 교관겸수를 수행법으로 삼아 교종(천태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아우르고자 하였다. 지눌은 돈오점수, 정혜쌍수를 수행법으로 삼아 선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눌은 '아니요', 의천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바로알기 | ① 의천은 교종의 종파 중 하나인 천태종을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눌은 '아니요', 의천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② 돈오 이후 묵은 번뇌를 제거하는 점수는 지눌이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지눌은 '예', 의천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③ 경전 공부와 참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비판한 점은 두 사상가 모두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눌과 의천 모두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④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려고 한 것은 지눌의 입장이다. 따라서 지눌은 '예', 의천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186

• 지눌이 타락한 불교계를 정화하고자 일으킨 정혜결사(定慧結社)의 취지를 담고 있다.

갑(지눌): 명예와 이익은 놓아 버리고 정과 혜를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부처가 입으로 설파한 것이 교(敎)이고, 조사가 마음으로 전한 것이 선(禪)이니, 부처와 조사의 마음과 입이 서로 위배될 리 없다.

• 불성은 본래 청정하여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단번에 자각하는 것이라는 돈오(頓悟)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을(혜능): 마음을 밝은 거울에 비유하여 수시로 닦아야 한다고 하나, 본래 거울이 따로 있지 않으니 먼지가 낄 곳도 없다. 불성은 본래부터 청정하여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니, 자신의 본성을 단번에 직관하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갑은 지눌, 을은 혜능이다. 지눌은 선종과 교종의 근본 진리가 다르지 않다는 선교일원(禪敎一元)의 관점에서 두 종파를 함께 아울러야 한다고 보았으며, 불성을 단번에 자각한 이후에도 오랜 습기를 차츰 소멸시키는 돈오점수의 꾸준한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혜능은 불성이 본래 청정하므로 돈오만으로 깨달음이 완성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지눌과 구별된다.

바로알기 | ㄴ. 지눌은 경전 탐구를 마음 수행보다 우선시하지 않았다. 그는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존중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경전 탐구에 우위를 두지 않았다. ㄷ. 지눌도 혜능과 마찬가지로 불성을 단번에 깨닫는 돈오(頓悟)를 주장하였으므로, 지눌이 혜능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04 도덕적 감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는가? ~ 도덕적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가?

개념 확인 문제 48쪽

187 이귀기천 188 칠정포사단 189 경 190 생리 191 성기호설
192 이기불상잡 193 기발이승일도설 194 민본주의 195 심즉리설
196 형구의 기호

난이도별 필수 기출 48~59쪽

197 ③	198 ③	199 이황	200 ②	201 ③	202 ④
203 ③	204 해설 참조		205 ①	206 ②	207 ③
208 ⑤	209 ③	210 ⑤	211 ②	212 ①	
213 해설 참조		214 ④	215 ①	216 ①	217 ④
218 ③	219 ⑤	220 해설 참조		221 ④	222 ④
223 ⑤	224 ①	225 해설 참조		226 ③	227 ④
228 ④	229 ⑤	230 ②	231 해설 참조		232 ⑤
233 ③	234 ④	235 ⑤	236 ④	237 ④	238 ①
239 ⑤	240 ①	241 ①	242 ②	243 ②	244 ①
245 해설 참조		246 ①	247 ④	248 ①	249 ⑤

197 이황은 ㄴ.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따라 사단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르는 감정으로 본래부터 순선(純善)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ㄷ. 이귀기천(理貴氣賤)을 주장하며 이(理)가 기(氣)보다 가치론적으로 우위에 있어 기를 주재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이황은 이(理)와 기(氣)가 개념상으로는 구별되어 섞이지 않지만[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 현실에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를 인정하였다. ㄹ. 이황은 이기호발설에 따라 사단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氣)가 발하여 이(理)가 타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19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을 강조하며 이(理)와 기(氣)가 개념상으로는 엄연히 구별된다고 보았고, 이기호발설에 따라 ③ 사단과 칠정은 발하는 근원이 각각 이(理)와 기(氣)로 달라 서로 대응시켜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사단과 칠정이 모두 기(氣)가 발한 것으로 연원에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은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각각 이(理)와 기(氣)로 다르다고 보았다. ② 이황은 칠정이 기(氣)가 발한 것이어서 선하게도 악하게도 흐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칠정을 선악과 무관한 중립적 감정으로 보지 않았다. ④ 이(理)가 스스로 발할 수 없어 사단이 기발이승(氣發理乘)의 방식으로만 드러난다고 본 것은 이이의 입장이다. 이황은 이(理)도 운동성이 있으며, 능동적으로 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여 사단이 칠정 가운데 순선하게 드러난 감정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이이의 입장이다.

19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을 각각 이와 기로 구분하였다.

20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ㄱ, ㄷ. 그는 사단은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따르는 정(情)이며, 칠정은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타는 정(情)이라고 보았다. 사양하는 마음은 사단 중 사양지심(辭讓之心)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ㄴ. 이황은 칠정도 절도에 맞으면 선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관계이며, 사단을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으로 본 것은 이이의 입장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연원이 다른 별개의 감정으로 여겼다.

20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①, ② 이황은 이귀기천(理貴氣賤)을 주장하였으며, 기뿐만 아니라 이도 운동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④, ⑤ 이황은 사단을 이가 발한 감정, 칠정을 기가 발한 감정으로 구분하고, 사단은 순선한 반면 칠정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③ 이황은 이는 순선무악하지만 기는 맑고 흐림에 따라 선악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202 이황은 이와 기의 관계에 있어 이원론적 관점을 취하였다. 그는 이와 기가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는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기에 대한 이의 주재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감정을 사단과 칠정으로 나누어 그 근원이 다름을 강조하였는데,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올라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같으며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고 본 것은 이이의 입장이다. 이황은 사단의 근원은 이(理), 칠정의 근원은 기(氣)로 구분하고, 두 가지를 별개의 감정으로 간주하였다.

20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경(敬)을 통해 ㄴ.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의 미발(未發) 상태에서는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하는 존양(存養)을, ㄹ. 감정이 드러난 이후의 이발(已發) 상태에서는 도덕 원리에 합치하는지 스스로 살피는 성찰(省察)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이황은 경(敬)의 수양이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발과 이발 모두를 관통하는 수양법이라고 보았다. ㄷ. 이황은 이(理)를 보존하는 것 자체를 수양의 핵심으로 삼았으며, 탁한 기질을 바로잡는 교기질(矯氣質)을 수양의 핵심으로 강조한 것은 이이의 입장이다.

204 **모범 답안** 경은 행위를 주재하는 마음을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수양법이다.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는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주일무적, 몸가짐과 마음을 가지런하고 엄숙하게 유지하는 정제엄숙, 정신을 항상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상성성이 있다.

20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그는 사단과 칠정의 발현 양상에 각각의 근원이 있다고 보아 사단은 이(理)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氣)가 발한 것이라고 구분하였으나, ㄱ. 이(理)와 기(氣)는 현실에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ㄴ. 경(敬)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 수양을 통해 사욕을 제거하고 본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ㄷ. 이황은 인간의 욕구를 긍정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敬)의 수양을 통해 사욕을 제거하고 도덕적 본성을 보존할 것을 강조하였다. ㄹ. '사단은 이(理)가 발한 본성'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단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른 감정[情]이다.

206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A에는 이황이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 B에는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① 이황은 기뿐만 아니라 이도 발할 수 있다는 이기호발설을 주장하였다. ③ 이황은 기가 발한 감정인 칠정은 절도에 맞지 않으면 악하게 흐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이황은 사단을 이가 발한 도덕 감정으로, 칠정은 기가 발한 일반 감정으로 구분하였다. ⑤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사단에 해당한다. 이황에 따르면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 감정이다.

바로알기 | ② 이황은 기가 발한 감정인 칠정은 선과 악이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해당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20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이이는 이통기국(理通氣局)과 이기지묘(理氣之妙)를 주장하며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를 강조하였다. 그는 이(理)가 무위(無爲)하여 스스로 발할 수 없으므로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방식으로만 드러난다고 보았다. 또한 이이는 이통기국(理通氣局)에 따라 이(理)는 형체가 없어 성인과 범인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갖추어진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③ 이(理)가 능동적으로 발할 수 있으며 이가 발하면 사단이 드러난다고 본 것은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이다. 이이는 이(理)가 무위(無爲)하여 스스로 발할 수 없으므로 사단과 칠정 모두 기발이승(氣發理乘)의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20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근원이 다른 감정으로 보지 않고, 모두 기발이승일도(氣發理乘一途)로 설명하였다. 또한 이(理)는 본래 순선하여 수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⑤ 도덕적 차이는 기질의 청탁(淸濁)에서 비롯되므로 탁한 기질을 바로잡는 교기질(矯氣質)을 수양의 핵심으로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이이는 도덕적 행위의 차이가 선천적 본성이 아니라 기질의 청탁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② 사단과 칠정이 각각 이(理)와 기(氣)에서 발한 감정으로 근원이 서로 다르다고 본 것은 이황의 이기호발설이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타는 단 하나의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③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관계[칠정포사단(七情包四端)]이며 칠정 중 순선무악한 감정을 사단이라고 보았다. ④ 이(理)가 스스로 발하여 도덕 감정을 일으키므로 이(理)의 보존이 수양의 핵심이라고 본 것은 이황의 입장이다.

209 이(理)는 형체가 없어 만물에 두루 통하여 동일하지만, 기(氣)는 형체가 있어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각 사물에 국한되어 차이를 만듦.

> 대저 이(理)는 기(氣)를 주재하는 것이고, 기는 이가 타는 바탕이다. 이가 아니면 기는 근거할 곳이 없고, 기가 아니면 이는 깃들 곳이 없다. 비유하자면 이(理)는 마치 물과 공기와 같고, 기(氣)는 그릇과 같다. 물을 담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물의 모양도 다르게 보이지만 그릇 안에 담긴 것이 물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1) 이이는 이(理)에 작용성이 없으므로 사단과 칠정 모두 기발이승(氣發理乘)의 방식으로만 드러난다고 보았다. (4) 이이는 이(理)는 본래 순선하여 도덕적 차이는 기질의 청탁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2) 이이는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를 강조하여 이(理)와 기(氣)가 현실에서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3) 사단은 칠정과 별개의 근원에서 나온 순수한 이의 발현이라는 진술은 이황의 이기호발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이는 사단과 칠정이 별개의 근원을 가진다는 주장을 부정하였다.

21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①, ④ 이이는 이(理)는 본래 순선하므로 도덕적 결함은 기질의 탁함에서 비롯된다고 보아 기질을 바로잡는 교기질을 수양의 핵심으로 강조하였다. ② 이이는 경(敬)을 수양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고, 경(敬)을 요령 삼아 궁극적으로 성(誠)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이이는 이와 기가 묘합의 관계에 있다는 이기지묘(理氣之妙)를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⑤ 이이는 이(理) 자체는 본래 순선하므로 수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탁한 기질을 교정하는 교기질(矯氣質)이 수양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21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ㄱ. 이이는 이와 기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여 이기지묘(理氣之妙)를 제시하였다. 이기지묘는 이와 기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묘합의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ㄷ. 이이는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까닭은 이라고 보면서, 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기가 움직이면 이가 올라타는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ㄹ.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보며, 사단은 칠정 중 선한 부분만을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12 이이는 이통기국(理通氣局)을 바탕으로 이(理)는 만물에 두루 통하여 보편적이지만 기(氣)는 시공간의 제약으로 각 사물에 국한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간의 도덕적 차이는 이(理)의 차이가 아니라 기질의 청탁(淸濁)에서 비롯되므로, ① 탁한 기질을 맑게 바로잡는 교기질(矯氣質)을 도덕적 삶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② 이통기국(理通氣局)은 이이가 이(理)와 기(氣)의 성질을 설명한 개념이지, 수양의 구체적 실천 방법이 아니다. ③ 정혜결사(定慧結社)는 지눌이 권력에 오염된 불교계를 정화하기 위해 전개한 결사 운동이다. ④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는 이(理)와 기(氣)가 현실에서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이이의 이기론적 입장이지, 수양의 핵심 과제가 아니다. ⑤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은 이(理)와 기(氣) 모두 발할 수 있다고 본 이황의 주장으로, 이이의 입장이 아니다.

213 **모범 답안** 이황은 이(理)도 능동적으로 발할 수 있으므로 사단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르는 이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의 방식으로 드러나며, 이 때문에 사단이 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이이는 이(理)가 무위(無爲)하여 스스로 발할 수 없으므로 사단도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기를 타는 기발이승(氣發理乘)의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214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경(敬)을 학문의 시작과 끝으로 삼아 마음이 고요할 때 이(理)를 보전하고, 감정이 일어날 때 이(理)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ㄱ. 이황은 순수한 도덕 본성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마음을 경건히 유지하는 것을 수양의 핵심으로 보았다. ㄴ. 이이는 이(理)가 본래 순선하여 수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탁한 기질을 바로잡는 교기질(矯氣質)을 수양의 핵심으로 강조하였다. ㄹ. 이황과 이이 모두 사욕을 제거하고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수양의 목표로 삼았다.

바로알기 | ㄷ. 이이는 경(敬)이 수양의 결과가 아니라 수양의 요령에 해당하고, 성(誠)이 수양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보았다.

215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ㄱ, ㄴ. 이이는 이황이 이(理)의 능동적 발동을 주장한 것과 달리, 이(理)가 무위(無爲)하여 스스로 발할 수 없고 기(氣)만이 발의 주체라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였다. 즉 사단과 칠정 모두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기를 타는 단 하나의 방식으로만 드러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이이는 이(理)와 기(氣)를 각각 발하는 주체로 보지 않았다. 기(氣)만을 발하는 주체로 보았을 뿐이다. ㄹ. 이와 기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으면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을 혼동하게 됨을 간과한다는 진술은 이황이 이이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 개념 보충

이황과 이이의 사단 칠정론 비교

구분	이황	이이
핵심 학설	이기호발설: 이(理)와 기(氣) 모두 발할 수 있음	기발이승일도설: 발하는 것은 오직 기(氣)뿐임
사단 칠정의 발현	• 사단은 이발기수(理發氣隨) →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름 • 칠정은 기발이승(氣發理乘) →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기를 탐	• 사단, 칠정 모두 기발이승(氣發理乘) →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기를 탐 • 칠정 안에 사단이 포함(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
이와 기의 관계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 강조 → 이와 기의 개념적 구분 중시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 강조 → 이와 기의 현실적 결합 중시
공통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성(性)에, 사단과 칠정은 정(情)에 해당함	

216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ㄱ. 이황은 이기호발설에 따라 이(理)가 능동적으로 발하여 순선한 사단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ㄴ. 이이는 칠정포사단(七情包四端)을 주장하며, 칠정의 선한 측면은 사단의 선함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는 것은 이황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이이는 이와 기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묘한 관계라고 보았다. ㄹ. 이황과 이이 모두 이(理)와 기(氣)가 현실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이황은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를 인정하였고, 이이는 이기불상리를 더욱 강조하여 이(理)와 기(氣)가 현실에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묘한 관계라고 보았다.

217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④ 이황은 이기호발설에 따라 이(理)와 기(氣)가 각각 발할 수 있어 사단과 칠정의 발현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이이는 기발이승일도설에 따라 사단과 칠정 모두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타는 단 하나의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황은 '예', 이이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으로 B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② 이황과 이이 모두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므로 A에 들어갈 수 없다. ③ 이황은 '아니요', 이이는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므로 B에 들어갈 수 없다. ⑤ 이이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으로 C에 들어갈 수 없다.

21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조식이다. ㄱ. 조식은 학문은 반드시 일상 속 도덕적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ㄴ. 조식은 경과 의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ㄷ. 조식은 민본주의(民本主義)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ㄹ. 조식은 여러 차례 벼슬을 거부하고 재야에 머물며 도를 연마하는 처(處)의 삶을 선택하였다.

21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조식이다. 조식은 경(敬)을 사사로운 욕망이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는 내적 수양으로 보았으며, ⑤ 이러한 내면의 깨어 있음이 전제될 때에야 비로소 외적 실천이 욕망의 표출이 아닌 진정한 의로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경은 외적 실천의 반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내면의 수양이다. ② 조식은 일상의 실천에 관한

공부인 하학(下學)이 형이상학적 진리 탐구에 관한 공부인 상달(上達)보다 먼저라고 보았다. ③ 조식은 벼슬에 나아가는 출(出)이 아닌 재야에서 도를 연마하는 처(處)의 삶을 선택하였다. ④ 조식은 경이 전제되지 않은 실천은 설령 의로운 결과를 낳더라도 욕망의 표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220 **모범 답안** 조식은 늘 깨어 있는 마음을 유지하고자 옷고름에 쇠방울인 성성자(惺惺子)를 달고, 사욕이 일어나면 자신을 베어 버리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경의검(敬義劍)을 차고 다녔다. 이는 내적 수양인 경과 외적 실천인 의를 중시한 조식의 실천적 자세를 보여 준다.

22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조식이다. ㄱ. 그는 『민암부』에서 백성을 물에, 임금을 배에 비유한 민본주의적 혁명론을 제기하였다. ㄷ. 그는 경(敬)을 내적 수양으로, 의(義)를 외적 실천으로 보았으며, 이 둘은 분리된 수양이 아니라 경이 전제되어야 의로운 실천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ㄹ. 일상의 도덕 실천인 하학이 형이상학적 탐구인 상달보다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조식에게 경과 의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경이라는 내면의 깨어 있음이 있어야만 의로운 외적 실천이 가능한 것이다.

222 조식은 경(敬)을 사사로운 욕망이 마음에 한 치도 스며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는 내적 수양으로 보았고, 의(義)를 일상에서 의로움을 단호하게 결단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외적 수양으로 보았다. 그는 경이라는 내면의 깨어 있음이 전제되지 않은 외적 실천은 진정한 의로움이 아닌 욕망의 표출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임금을 배에, 백성을 물에 비유하여 민본주의적 혁명론을 드러냈다.
바로알기 | ㉣ 조식은 벼슬에 나아가는 출(出)이 아닌 재야에서 도를 연마하는 처(處)의 삶을 선택하여 자기 수양과 제자 양성에 힘썼다.

22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제두이다. 정제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양지(良知)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사사로운 욕심과 악한 생각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도덕적 앎과 실천은 분리될 수 없다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정제두는 인간에게는 도덕 판단 능력인 양지가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 ㄴ. 정제두는 외부 사물에 별도의 이치가 없다고 보았다.

224 정제두는 인간에게만 부여된 이치를 생리(生理)라 하였으며, 이 생리가 온전히 드러난 상태를 진리(眞理)라 하였다.
바로알기 | 정제두에 따르면 물리(物理)는 돌멩이나 초목 등 개별적 사물에 내재된 이치로 도덕과 무관한 죽은 이치이며, 인간에게만 부여된 생리와 구별된다.

225 **모범 답안** 생리는 인간에게만 부여된 살아 있는 이치로, 옳고 그름을 스스로 깨닫고 도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동적 근거이다. 반면 물리는 돌멩이, 초목 등 사물에 내재된 이치로 도덕적 능동성이 없는 죽은 이치이다.

22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제두이다. ㄱ, ㄹ. 정제두는 이치가 마음 안에 갖추어져 있다고 보아 마음 밖 사물을 탐구하는 성리학적 격물치지를 이론에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ㄴ. 정제두는 양지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배우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ㄷ. 임정종욕(任情縱欲)이란 감정과 욕망이 향하는 대로 마음을 놓아 버리는 것으로, 정제두가 양명학의 폐단으로 지적하며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감정과 욕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임정종욕의 해결책이 아니다.

22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제두이다. 그는 마음속에 살아 있는 도덕 원리인 생리를 제시하여, 양지가 참된 도덕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바로알기 | ④ 정제두는 마음 밖에 어떠한 이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22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제두이다. ①, ②, ③, ⑤ 정제두는 생리를 인간에게만 부여된 능동적 이치로, 돌멩이나 초목에 내재된 물리와 구별하였다. 이러한 생리를 부여받은 인간은 스스로 도덕을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체이며, 지행합일에 따라 참된 앎에는 반드시 실천이 수반된다고 보았다. 또한 정제두에게 격물치지란 마음 밖 사물이 아닌 마음을 바르게 하여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바로알기 | ④ 사물의 이치를 하나씩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는 것은 주희(성리학)의 격물치지를 뜻하는 것으로, 정제두가 이론에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방식이다.

229 갑은 정제두, 을은 주희이다. ⑤ 정제두는 왕수인의 심즉리(心卽理) 사상을 계승하여 이치가 인간의 마음 안에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마음 밖의 사물에서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고 보는 주희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도덕적 앎과 실천의 관계에서 선지후행(先知後行)을 주장한 것은 주희이므로 주희가 정제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② 이와 기가 현실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성리학의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에 해당한다. ③ 격물치지를 개별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것으로 본 것은 주희이므로 주희가 정제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④ 정제두가 왕수인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230 ② 정제두는 왕수인의 양명학을 수용하여 도덕적 앎과 실천이 하나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긍정하였다.
바로알기 | ① 정제두에 따르면 양지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③ 주희가 강조한 선지후행(先知後行)의 입장이다. ④, ⑤ 정제두는 마음이 곧 이치이며, 마음 밖에는 어떠한 이치도 없다는 양명학의 심즉리설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31 **모범 답안** 임정종욕(任情縱欲)은 감정과 욕망이 향하는 대로 마음을 놓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정제두는 마음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양명학의 한계를 임정종욕이라는 용어로 제시하였다.

232 갑은 이황, 을은 정제두이다. 정제두는 이치가 모두 마음 안에 갖추어져 있으므로 앎과 실천은 본래 하나라는 지행합일을 역설하였다. ⑤ 따라서 정제두는 이황에게 경(敬)의 수양을 통해 도덕 본성을 먼저 보존한 뒤 실천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앎과 함(실천)의 일치를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도덕 감정의 연원이 이(理)가 아니라 기(氣)가 발한 데 있다고 본 것은 이이의 입장이다. ② 마음 밖 사물에서 이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정제두의 입장이다. ③ 경(敬)의 수양 없이는 도덕 본성을 보존하고 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이황의 주장이므로 B에 들어갈 수 없다. ④ 사단과 칠정이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하나의 길만 있다고 본 것은 이이의 입장이다.

233 정약용은 기호를 형구(形軀)의 기호와 영지(靈知)의 기호로 구분하였다. 형구의 기호는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는 감각적 경향이고, 영지의 기호는 인간에게만 부여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경향으로 인간의 본성이 이에 해당한다는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은 하늘로부터 선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기질지성은 이(理)와 기(氣)가 결합하여 현실에 드러나는 본성에 해당한다. 성기호설은 인간의 본성을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일종의 경향성, 즉 기호로 보는 정약용의 학설이다.

23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가)는 자주지권(自主之權)으로,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으로서 선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의미한다. ④ 자주지권으로 인해 인간은 선악의 방향이 고정되지 않으므로 도덕적 선택의 주체가 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된다.

바로알기 | ① 자주지권은 인간에게만 부여된 것으로 동물과 공통으로 지니는 능력이 아니다. ② 자주지권은 선한 본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③ 자주지권은 격물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선천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⑤ 자주지권은 수양을 통해 점차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선천적 능력이다.

☑ 개념 보충

정약용의 사상

구분	내용
인성론	성기호설(性嗜好說):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경향성
기호	• 형구지기호(形軀之嗜好): 육체적 감각 기호 • 영지지기호(靈知之嗜好): 선을 좋아하는 도덕적 기호
자주지권	하늘이 부여한 선악 선택의 자율적 능력 → 선악의 방향이 고정되지 않으며 도덕적 책임은 인간에게 있음
사단·사덕	사단(四端)은 도덕 실천의 시작점[단시설(端始說)] → 사단의 감정을 시작으로 실천을 쌓아 가는 과정에서 사덕(인의예지)이 형성됨
수양	신독(愼獨): 상제(上帝)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홀로 있을 때도 몸과 마음을 바르게 유지해야 함

235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ㄷ. 정약용은 성리학의 추상적 심성론을 비판하고 인간의 능동성을 중시하였으며, ㄹ. 선의 기호를 사회로 확장하여 공동체를 개선하는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것을 사회 개혁의 근거로 삼은 것은 주희의 입장에 가깝다. ㄴ. 정약용은 욕망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며, 인간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중시하였다.

236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도덕이 본성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실천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④ 상제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홀로 있을 때도 선을 좋아하는 본성에 따라 스스로 실천을 쌓아 가는 신독(愼獨)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기질을 맑게 하는 수양을 통해 본연지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성리학의 입장이다. ②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③ 마음 바깥의 사물에서 이치를 탐구하는 것은 성리학의 격물치지 방식이다. ⑤ 사물의 이치를 충분히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한 뒤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주희가 강조한 선지후행(先知後行)을 가리킨다.

23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2) 정약용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인 영지(靈知)의 기호를 지닌다는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주장하였다. (4) 정약용은 상제(上帝)를 인간의 선악을 살피는 인격적 존재로 보았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상제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삼가는 신독(愼獨)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1), (3) 인간의 본성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욕망을 제거하고 예를 통한 교화로 악한 본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순자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았다.

23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②, ③, ④, 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 즉 영지의 기호이고,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자주지권과 함께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보았다. 사덕은 선천적으로 내재한 것이 아니라 실천 후에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는 공부인 신독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성즉리(性卽理)는 주희의 입장으로,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이(理)가 아닌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경향성으로 보았다.

239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A에는 정약용이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 B에는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이(理)가 아니라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경향성인 기호로 보았으며, 인의예지의 사덕은 선천적으로 내재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실천 이후에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B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②, ③ 정약용이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그는 인간의 욕구가 도덕적 실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단이 선천적으로 마음속에 내재해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이 하늘로부터 자주지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④ 정약용이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인간의 본성이 이(理)이므로 순선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주희의 입장이다.

240 제시된 글의 '나'는 정약용, '어떤 학자'는 주희(성리학)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이(理)가 아니라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경향성이라는 성기호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① 인의예지의 사덕은 본성에 선천적으로 내재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감정을 시작으로 도덕적 실천을 쌓아 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형성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② 정약용은 선택에 의한 도덕 행위의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다. ③ 인간의 본성을 이(理)로 본 것은 주희(성리학)의 입장이며, 수양 없이도 선이 실현된다는 것은 성리학의 입장이 아니다. ④ 마음 안의 천리를 보존함으로써 도덕적 삶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주희의 입장이다. ⑤ 정약용이 강조한 신독은 남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241 제시된 개념들을 강조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② 정약용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도덕적 경향성인 영지의 기호를 부여받는다고 보았다. ③ 정약용은 동물은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 자주지권이 없으므로 칭찬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인간은 자주지권을 지니므로 도덕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다. ④ 정약용은 학문은 현실에서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경세치용의 정신에 부합해야 하며, 형이상학적 논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정약용은 사단을 선천적으로 주어진 선한 마음으로 보았으며, 사단을 시작으로 도덕적 실천을 쌓아 가는 과정에서 인의예지의 사덕이 비로소 완성된다고 주장하였다.

242 인의예지는 본성에 미리 들어 있는 알맹이가 아니라 도덕적 실천을 행한 뒤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이름이라는 뜻으로, 이는 사단을 도덕 실천의 시작점으로 본 정약용의 단시설(端始說)을 보여 줌

> 인의예지라는 이름은 실제로 행위를 실천한 뒤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 뒤에 인(仁)이라고 하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인이라 하지 않고, 자신을 선하게 한 뒤에 의(義)라고 하지 자신을 선하게 하기 전에 의라고 하지 않는다. 손님과 주인이 절하고 읍한 뒤에 예(禮)라 하고, 사물을 명확히 분간한 뒤에 지(智)라고 말할 수 있다. 어찌 인의예지라는 네 가지 알맹이가 복숭아나 살구의 씨앗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겠는가?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ㄱ, ㄹ. 정약용은 마음의 기호가 선천적 본성이며, 인의의 덕은 본성에 선천적으로 내재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감정을 시작으로 도덕적 실천을 쌓아 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ㄴ. 정약용은 인간에게만 도덕적 지향성인 영지의 기호가 있다고 보았다. ㄷ. 정약용은 덕이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다고 보지 않았으며, 자유 의지의 결단을 강조하였다.

24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ㄱ. 정약용은 학문이 현실에서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 데 유용해야 한다는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실학 정신을 강조하였다. ㄷ.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하늘로부터 자주지권을 부여받아 도덕적 자유 의지를 지닌 자율적 존재이다.

바로알기 | ㄴ. 본성이 곧 이치라는 성즉리(性卽理)는 주희의 입장으로, 정약용은 이를 비판하고 성기호설을 제시하였다. ㄹ. 사단을 인간의 마음속에 덕이 있음을 알려 주는 단서로 보는 것은 성리학의 입장이다. 정약용은 사단은 우리가 덕을 형성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고 보았다.

24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ㄱ. 정약용은 인간이 자주지권을 통해 선악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율적 존재라고 보았다. ㄴ. 정약용은 하늘을 인격적 존재로 보아 인간의 도덕 행위를 살핀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ㄷ. 정약용은 욕구가 도덕적 실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욕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ㄹ. 인의예지가 인간 본성에 선천적으로 내재하여 수양을 통해 발현된다고 본 것은 성리학의 입장이다. 정약용은 인의예지의 사덕이 실천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245 **모범 답안** 정약용이 제시한 자주지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인간이 선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선을 선택하여 실천해야 하며, 그 행위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

246 정약용은 선을 기호하는 자율적 존재인 인간이 상제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홀로 있을 때에도 몸과 마음을 바르게 유지하는 신독(愼獨)을 수양의 핵심 자세로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② 교기질은 이이가 강조한 것으로, 기질을 맑게 하는 수양 방법이다. ③, ⑤ 격물치지와 존양성찰은 성리학에서 강조한 수양 방법이다. ④ 정혜쌍수는 지눌이 제시한 불교의 수행 방법이다.

247 갑은 정제두, 을은 정약용이다. ㄱ. 정제두는 마음 바깥에 이치가 없다고 보아 양지의 실현을 수양의 핵심으로 강조하였고, 사사로운 욕심이 양지를 가리면 도덕적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ㄷ. 정약용은 사람이 지닌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일종의 경향성이라는 성기호설을 주장하였다. ㄹ. 정제두와 정약용은 모두 도덕적 앎과 실천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 도덕적 실천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바로알기 | ㄴ. 정약용은 인간만이 영지의 기호를 지닌다고 보았고, 형구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 모두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248 갑은 주희, 을은 정약용이다. ㄱ. 주희는 이일분수(理一分殊)에 따라 인간과 사물 모두 동일한 하나의 이(理)를 부여받는다고 보았다. ㄴ. 정약용은 덕이 일상의 실천을 통해 비로소 형성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ㄷ. 인의예지의 사덕이 선천적으로 인간 본성에 내재해 있다고 본 것은 성리학의 입장이다. 정약용은 사덕이 선천적으로 내재한 것이 아니라 실천 이후에 비로소 형성된다고 보았다. ㄹ. 인간의 본성이 이(理)와 일치하여 순선하다고 본 것은 주희만의 입장이며, 정약용은 본성을 이(理)가 아닌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으로 보았다.

✓ 개념 보충

주희와 정약용의 사상 비교

구분	주희	정약용
인성론	성즉리(性卽理): 본성은 이(理)로서 순선함	성기호설(性嗜好說): 본성은 선을 기호하는 경향성임
사단·사덕	단서설(端緖說): 사단은 본성에 선천적으로 내재한 인의예지의 실마리 → 확충하여 사덕 실현	단시설(端始說): 사단은 도덕 실천의 시작 → 실천을 쌓아 가는 과정에서 사덕 형성
하늘관	비인격적 우주 원리(천리)	인격적 존재(상제), 인간 행위를 살핌
수양론	격물치지·거경	신독
공통점	후천적 노력(수양)을 통해 도덕적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봄	

249 갑은 이이, 을은 정약용이다. ㉠, ㉡ 이이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기'이고, '이'는 기가 발하는 근거라고 주장하며,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만을 인정하였다. 또한 도덕적 불완전함의 원인을 기의 영역에 두고, 기질을 바로잡음으로써 도덕 본성으로서의 이(理)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 정약용에 따르면 기호의 종류로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가 있는데, 영지의 기호는 인간만이 지닌 기호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에 해당된다. 형구의 기호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지니고 있으며 본능, 감각과 연관된 생리적 기호에 해당된다. 또한 정약용은 인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주지권을 통해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바로알기 | ㉤ 정약용은 자주지권이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보았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 03~04강 | 60~63쪽

250 ①	251 ④	252 ③	253 ⑤	254 ②	255 ③
256 ④	257 ④	258 ④	259 ③	260 ④	261 ⑤
262 ④	263 ⑤	264 ④	265 ④		

25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ㄱ, ㄴ. 원효는 마음 밖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심외무법(心外無法)]고 보았으며,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하여 고집하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는 원융회통의 논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불교의 수행에는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며, 무애행(無碍行)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ㄷ. 원효는 어느 하나의 이론만을 옳다고 따르지 않고, 여러 이론을 높은 차원에서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원효는 종파 사이의 다름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251 갑은 원효, 을은 의천이다. ㄱ. 원효는 일심(一心)을 근거로 각 종파의 이론이 부분적 진리를 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회통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진심 어린 염불만으로도 누구나 극락왕생이 가능하다고 가르쳐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ㄴ. 의천은 경전 탐구나 참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을 편향된 수행으로 비판하며 교관겸수를 강조하였다. ㄹ. 원효와 의천은 모두 인간이 본래 청정한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깨달음으로써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의천은 천태종을 세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포용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252 지눌은 오랫동안 쌓인 번뇌의 습기(習氣)가 남아 있더라도 자신의 본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단번에 깨닫는 돈오(頓悟)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만 깨달음 이후에도 남아 있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점진적 경전 탐구와 교리 이해를 깨달음의 핵심으로 본 것은 의천의 입장이다. ② 아미타불에 귀의하는 정토 신앙을 통한 극락왕생을 강조한 것은 원효의 입장이다. ④ 부처의 가르침이 문자와 경전에 온전히 담겨 있다고 본 것은 교종의 입장이다. ⑤ 돈오만으로 번뇌의 습관이 즉시 사라진다고 본 것은 혜능의 입장으로, 지눌은 이를 비판하며 점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53 갑은 의천, 을은 지눌이다. 지눌은 본래 청정한 마음을 단박에 깨달아야 한다는 돈오(頓悟)를 강조하면서도, 깨달음 이후에도 오랫동안 쌓인 그릇된 습기는 곧바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점수(漸修)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⑤ 지눌이 의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는, 선종의 깨달음을 토대로 정혜쌍수의 수행을 지속해야 참된 깨달음이 완성됨을 간과한다는 것이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정토 신앙을 통한 극락왕생을 강조한 것은 원효의 입장으로, 의천이 지눌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삼독 소멸과 팔정도 실천은 초기 불교의 수행 목표로 의천, 지눌 모두 부정하지 않는다. ③ 불성을 단박에 깨닫는 것만으로 수행이 완성된다고 본 것은 지눌이 아니라 혜능의 입장이다. ④ 중도와 연기의 이치를 강조한 것은 초기 불교의 핵심으로, 두 사상가 모두 부정하지 않는다.

25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의천이다. ㄱ. 의천은 당시의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ㄷ. 의천은 경전 읽기와 참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교관겸수(敎觀兼修)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ㄴ. 간화선은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참선 방법으로, 지눌이 강조한 수양법이다. ㄹ. 정혜결사를 통해 불교계의 정화 운동을 주도한 것은 지눌이다.

255 갑은 원효, 을은 지눌이다. A에는 원효는 '예', 지눌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 B에는 원효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C에는 지눌이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ㄴ. 원효는 화쟁 사상을 통해 각 종파의 이론이 부분적 진리를 담고 있음을 인정하고 일심(一心)의 관점에서 이를 회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원효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ㄷ. 지눌은 불성을 단박에 자각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몸에 밴 그릇된 습기가 곧바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꾸준히 닦아 습기를 점진적으로 소멸시키는 돈오점수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눌이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바로알기 | ㄱ.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한 것은 의천으로, 원효와 지눌 모두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ㄹ. 교관겸수를 수행의 핵심으로 강조하는 것은 의천으로, 지눌이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256 갑은 원효, 을은 지눌, 병은 의천이다. ㄱ. 원효는 복잡한 경전 공부 없이도 나무아미타불만 염불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ㄴ. 지눌은 선정과 지혜가 본체와 작용의 관계로 본래 분리될 수 없다고 보며 정혜쌍수를 강조하였다. ㄹ. 원효, 지눌, 의천은 모두 인간이 본래 청정한 불성을 깨달음으로써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의 가르침을 포용하여 선교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 것은 지눌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257 ㄱ. 이이는 이와 기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오묘한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는 이기지묘(理氣之妙)를 주장하였다. ㄷ. 이이는 기질을 맑게 하는 교기질(矯氣質)을 수양법으로 강조하였다. ㄹ. 이이는 이통기국(理通氣局)을 통해 동일한 이치가 기질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이이는 사단이 칠정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258 갑은 이황, 을은 이이다. ㄴ. 이황과 이이는 모두 이와 기가 현실에서 분리될 수 없으나 개념적으로는 구별된다고 보았다. ㄹ. 이이는 운동하고 변화하는 것은 기이며 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에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타는 한 가지 길만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이황에 따르면 사단은 기가 아니라 이가 발한 것으로, 칠정과 근원이 달라 순선한 도덕 감정이다. ㄷ.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방식으로 사단이 나타난다고 본 것은 이황만의 입장이다. 이이는 칠정뿐만 아니라 사단도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타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259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이에 비해 이황은 이와 기를 더 엄격히 구분하여 이(理)가 스스로 발동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단을 칠정과 근원이 다른 별도의 순선한 감정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이이는 감정의 도덕성을 기질의 맑고 흐림으로 설명하는 교기질을 강조하였으므로, 갑의 입장과 비교한 을 입장의 상대적 특징은 그림의 ㉢이다.

260 갑은 조식, 을은 정제두이다. 조식은 경(敬)을 내적 수양, 의(義)를 외적 수양으로 여기고, 두 가지가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보았다. ④ 정제두는 인간에게 부여된 생리(生理)를 도덕적 실천의 근거로 삼았으며, 이를 사물에 내재된 죽은 이치인 물리(物理)와 엄격히 구별하였다. 정제두에 따르면 생리는 스스로 밝게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능동적 이치로서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도덕적 본성이다.

바로알기 | ① 조식은 관직에 나아가는 출(出)의 삶이 아니라 처(處)의 삶을 선택하여 재야에서 경의(敬義)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② 조식은 경(敬)이라는 내면의 깨어 있음이 전제되지 않은 외적 실천은 욕망의 표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③ 정제두는 격물치지를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의 이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⑤ 이치는 마음 안에 있으므로 마음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은 정제두만의 입장으로, 조식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261 제시된 글의 '나'는 정약용이고, '어떤 학자'는 주희로 대표되는 성리학자이다. ⑤ 정약용은 주희와 달리 인의예지의 사덕이 마음 안에 선천적으로 고정된 이치가 아니라 도덕적 실천을 거듭함으로써 비로소 이름이 붙여지는 덕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약용이 주희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② 인간의 마음이 이와 기의 결합체로서 본성과 감정을 통괄한다는 것과 사욕 제거와 경건함을 수양의 핵심으로 보는 것은 성리학의 입장이다. ③ 사단 확충을 통한 인의예지 실현을 수양의 핵심으로 본 것은 맹자의 입장이다. ④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선천적으로 고정된 이치(理)로 보지 않았으나, 선을 기호하는 본성은 선천적으로 주어진다고 보았다.

262 그림의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ㄴ. 정약용은 인간이 자주지권에 따라 선과 악 사이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다. ㄹ. 정약용은 인의예지는 마음에 선천적으로 내재된 고정된 이치가 아니라 도덕적 실천을 거듭함으로써 비로소 이름이 붙여지는 덕목이라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인 성(性)을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선천적인 기호(嗜好)로 보았다. ㄷ. 정약용은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영지의 기호를 지니며, 자주지권을 통해 선악을 선택하고 도덕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

263 갑은 이이, 을은 정약용이다. ㄴ. 이이는 기발이승일도(氣發理乘一途)를 주장하며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하나의 경로로 발현된다고 보았다. ㄷ. 정약용은 인간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진 영지(靈知)의 기호가 도덕적 실천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본성이다. ㄹ. 이이와 정약용은 모두 후천적 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통해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이(理)가 주도적으로 발동하여 순선한 사단을 일으킨다고 본 것은 이황의 이기호발설로, 이이는 이가 스스로 발동할 수 없고 반드시 기를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보았다.

264

이와 기를 엄격히 구분하여, 이(理)가 스스로 발동해 순선한 사단을 드러내며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다르다고 보는 이황의 이기호발설

갑(이황):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은 이(理) 그 자체이므로 순선하다. 마음에는 이와 기가 함께하지만 이가 스스로 움직여 사단을 드러낼 수 있으니, 사단과 칠정은 그 연원이 서로 다르다.

을(정약용): 하늘이 항상 인간을 내려다보고 있으므로 인간은 남들이 모르더라도 홀로 아는 마음속의 일을 삼가야 한다. 인의예지라는 이름은 도덕적 실천을 시작으로 비로소 이루어진다.

정약용은 인의예지를 도덕적 실천을 통해 비로소 형성되는 덕목으로 봄

갑은 이황, 을은 정약용이다. ㄱ. 이황은 이와 기를 엄격히 구분하여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다르다고 보았으며, 이(理)가 스스로 발동하여 순선한 사단을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ㄴ. 정약용은 사단을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사덕의 단서로 보는 성리학의 단서설을 비판하고, 사단을 도덕적 실천을 통해 사덕을 형성하는 시작으로 보는 단시설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남을 사랑하는 행위를 실천할 때 인(仁)의 덕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ㄹ. 이황과 정약용은 모두 인간이 선천적으로 도덕 실행 능력을 타고난다고 보았다. 이황은 인간이 선한 본연지성을 타고나며 수양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악을 선택하고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기호와 자주지권을 지닌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정약용은 인의예지가 마음 안에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이치라고 보지 않았으며, 도덕적 실천을 통해 비로소 이름이 붙여지는 덕목이라고 보았다.

265 갑은 이황, 을은 이이, 병은 정약용이다. 이황은 이기호발설을 주장하여 이(理)가 스스로 발동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거경궁리를 수양법으로 강조하였다. 이이 역시 경(敬)을 수양의 요령으로 삼아 사욕을 제거하고 도덕적 완성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두 사상가 모두 마음을 경건히 보존하고 사욕을 제거하는 수양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바로알기 | ① 이황은 이와 기가 현실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이가 스스로 발동할 수 있다는 이기호발설을 주장하였다. ② 이이는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모두 '기'로 동일하다고 보았으며,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고 칠정의 선한 측면이 사단의 선함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③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선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라고 보는 성기호설을 주장하였다. ⑤ 이이는 사덕을 마음 안의 이치로 보았으나 정약용은 사덕을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05 윤리적 삶에 대한 서양의 물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개념 확인 문제 66쪽

266 상대주의 267 무지 268 지덕복 합일설 269 국가
270 행복 271 인간 272 영혼 273 플라톤
274 실천적 지혜 275 품성적 덕

난이도별 필수 기출 66~77쪽

276 ⑤ 277 소피스트 278 ② 279 ③ 280 ⑤
281 해설 참조 282 ② 283 ④ 284 ④
285 소크라테스 286 ③ 287 ② 288 ④
289 무지 290 ④ 291 ④ 292 해설 참조 293 ①
294 ③ 295 ④ 296 ① 297 ④ 298 ② 299 ③
300 ⑤ 301 (가): 지혜, (나): 용기, (다): 절제 302 ⑤
303 해설 참조 304 ② 305 ④ 306 해설 참조
307 ④ 308 ⑤ 309 ⑤ 310 선(善) 311 ③ 312 ②
313 ④ 314 ① 315 ③ 316 ④ 317 해설 참조
318 ① 319 ⑤ 320 중용 321 ② 322 ③ 323 ④
324 해설 참조 325 ⑤ 326 ② 327 ③ 328 ②
329 ③ 330 ③ 331 해설 참조 332 ④

276 서양 윤리사상을 대표하는 두 가지 흐름으로 인간 중심적 윤리인 고대 그리스 사상과 신 중심적 윤리인 헤브라이즘을 들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사상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면서 올바른 삶과 행복을 탐구하였고, 헤브라이즘은 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통한 올바른 삶과 행복을 추구하였다.

바로알기 | ㉣ 자연 철학은 헤브라이즘의 영향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277 (가)에 들어갈 말은 소피스트이다. 소피스트는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한 지식인으로, 민주정이 발달한 아테네에서 시민들에게 변론술과 수사학 등을 가르쳤다. 이들은 윤리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취하며 현실적·세속적 가치를 중시하였다.

278 (가)에 들어갈 말은 윤리적 상대주의이다. ② 윤리적 상대주의는 도덕규범의 보편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강조하며, 도덕규범이 시대와 상황,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의 지각(경험)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④, ⑤ 윤리적 보편주의 입장이다. 윤리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시대, 상황, 공동체 등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나 도덕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윤리적 상대주의에서는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와 도덕 역시 모두 상대적 가치를 지닐 뿐이라고 본다.

279 소피스트는 인간의 감각과 경험을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개인이나 사회에 따라 진리와 도덕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기준보다 각 개인이 겪는 구체적 상황을 중시하는 윤리적 상대주의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ㄱ. 윤리적 보편주의 입장이다. 소피스트들은 보편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하였다. ㄷ. 소크라테스의 입장이다. 소피스트들은 현실에서의 성공과 부, 명예 등의 세속적 가치를 중시하였다.

280 •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척도론에 의하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인간임 →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므로 모든 판단은 각자에게 참임

>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이다. 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진리나 도덕규범은 개인이나 시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윤리적 상대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③, ④ 윤리적 보편주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하였다. ② 자연의 근원과 본질을 탐구한 자연 철학자들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철학적 관심을 인간과 사회의 문제로 전환하였다.

281 **모범 답안**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프로타고라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의 감각적 경험이 진리 판단 및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28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이다. 트라시마코스는 통치자(강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이것이 바로 피치자에게 정의롭다고 선언해 버리기 때문에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 피치자의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ㄷ. 소피스트들은 윤리적 상대주의 입장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진리는 없다고 보았다.

28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소피스트 고르기아스이다. ④ 고르기아스는 인간의 인식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회의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②, ⑤ 윤리적 보편주의 입장이다. 고르기아스를 비롯한 소피스트들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보편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윤리적 상대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③ 소피스트들은 자연에 대한 탐구가 아닌 인간과 사회에 대한 탐구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다.

28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덕은 참된 앎에서 비롯되며, 무지를 자각한 뒤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그는 상대방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문답법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무지를 깨닫고 참된 앎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다.

바로알기 | ① 소크라테스는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② 소크라테스는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였다. ③ 소크라테스는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덕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소크라테스는 지식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성을 통해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8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참된 앎이 올바른 행위의 바탕이 된다고 보고, 덕은 지식이며 악한 행위는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286 그림의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ㄴ, ㄷ.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각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덕이 무엇인지 알면서 고의로 악덕을 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악덕은 무지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ㄹ. 소크라테스는 현실적 유용성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28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② 소크라테스는 덕에 대한 참된 앎을 지니면 유덕하게 행동하게 되고, 덕을 실천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소크라테스는 참된 앎과 덕, 행복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지덕복 합일설을 주장하였다. ③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보편타당한 진리는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④ 소크라테스는 악행의 원인이 의지의 나약함이 아니라 무지라고 보았다. 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윤리적 성찰의 목적은 사회적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데 있다.

28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④ 소크라테스는 모든 덕은 참된 앎에서 나오고 모든 악덕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참된 앎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성을 통해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며 자신의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가꾸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최고의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소피스트의 입장이다. 소크라테스는 부와 명예보다 영혼을 훌륭하게 가꾸는 일을 중시하였다. ② 그리스도교 사상의 입장이다.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통한 도덕적 성찰을 강조하였다. ③, ⑤ 윤리적 상대주의의 입장이다. 소크라테스는 보편타당한 진리와 도덕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윤리적 보편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289 (가)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지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참된 앎을 추구해야 하며, 비도덕적 행위는 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29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진리 탐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덕이 곧 지식이며 덕을 갖춘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지덕복 합일설을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ㄹ. 소크라테스는 진리 탐구를 위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문답법을 활용하였다.

29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이성적 성찰을 통해 참된 앎과 덕을 추구하며, 영혼을 훌륭하게 가꾸는 삶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④ 소크라테스는 자연에 대한 탐구보다 인간의 삶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탐구를 중시하였다.

292 **고범 답안** 지덕복 합일설은 참된 앎을 지닌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되고, 덕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상이다.

293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덕에 대한 앎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덕이 무엇인지 안다면 반드시 덕 있는 행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29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그는 참된 앎을 지닌 사람은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지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므로 비도덕적 행위는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가 과식이 자신에게 해로운 줄 알면서도 쾌락 때문에 그 행위를 한다면 A는 과식의 나쁨보다 쾌락이 주는 좋음이 더 크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즉 ③ A는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좋은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이다.

295 갑은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모든 진리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만약 모든 진리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면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프로타고라스의 주장 자체가 모순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며 모든 판단 기준은 각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 개념 보충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입장 비교

구분	입장
소피스트	• 윤리적 상대주의: 보편타당한 윤리는 존재하지 않음 • 인간의 감각과 경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음 • 부와 명예 등 세속적 가치를 중시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변론술과 수사학 등을 가르침 • 대표적인 소피스트 사상가 – 프로타고라스: 각 개인을 진위 판단의 기준으로 봄 – 트라시마코스: 정의는 강자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봄 – 고르기아스: 회의주의적 관점에서 절대적 존재와 진리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부정함
소크라테스	• 윤리적 보편주의: 보편타당한 윤리가 존재하며, 이성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음 • 인간의 이성을 통한 도덕적 성찰과 선한 삶을 강조함 • 주지주의: 참된 앎이 곧 덕 → 참된 앎에 이르기 위한 무지의 자각을 강조함 • 지행합일: 인간은 본성상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음 → 모든 악덕은 무지에서 비롯됨 • 지덕복 합일설: 참된 앎 = 덕 = 행복한 삶

296 갑은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①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보편주의 입장에서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한 프로타고라스에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타당한 진리와 도덕규범이 존재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소크라테스는 육체적 쾌락보다 영혼의 훌륭함과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였다. ③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는 모두 자연보다 인간과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④ 소크라테스는 선을 참으로 알면 악을 행하지 않으며, 비도덕적 행위는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⑤ 프로타고라스가 소크라테스에게 제기할 비판이다.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통해 보편타당한 도덕적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97 갑은 트라시마코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 또는 통치자의 이익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④ 소크라테스는 참된 통치술이란 통치자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피치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며, 정의란 보편적인 선과 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② 트라시마코스에 따르면 정의는 피치자가 아닌 통치자(강자)의 이익일 뿐이다. ③ 트라시마코스의 입장이다. ⑤ 트라시마코스만의 입장이다. 소크라테스는 정의에 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298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프로타고라스이다. ㄱ. 소크라테스는 참된 앎과 덕 있는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지덕 일치'를 주장하였다. ㄷ.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는 모두 고대 그리스 사상가로서 자연보다 인간의 삶과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알기 | ㄴ. 프로타고라스만의 입장으로 C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ㄹ. 소크라테스만의 입장으로 A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29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성, 기개, 욕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혜·용기·절제의 덕이 조화롭게 기능할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③ 플라톤의 입장에서 욕구를 적절히 통제하여 영혼 전체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절제의 덕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데 필수적이다.
바로알기 | ① 트라시마코스의 입장이다. 플라톤은 정의가 영혼과 국가의 각 부분이 제 역할을 하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보았다. ② 플라톤은 각 계층이 타고난 성향에 맞는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자유로운 계층 이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④ 플라톤에 따르면 통치자가 다른 계층의 직분까지 맡는 것이 아니라, 세 계층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 ⑤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는 국가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서도 이성·기개·욕구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된다.

30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이성이 지혜의 덕으로 기개와 욕구를 다스리고, 영혼의 세 부분이 훌륭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⑤ 플라톤은 영혼의 세 부분 즉 이성, 기개, 욕구가 각자의 일을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보았다.

301 플라톤은 이성의 덕을 지혜, 기개의 덕을 용기,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는 덕을 절제라고 보았다. 이 세 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때 영혼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302 ㉠은 플라톤이다. ㄷ, ㄹ.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성, 기개, 욕구로 나누어져 있고, 이성이 기개와 욕구를 잘 다스리며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플라톤은 영혼의 조화를 통해 정의의 덕을 갖출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ㄴ. 플라톤은 통치자와 방위자를 포함하는 수호자 계층에게도 절제의 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03 모범 답안 모두 제 역할을 다하며, 자신의 일에 요구되는 덕을 갖출 때

30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1), (2), (3) 플라톤은 국가의 구성원인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은 모두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지혜의 덕을 갖춘 철인이 통치자가 되어야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이상 국가의 실현을 위해 철학과 정치 권력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4) 플라톤은 통치자와 방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았다.

30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수호자들은 생필품을 제외하고 어떠한 사유 재산도 가져서는 안 되며, 공동 식사와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플라톤은 이성을 통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인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란 각 계층이 자신에게 알맞은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았다.

306 모범 답안 플라톤에 따르면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의 덕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선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307 대화 속 스승은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국가의 세 계층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④ 플라톤은 국가 구성원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각자 타고난 성향과 능력에 알맞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30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⑤ 플라톤은 용기를 특히 국가의 군인들, 즉 방위자 계층이 갖추어야 할 덕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용기는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보전하는 덕이라고 설명하였다.
바로알기 | ① 플라톤은 용기의 덕을 갖추는 것이 영혼의 조화를 이루어 정의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플라톤에 따르면 용기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③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모두 갖춘 철인이 통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플라톤은 생산자에게 용기의 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지 않았다.

309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⑤ 플라톤에 따르면 통치자는 지혜, 방위자는 용기, 생산자는 절제의 덕을 발휘하고 세 계층이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며 조화를 이룰 때 이상 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플라톤은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든 구성원이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② 플라톤에 따르면 통치자는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철학적 지혜와 통치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되어야 한다. ③ 플라톤에 따르면 지혜는 통치자 계층이 갖추어야 할 덕이며, 모든 계층에 요구되는 덕은 아니다. ④ 플라톤은 통치자와 방위자 계층이 포함된 수호자 계층은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없으나, 생산자 계층은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31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선(善)의 이데아를 모든 정의롭고 아름다운 것의 궁극적 원인이자 최고의 이데아로 보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31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세계를 현실 세계와 이데아 세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③ 이데아 세계는 완전한 세계이며 오직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반면, 현실 세계는 이데아 세계를 모방한 불완전한 세계이며 감각적 경험으로 파악되는 세계이다.
바로알기 | ① 플라톤은 이데아를 변화하는 현실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하는 참된 실재라고 보았다. ② 플라톤에 따르면 선의 이데아는 감각으로 경험하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 세계에 존재한다. ④ 플라톤은 현실 세계가 이데아 세계를 모방한 불완전한 세계라고 보았다. ⑤ 플라톤에 따르면 선의 이데아는 감각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31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②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해야 재앙이 사라지고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플라톤은 국가 구성원의 투표로 통치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플라톤에 따르면 국가의 각 계층은 다른 계층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 ④ 플라톤에 따르면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는 계층은 통치자와 방위자이며, 생산자는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⑤ 플라톤은 통치자가 지혜를 중심으로 용기와 절제의 덕도 갖추어 조화로운 영혼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313

참된 실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을 상징함

> 지하 동굴 입구에는 불이 있고, 동굴 깊숙한 곳에 어릴 때부터 손발과 목이 묶인 채로 지내 온 죄수들이 있다고 하세. 그런데 이들은 몸이 결박되어 머리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동굴 안쪽의 벽만을 쳐다볼 수 있는데, 그들 뒤쪽의 동굴 입구에서는 횃불이 타오르고 있네. 그리고 이 불빛과 죄수들 사이에는 담 하나가 놓여 있지. 마치 인형극을 공연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야트막한 휘장을 치고, 이 휘장 위로 인형들을 보여 주듯 말이야. ……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풀려나 일어서서 목을 돌리고 걸어가 강제로 횃불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는 횃불을 쳐다보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이네. 또한 전에는 그림자로만 보던 실물을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도 없을 거야. 만약에 누군가 이 사람에게 전에 본 것은 엉터리였고 이제야 진짜를 가까이서 바르게 보았다고 하면서 지나가는 것들을 가리키며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림자는 사물의 참모습이 아닌 모사에 불과함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그는 감각으로 파악되는 현실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림자의 세계로, 이성을 통해 인식되는 이데아 세계를 참된 실재의 세계로 보았으며, 그중 선의 이데아를 최고의 이데아로 보았다.

바로알기 | ㄷ. 플라톤에 따르면 그림자는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불완전한 모습을 상징한다.

31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으로 보았으며, 덕에 따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바로알기 | ㄷ.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감각적·육체적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이성적 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데서 찾았다. ㄹ.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은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적 활동을 잘 수행할 때 실현된다.

315 제시된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행복한 삶에 이르려면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덕에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더라도 욕구나 감정에 이끌려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의지의 나약함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소크라테스의 입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을 알면서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실천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속에서 이성에 따라 덕을 실천하는 활동을 행복으로 보았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이성적 부분이 정념과 욕구를 이끌고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316 대화 속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이 그 자체로 추구하는 최고선으로 보고, 행복은 이성에 따른 영혼의 탁월한 활동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다. ④ 그는 감정과 행위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하고 중용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감각적 쾌락의 충족에서 찾지 않고, 이성에 따른 영혼의 탁월한 활동에서 찾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데서 찾지 않고, 이성에 따라 덕을 실천하는 삶에서 찾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에서 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윤리적 상대주의 입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적 보편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317 **모범 답안** (가)는 지성적 덕, (나)는 품성적 덕을 가리킨다. 지성적 덕은 주로 교육을 통해 기를 수 있다. 품성적 덕은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을 통해 도덕적 행동을 습관화할 때 기를 수 있다.

31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이 습관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올바른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 덕은 주로 교육에 의해, 품성적 덕은 습관을 통해 길러진다고 보았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와 용기와 같은 품성적 덕을 기르기 위해서 옳은 행동의 반복적 실천, 즉 습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이 감정과 행위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하고 적절한 중용을 선택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31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①,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지성적 덕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형성되며, 실천적 지혜를 예시로 들 수 있다. ③,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행위의 습관화를 통해 품성적 덕이 형성되며, 품성적 덕은 감정과 행위에서 중용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 덕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품성적 덕은 올바른 행위의 반복과 습관화를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 개념 보충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 비교

구분	지성적 덕	품성적 덕
특징	• 영혼의 이성적 부분과 관련된 덕 • 교육을 통해 길러짐 • 좋음에 대한 숙고와 진리에 대한 관조를 가능하게 함	• 영혼의 감정,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 • 중용의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길러짐 •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게 함
예시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등	용기, 절제, 온화 등

320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과 행위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하고, 상황에 알맞은 적절한 정도를 선택하는 상태를 중용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중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형성된 덕이 품성적 덕이다.

32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은 덕의 특징이며 지나침과 모자람은 악덕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ㄹ.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정념을 이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여 중용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중용은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성이 판단한 적절한 상태이다. ㄷ. 아리스토텔레스는 살인, 도둑질, 질투, 악의처럼 그 자체로 나쁜 행위와 감정에는 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2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ㄴ, ㄷ.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옳음을 알면서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옳은 것을 실천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고 올바른 행동을 습관화하여 덕을 기르는 삶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로 나쁜 행위에는 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ㄹ. 플라톤이 이성으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모방하는 삶을 중시한 것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속에서 이성에 따라 덕을 실천하는 삶을 최선의 삶으로 보았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32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특징은 중용이며, 악덕의 특징은 지나침 또는 모자람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감정에 중용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는데, 예를 들어 질투, 파렴치, 사기, 절도 등은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동이기 때문이다.

바로알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중용은 덕의 특징이다. 또한 악덕은 지나침과 모자람을 특징으로 한다. ②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은 도덕적 감정이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성향과는 거리가 멀다. ③ 실천적 지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지성적 덕이다. 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품성적 덕을 함양하기 위해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품성적 덕과 지성적 덕은 긴밀하게 연결된다.

324 **모범 답안** (가)는 실천적 지혜를 가리킨다. 실천적 지혜는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이 좋고 유익한지를 알려 주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중용의 상태인지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32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은 감정이나 행동에 관계되는 덕이며, 이는 올바른 행동의 습관화, 즉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 덕이 주로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고 보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본성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선천적으로 지닌 도덕적 자각 능력으로 보지 않았다. 중용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을 통해 적절한 정도를 선택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실천하고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품성적 덕과 관련된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를 모두 지성적 덕이라고 보았으며, 지성적 덕은 주로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고 주장하였다.

32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두 번의 도덕적 행동으로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나약함 및 자제력 없음을 극복하고 도덕적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습관화할 때 비로소 덕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ㄷ. 소크라테스의 입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의지의 나약함과 자제력 부족 문제로 악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327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각자의 덕을 실현하며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한 공동체이며,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과 분리된 선의 이데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현실의 세계에 인간이 추구하는 선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328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A에는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기할 비판이, B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에게 제기할 비판이 들어가야 한다. ②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다른 이데아를 인식하게 하는 근거이자 현실의 사물들이 본받는 궁극적인 원형으로 보았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이데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는 현실의 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실재의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았으므로 플라톤이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플라톤에 따르면 선의 이데아는 이데아 중의 최고의 이데아이며, 이는 고정불변한 진리이고 완전한 원형이다. 따라서 플라톤이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좋음과 좋음 자체가 구분될 수 없으며, 아름다움과 아름다움 자체가 구분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A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과 분리된 이데아 세계를 부정하고, 현실 세계를 중시하였다. 또한 플라톤은 감각이 아니라 오직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가 참된 진리의 세계라고 보았다. 이는 A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329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①, ② 플라톤은 보편적 진리를 이데아에 대한 앎에서 찾았으며, 이성을 통해 최고의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덕에 따른 활동을 행복으로 보았다. ⑤ 두 사상가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해 이성적 판단과 사유를 중시하였다.

바로알기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선이 현실과 분리된 이상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현실 속에서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며 덕을 실천하는 삶에서 선과 행복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330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법을 지키고 공평한 것을 행하는 완전한 덕이다. 플라톤은 영혼의 각 부분이 제 역할을 하며 조화를 이룰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③ 두 사상가 모두 덕 있는 사람은 선악에 대한 지식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플라톤은 올바름 그 자체인 정의의 이데아가 현실을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보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과 분리된 이데아를 인정하지 않았다. ② 플라톤에 따르면 좋음의 본질인 선의 이데아는 현실 세계를 넘어 존재하므로 감각적 현실에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덕에 맞게 행동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이 습관을 통해 형성되지만, 중용을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331 **모범 답안** (가)에는 '선에 대한 무지'가 들어가야 한다.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덕행이 참된 앎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려는 의지와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형성된 품성적 덕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더라도 욕망이나 감정에 이끌리면 덕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32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현상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를 구분하고 이원론적 세계관을 강조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음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지 않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며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플라톤에 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강조하는 정도(X)'와 '이상적인 삶을 위해 선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정도(Z)'가 낮고, '좋음이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는 정도(Y)'는 높다. 갑의 입장과 비교한 을 입장의 상대적 특징은 그림의 ㉣이다.

06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 신앙과 윤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개념 확인 문제 80쪽

333 쾌락 334 평정심(아타락시아) 335 부동심(아파테이아)
336 최고선 337 자연법 338 스토아학파 339 이성
340 종교적 341 신 342 직업 소명설

난이도별 필수 기출 80~93쪽

343 ③ 344 ④ 345 (가): 쾌락, (나): 고통 346 ②
347 해설 참조 348 ⑤ 349 ④ 350 ③ 351 ①
352 ④ 353 ④ 354 해설 참조 355 ② 356 ④
357 해설 참조 358 ① 359 ④ 360 ④ 361 ⑤
362 해설 참조 363 ① 364 ④ 365 ③ 366 ⑤
367 ④ 368 해설 참조 369 ① 370 ③ 371 ⑤
372 ⑤ 373 ③ 374 ② 375 ③ 376 ⑤
377 해설 참조 378 ① 379 ⑤ 380 ③
381 해설 참조 382 ② 383 ⑤ 384 ④ 385 ⑤
386 ④ 387 ④ 388 (가): 절제, (나): 용기, (다): 정의, (라): 지혜
389 ④ 390 ② 391 해설 참조 392 ① 393 ①
394 ④ 395 ③ 396 ④ 397 해설 참조 398 ②
399 ③ 400 ④ 401 ⑤ 402 ④ 403 ③ 404 ④
405 ② 406 ⑤ 407 ②

343 (가)에 들어갈 말은 헬레니즘이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는 폴리스 중심의 공동체 질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행복과 마음의 평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관심을 기울였다.

344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보았다. 또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존재이며, 쾌락이 모든 행위의 목적이자 행복한 삶의 시작과 끝이라는 쾌락주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ㄹ. 에피쿠로스는 모든 욕구를 충족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분별하고 불필요한 욕구를 절제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345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유일한 선이며 고통은 유일한 악이라고 주장하였다.

34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②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유일한 선이고 고통은 유일한 악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존재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쾌락을 최대한 추구하기보다 욕구를 절제하여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추구하였다. ③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에피쿠로스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 쾌락인지에 대한 명료한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모든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347 모범 답안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34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⑤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추구하면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과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는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적극적으로 충족하기보다 불필요한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에피쿠로스는 즐거운 삶과 정의로운 삶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에피쿠로스는 모든 쾌락을 무조건 추구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 선택하거나 피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도 최소한으로 완전하게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34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ㄴ. 에피쿠로스는 욕구의 적극적 충족으로서의 쾌락이 아니라 고통의 제거를 통한 쾌락, 즉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통한 쾌락을 추구하였다. ㄹ.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가져올 결과를 이성적으로 따져 보고 바람직한 쾌락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에피쿠로스는 순간적인 쾌락보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지속적인 평온을 추구하였다. ㄷ. 에피쿠로스는 모든 고통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더 큰 쾌락을 얻거나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현재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350 대화 속 스승은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에서 벗어난 평온한 상태인 평정심(아타락시아)을 추구하였다. ③ 그는 평정심에 이르려면 자연적이지 않고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등은 절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스토아학파의 입장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최고선으로 보았고, 은둔하는 삶을 추구하였다. ② 에피쿠로스는 감각적·순간적 쾌락보다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중시하였다. ④ 에피쿠로스는 공동체의 정치적 활동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동체에서 조용히 은둔하는 삶을 추구하였다. ⑤ 에피쿠로스는 사회적 명성에 대한 욕구를 불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절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351 에피쿠로스는 욕구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 자연적·필수적 욕구로는 식욕, 수면욕 등이 있다. ㉡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로는 성욕, 식도락 등이 있다. ㉢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로는 명예욕, 권력욕 등이 있다.

352 제시된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ㄱ.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욕구의 충족이 행복에 필요한 것인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이성적 분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ㄴ, ㄷ. 에피쿠로스는 자연적 욕구 중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인 성욕 등은 충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완전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ㄹ. 에피쿠로스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운동적 쾌락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느끼는 정지된 쾌락이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하였다.

✓ 개념 보충

에피쿠로스의 운동적 쾌락과 정지된 쾌락 비교

운동적 쾌락	고통에서 벗어나는 운동 과정에서 얻는 동적 쾌락
정지된 쾌락	고통을 완전히 제거한 후 편안하고 진정된 상태에 머물면서 얻는 정적 쾌락

→ 에피쿠로스는 운동적 쾌락이 아니라 정지된 쾌락을 느끼는 상태를 평정심(아타락시아)으로 보고, 이를 추구하였다.

35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1)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살아 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면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4)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잘못된 믿음도 인간의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신은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신과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때 마음의 평정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2) 에피쿠로스는 이성이 아닌 쾌락을 최고선으로 간주하였다. (3) 에피쿠로스는 죽으면 인간의 모든 감각이 상실되므로 죽음 이후에 쾌락이나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보았다.

354 **모범 답안**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모두 감각에 달려 있지만, 죽으면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므로 죽음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35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마음의 괴로움을 제거하기 위해 신과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신은 완전하고 행복한 존재로,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한 죽음은 살아 있을 때에도 죽었을 때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바로알기 | ②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죽음은 인간의 모든 감각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다.

356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A에는 에피쿠로스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 B에는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ㄱ.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 죽음의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해당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ㄴ.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신의 뜻과 운명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 없으며, 신은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해당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ㄹ. 에피쿠로스는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두려운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에 고통을 겪는다고 보았으므로 해당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따라서 B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바로알기 | ㄷ.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므로 죽음 이후에 쾌락이나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해당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357 **모범 답안** ㉠은 평정심(아타락시아)이다.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적 측면으로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35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①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이 제거된 상태를 참된 쾌락으로 보았으며, 불필요한 욕망을 절제하고 몸과 마음의 평온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에피쿠로스는 정신적 쾌락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이 모두 제거된 상태를 참된 쾌락으로 보았다. ③ 에피쿠로스는 정치적 활동이 불안과 고통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경계하였다. ④ 에피쿠로스는 공적 활동을 통한 공동선의 실현보다 은둔하며 평온을 유지하는 삶을 중시하였다. ⑤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찾아오면 인간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죽음은 감각되거나 고통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35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행복한 삶을 위해 쾌락뿐만 아니라 정의와 같은 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정의를 인간들이 서로 해를 끼치지 않기로 맺은 사회적 약속으로 이해하였으며, 이러한 약속을 지킬 때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고 마음의 평온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에피쿠로스에게 덕은 즐거운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정의로운 삶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바로알기 | ㄷ.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에서 생길 수 있는 불안과 고통을 피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 대중을 떠나 조용히 은둔하는 사적인 삶을 추구하였다.

360 제시된 사상가들은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이다. ①, ② 스토아학파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금욕적 삶을 중시하고, 모든 인간이 이성을 공유한다는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③, ⑤ 이성에 따라 정념을 다스려 부동심에 이르고, 우주와 자연의 보편적 이성인 로고스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였다.

바로알기 | ④ 스토아학파는 모든 정념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이성에 어긋나는 정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다스리는 초연한 태도를 강조하였다.

36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아우렐리우스이다. ⑤ 스토아학파는 이성이 우주 만물에 내재하며, 신·자연·인간을 관통하는 공통된 본성이라고 보고, 인간은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스토아학파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보았다. ② 스토아학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스토아학파는 인간이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스토아학파는 인간이 신과 우주의 공통된 본성인 이성을 나누어 가지며, 이를 통해 자연의 필연적 법칙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362 **모범 답안** ㉠: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 또는 정념에서 벗어난 상태, ㉡: 외부의 자극으로 발생하는 마음의 격렬한 움직임

36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이다. ①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이성은 우주 만물의 본질이며,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신적 이성을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에 따르는 삶, 자연의 법칙과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스토아학파는 이성에 따라 욕망을 절제하며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보았다. ③ 스토아학파는 비자연적인 정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으며, 자연적인 정념은 인정하였다. ④, ⑤ 스토아학파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36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외적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마음가짐이라고 보았다. 〈문제 상황〉 속 A는 악성 댓글을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받아들여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④ 에픽테토스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외적인 일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판단임을 기억하세요."라고 조언할 수 있다.

36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세네카이다. 세네카를 비롯한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이성의 법칙, 자연의 법칙과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③ 스토아학파는 공동선의 실현을 중시하며, 사회적 역할 및 의무를 다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366 제시된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이다. ⑤ 에픽테토스는 이 세계의 모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인간은 이에 수긍하고 따르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스토아학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으며, 이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에피쿠로스의 입장이다. 스토아학파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중시하였다. ③ 스토아학파는 감각적 경험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지 않았고, 이성적 판단과 사고를 강조하였다. ④ 스토아학파는 모든 정념을 부정하지 않았다. 특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등과 같은 자연적인 정념은 인정하였다.

367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외적 조건이나 환경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판단과 태도는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고 봄

> 인간의 정신을 방해하는 것은 사건들 자체가 아니라 사건들에 대한 인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것은 그것이 두렵다는 사람들의 판단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동요와 슬픔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과 판단에 돌리도록 하자.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이다. ④ 그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연의 법칙과 섭리에 의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지 말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스토아학파는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②, ③ 스토아학파는 인간이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외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과 충동은 정념이며, 스토아학파는 비자연적인 정념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368 **모범 답안** 스토아학파는 인간이 모두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 만민이 평등하다고 보았다.

36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아우렐리우스이다. ㄱ. 스토아학파는 인간이 이성적 본성인 로고스를 지닌 자연의 일부라고 보았다. ㄴ. 스토아학파는 행위의 결과와 같은 외적 사건은 개인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스토아학파는 이성에 따르는 삶이란 신이 예정한 운명, 즉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이자 이성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는 삶이라고 보았다. ㄹ. 스토아학파는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할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70 대화 속 스승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이다. ①, ② 우주의 본질인 이성에 따르는 것과 자연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순응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므로 부동심에 이르는 방법이다. ④ 이성을 통해 정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⑤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동심에 이르는 방법이다.

바로알기 | ③ 스토아학파는 외적 조건은 인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이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판단과 태도를 이성적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371 갑은 키케로, 을은 세네카, 병은 에픽테토스로, 모두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이다. ⑤ 이들은 이성의 법칙을 따르고 부동심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부와 명성 등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충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스토아학파는 온갖 욕망과 감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의 사상을 금욕주의라고 부른다. ② 에피쿠로스의 입장이다. 스토아학파는 금욕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③ 스토아학파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스토아학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372 그림 속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키케로이다. ⑤ 스토아학파는 모든 인간이 공통된 이성을 지닌 존재이며, 인류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보았다. 따라서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 모든 사람을 세계 시민으로 대해야 한다는 세계 시민주의를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① 스토아학파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정념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자연적 정념은 인정하였다. ② 스토아학파가 제시한 이상적 경지는 아타락시아가 아니라 아파테이아로, 부동심의 상태를 뜻한다. ③ 스토아학파는 각 개인이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보며, 공동선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④ 스토아학파는 자연의 법칙을 파악하고 자신의 운명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373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의 아우렐리우스이다. ㄴ. 스토아학파는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신의 섭리에 따르는 삶을 살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스토아학파는 자연의 질서가 이성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필연적인 질서에 따라 일어나게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 한다. ㄹ. 스토아학파만의 입장이다. 에피쿠로스는 필연적인 운명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운명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374 갑은 스토아학파, 을은 에피쿠로스학파 사상가이다. ② 스토아학파는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인 부동심, 즉 아파테이아를 행복이라고 보았고,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따를 때 이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스토아학파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삶을 강조하였다. ③ 에피쿠로스학파에 따르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최소한으로 완전하게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에피쿠로스학파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는 모든 감정을 배제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본 것이 아니라, 각각 정념에 초연할 때,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할 때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개념 보충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의 사상 비교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
쾌락주의	금욕주의
평정심(아타락시아):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	부동심(아파테이아): 어떤 정념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상태
소극적 쾌락주의: 적극적 쾌락의 추구나 욕망의 충족이 아닌 고통과 불안의 제거를 통한 쾌락을 추구함	이성에 따르는 삶: 신, 우주, 자연, 인간은 이성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은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순응해야 함

375 갑은 에피쿠로스학파, 을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이다. ㄴ. 에피쿠로스학파는 쾌락을 고통이 없는 상태로 보았으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이 제거되면 이미 완전한 쾌락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고통이 사라진 뒤에는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ㄷ.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는 모두 욕구를 절제하여 평온한 삶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A에는 에피쿠로스학파만의 입장이 들어가야 한다. 에피쿠로스학파는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반드시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욕구는 충족되지 않아도 고통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오히려 불안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ㄹ. C에는 스토아학파만의 입장이 들어가야 한다. 스토아학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76 갑은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에픽테토스는 긍정, 에피쿠로스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야 한다. ⑤ 스토아학파에서는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에피쿠로스는 정치를 멀리하고 소규모 공동체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은둔적인 삶을 추구하였으므로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③ 에픽테토스와 에피쿠로스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에픽테토스는 부정, 에피쿠로스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에픽테토스와 에피쿠로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377 **모범 답안** 에피쿠로스학파는 정원에서 벗들과 우정을 나누며 서로의 평온과 행복을 돕는 소규모 공동체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반면 스토아학파는 모든 인간을 이성을 공유하는 세계 시민으로 보고, 인류 전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보편적 공동체를 강조하였다.

378 갑은 스토아학파, 을은 에피쿠로스학파 사상가이다. 에피쿠로스학파의 입장에 비해 스토아학파의 입장에서 '쾌락을 최고의 선이자 행복의 기준으로 보는 정도(X)'는 더 낮고, '우주의 이성과 자연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는 정도(Y)'와 '사회적 역할 수행과 공동선 실현에 기여하는 삶을 강조하는 정도(Z)'는 더 높다. 따라서 ㉠이 적절한 상대적 특징의 위치이다.

379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성립하였다. ㉠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사상을 비판하였다. ㉡, ㉢, ㉣ 또한 예수는 보편 윤리로서 황금률을 제시하고 모든 사람이 신 앞에서 평등하므로 조건 없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 예수는 신의 명령인 율법의 형식적 준수를 비판하고 율법의 참된 정신인 사랑과 믿음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380 제시된 가르침을 전한 인물은 예수이다. ① 예수는 황금률을 제시하여 보편적 사랑의 윤리를 강조하였다. ② 예수는 조건 없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며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⑤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는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며 신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율법의 형식적 준수에 얽매이지 않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③ 예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보복 윤리를 비판하고 용서와 사랑, 특히 원수까지 사랑하는 보편적 사랑을 강조하였다.

381 **모범 답안**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382 제시된 글은 신약성경의 내용 중 일부이며, (가)에 들어갈 인물은 예수이다. ㄱ. 예수는 보편적 사랑을 실천하는 원리로 황금률을 제시하여, 이후 그리스도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ㄹ. 예수는 모든 사람이 신 앞에서 평등하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건 없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ㄴ. 예수는 율법의 형식적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비판하였다. ㄷ. 예수는 유대인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사상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신의 은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383 제시된 글은 신약성경 내용 중 일부이며, 그리스도교 사상이 나타나 있다. ⑤ 그리스도교 사상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신에 대한 믿음,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그리스도교 사상에서는 모든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② 황금률은 선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다. ③ 그리스도교 사상에서는 보복 원칙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였다. ④ 그리스도교 사상에서는 인간 자신의 의로운 행위, 선행, 율법 준수 등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신의 은총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384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고대 교회에서 신학의 기초를 마련한 스승과 저술가를 가리킨다.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부 철학을 통해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확립되었으며, 대표적 사상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이를 체계화하였다.

바로알기 | ④ 스콜라 철학의 특징이다.

385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질서가 뒤바뀐 상태임

> 너희가 사랑하는 선은 모두 신에게서 왔으니, 그 사랑이 신에게 향하고 그분과 관계있을 때만 좋고 즐거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신에게서 온 것을 바르게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신을 버려두고 오히려 피조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좋고 즐거운 것들도 결국 다 쓰디쓴 것으로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ㄷ.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도덕적 악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 의지를 남용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ㄹ.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 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아우구스티누스는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신에게 귀의하여 신과 하나가 될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보았다. 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이웃보다 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보며, 질서 있는 사랑을 강조하였다.

386 아우구스티누스는 대표적인 교부 철학자로 플라톤의 철학을 수용하여 그리스도교 교리의 확립과 체계화에 기여하였다.

바로알기 | ㉣ 아우구스티누스는 종교적 덕 중 사랑을 최고의 덕으로 간주하였다.

38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④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은 최고선이며 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악에 빠지지 않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 소망, 사랑의 덕 중 최고의 덕은 사랑이라고 보았다.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은총과 신앙에 바탕을 둔

종교적 덕 없이는 완전한 행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③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신은 창조주이자 자연을 초월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초월적 원인으로 보았다. 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플라톤의 4주덕, 즉 지혜, 용기, 절제, 정의는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388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이 강조한 절제, 용기, 정의, 지혜의 4주덕도 모두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하였다. 그중 절제는 신을 위해 스스로를 온전하게 지키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사랑이고, 용기는 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하는 사랑이며, 정의는 신만을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랑이고, 지혜는 신을 지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잘 분별하는 사랑에 해당한다.

389 윗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고, 다음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한다. ④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이 강조한 절제, 용기, 정의, 지혜도 모두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해석하였으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악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선의 결여이다.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내세에서 신앙으로써 신에게 귀의하여 신과 하나가 될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보았다. ③ 플라톤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선의 이데아가 아니라 신이 최고선이라고 보았다. ⑤ 플라톤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에서 이성이 기개와 욕구를 잘 다스릴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내세에서 신과의 합일을 통해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9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지니고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며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신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죄로부터의 구원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신에게서 자유 의지를 부여받았다고 보았다. 다만 인간은 자유 의지를 남용하여 신에게서 멀어지고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91 **모범 답안** 신의 은총을 통해 신에게 귀의하고 신과 합일해야 한다

39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ㄱ.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 소망, 사랑의 종교적 덕 중 최고의 덕은 사랑이라고 주장하였다. ㄴ.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 내세에서만 가능하다. ㄹ.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천상의 나라라고 보았다.

39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1)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창조주인 신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이며, (3)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구원을 받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2)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자 인간 자유 의지 남용의 결과라고 보았다. (4)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은 실존적 만남의 대상이다.

394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A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고, B에는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④ 그는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은 세계 안에서 나타나지만, 악 자체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며 도덕적 악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남용하여 신에게서 멀어질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참된 행복은 신과의 합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므로 해당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사랑하기 위해 먼저 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이 이성보다 우월하다고 보았으므로 해당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신앙적 체험의 대상, 즉 실존적 만남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395 제시된 내용은 중세 스콜라 철학자 아퀴나스가 강조한 내용이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 신학과 철학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③ 그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뿐만 아니라 종교적 덕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아퀴나스는 진정한 행복은 내세에서 신과 합일을 이룰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② 아퀴나스는 신은 인간이 실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라고 보았다. ④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은 덕에 의해 실현된다고 보았다. 단, 자연적 덕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에게로 인도해 주는 종교적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⑤ 아퀴나스에 따르면 신의 은총이 없이는 구원도, 영원한 행복도 불가능하다.

396 제시된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④ 그는 자연적 덕은 최고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예비적 단계의 덕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아퀴나스는 신을 최고선이자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인이 되는 제일의 필연적 존재로 보았다. ② 아퀴나스는 진정한 행복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신의 은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③ 아퀴나스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과 같은 자연적 덕은 현세에서의 행복과 관련된 덕이며, 종교적 덕을 통해 이루어지는 궁극적 행복에 이르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았다. ⑤ 아퀴나스는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성찰함으로써 영원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개념 보충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

아퀴나스는 경험 세계에서 발견되는 여러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궁극적 원인을 추론함으로써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아퀴나스가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한 다섯 가지 방법을 정리한 표이다.

근거	관찰되는 사실	신에 대한 결론
운동	모든 운동은 다른 것에 의해 일어남	최초의 운동 원인이 존재함
인과 관계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음	최초의 원인이 존재함
우연과 필연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스스로 존재의 근거가 될 수 없음	필연적 존재가 존재함
완전성의 정도	사물에는 선함, 완전함의 정도 차이가 있음	최고의 완전성을 지닌 존재가 있음
목적과 질서	자연은 일정한 목적과 질서에 따라 움직임	목적을 부여하는 지성적 존재가 있음

397 **모범 답안** 선을 행하고 증진해야 하며, 악은 피해야 한다.

398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연적 성향이 주어져 있는데, 이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향에 해당한다.

39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③ 아퀴나스에 따르면 완전한 행복은 내세에서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⑤ 아퀴나스는 신이 창조한 것은 모두 선하며, 악은 신이 창조한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라고 보았다. ② 아퀴나스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자유 의지를 부여받았으며, 이를 남용할 때 도덕적 악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④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유한하고 불완전하므로, 인간의 구원에는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40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ㄱ.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는 신앙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식하고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ㄴ. 아퀴나스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으며, 자연법에 따르는 삶이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보았다. ㄷ. 아퀴나스는 인간이 만든 실정법은 자연법에 근거해야 하며, 자연법은 신의 이성적 질서인 영원법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ㄹ. 아퀴나스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실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종교적 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40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⑤ 아퀴나스는 영원법이 모든 사물의 본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으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영원법이 자연법으로 반영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인간이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영원법의 일부라고 보았으며, 실정법은 자연법에 근거하여 제정된다고 보았다. ②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영역을 구분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진리는 신앙을 통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③ 아퀴나스는 인간이 자연적 성향을 따름으로써 신의 뜻이 반영된 자연법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아퀴나스는 실정법이 자연법에 근거하고, 자연법이 영원법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 개념 보충

영원법, 자연법, 실정법 비교

영원법	• 신의 예지와 의지로 정립된 영원불변의 질서와 법칙 • 모든 사물의 본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음
자연법	•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식된 영원법 •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동의할 수밖에 없고,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
실정법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구체적인 법

→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 하고 자연법은 영원법에 기초해야 함

402 갑은 아퀴나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두 사상가는 완전하고 선한 신을 만물의 창조주로 보았으며, 인간의 구원과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④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신의 불완전함에서 비롯된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으로 이해하였다.

403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ㄴ.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모두 신은 최고선이며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라고 보았다. ㄷ. 두 사상가 모두 진정한 행복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신과의 합일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창조한 것은 모두 선하며, 악은 신이 창조한 실체가 아니라 선이 결핍된 상태라고 보았다. ㄹ. 아퀴나스는 신을 단순히 믿음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논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

40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루터이다. 루터는 면죄부를 판매하여 죄와 벌을 면할 수 있다는 당시 교회의 주장을 비판하고, 인간은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신의 은총과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성서를 신앙의 최고 권위로 인정하고 모든 신자가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④ 루터는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직자의 중개 없이 신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다.

40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칼뱅이다. 칼뱅은 직업을 신이 각 사람을 불러 맡겨 주신 소명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신의 소명에 따라 각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칼뱅은 직업에서의 성공을 구원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지 않았다. 구원 여부는 신에 의해 예정되며, 직업적 성공은 선택받았다는 징표로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ㄹ. 칼뱅은 재물의 축적 자체를 죄악으로 보지 않았다. 근면하고 절제된 직업 생활을 통해 정당하게 얻은 부는 인정하였다.

406 대화 속 스승은 칼뱅이다. 칼뱅은 신은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와 양식을 정해 두셨는데 이를 소명이라 이름하였고,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신이 정해 주신 초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⑤ 칼뱅은 성실한 직업 활동을 통해 얻은 경제적 성과 자체가 신앙적 가치와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근면하고 절제된 직업 생활을 신앙에 부합하는 삶의 태도로 간주하였다.

407

• 루터는 죄를 사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권한은 교황이 아니라 신에게 있다고 주장함

갑(루터): 교황은 신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떠한 죄도 사할 권한이 없다. 기껏해야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그가 사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만약 그의 사죄하는 기능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때 사함받았다는 죄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을(칼뱅): 우리는 신이 우리 모두에게 삶의 모든 행위를 할 때 자신의 부르심에 주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을 구분해 놓으심으로써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셨다. 주님은 그러한 삶의 양식들을 소명(召命)이라 이름하셨다.

• 직업 소명설

갑은 루터, 을은 칼뱅이다. 루터는 면죄부를 비판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보았고, 칼뱅은 이를 계승하여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예정설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A에는 루터는 '예', 칼뱅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루터와 칼뱅은 모두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직자의 중개 없이 신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A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ㄹ. C에는 칼뱅이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칼뱅은 인간의 구원 여부가 신에 의해 미리 예정되어 있으며, 직업적 성공을 통해 그 예정을 바꿀 수 없다고 보았다.

07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개념 확인 문제 96쪽

408 의무 409 선의지 410 정언 명령 411 결과 412 고상한 쾌락 413 동기 414 벤담 415 밀 416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417 규칙 공리주의

난이도별 필수 기출 96~103쪽

418 ⑤ 419 ② 420 ③ 421 ① 422 ③
423 선의지 424 ④ 425 ③ 426 ④ 427 ③
428 ④ 429 해설 참조 430 ① 431 ③
432 해설 참조 433 ③ 434 해설 참조 435 ②
436 ③ 437 ④ 438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439 ②
440 ① 441 ④ 442 ③ 443 ④ 444 ② 445 ⑤
446 ② 447 ③ 448 ④ 449 ⑤ 450 ④
451 해설 참조 452 ④

418 (가)에 들어갈 말은 의무론이다. ㄴ, ㄷ, ㄹ.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나 상황보다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적 의무 자체를 중시한다. 따라서 옳은 행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관계없이 의무를 따랐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결과론의 입장이다. 의무론은 도덕성을 평가할 때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한다.

41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① 칸트는 선의지가 그 자체로 선하며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기에,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④ 칸트는 인간이 자연적 경향성을 지니면서도 이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이성을 통해 경향성의 지배를 벗어나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칸트는 외적 강제가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칸트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도덕 법칙을 따르는 존재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의지가 도덕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본능적 욕구의 저항, 즉 경향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20 칸트는 도덕 그 자체가 숭고한 가치를 지니며 목적이 된다고 보았고,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의무론적 윤리사상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③ 칸트는 인간은 경향성에 반드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의지로 이를 극복하고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42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2) 칸트는 이 세계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라고 주장하였다. (3)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적 경향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이성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이다.

바로알기 | (1) 칸트는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의무에 부합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면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4) 칸트는 인간은 자연적 경향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이겨 내고 도덕 법칙을 실천하려는 선의지를 따를 수 있다고 보았다.

✓ 개념 보충

칸트의 자연 세계와 도덕 세계 비교

자연 세계(감성계)	도덕 세계(예지계)
•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세계 •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음 → 인간도 자연적 존재로서 다른 자연물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음	• 자유와 도덕이 성립하는 세계 •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음 →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경향성을 극복하고 이성이 명령하는 도덕 법칙에 따를 수 있음

→ 인간은 자연 세계(감성계)의 한계를 넘어 이성적인 도덕 세계(예지계)로 나아갈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

42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나 감정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라 행위할 때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③ 자식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모를 공경한 행위를 도덕적인 행위로 볼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동정심과 같은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우연히 의무에 일치할 수는 있어도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보았다. ② 칸트는 대학 합격이라는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의무에서 비롯된 도덕적 행위로 보지 않을 것이다. ④ 칸트는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나 감정이 동기가 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보았다. ⑤ 칸트는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거짓 약속은 보편화할 수 없는 행위로서 도덕 법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42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경향성에 좌우되지 않고 이성이 제시하는 도덕 법칙을 스스로 따르려는 의지를 선의지라고 보았다. 선의지는 어떤 다른 목적이나 결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의무를 행하려는 의지를 말한다.

42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④ 칸트에 따르면 도덕은 행복이나 다른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도덕과 행복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칸트는 의무를 다할 때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칸트는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행위도 우연히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의무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면 도덕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③ 칸트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를 중시하며 선한 의지, 선한 의도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한 것은 결과론인 공리주의 사상이다. 칸트는 의무론의 대표 사상가로서,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42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문제 상황〉에서는 고등학생 A가 산불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들에게 자신이 모은 용돈을 기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나 감정,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라 행동할 때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③ 칸트는 A에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고 기부해야 한다."라고 조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동정심과 같은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결과적으로 의무에 일치할 수는 있어도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보았다. ② 칸트는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보지 않았다. ④ 칸트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행복의 증진과 같은 결과가 아니라 의무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였다. ⑤ 칸트는 자부심과 같은 개인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는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이므로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보았다.

426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A에는 칸트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 B에는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ㄱ. 선의지에 따른 행위는 항상 옳다고 보므로 칸트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ㄴ. 결과적으로 의무에 맞는 행위라도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아닐 수 있으므로 칸트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ㄷ. 선의지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하며 가치를 지니므로 칸트가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따라서 ㄱ, ㄴ, ㄷ은 적절하다.

바로알기 | ㄹ.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는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는 개인의 행복과 일치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은 아니다.

42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문제 상황〉에서 A는 어린아이를 돕는 일과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 일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칸트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동정심이나 개인의 이익, 예상되는 결과가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칸트는 A에게 ③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기준으로 행동하세요."라고 조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동정심과 같은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② 칸트는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도덕적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④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이성이 명령하는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칸트는 행위의 도덕성을 예상되는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와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428 (가)는 실천 이성, (나)는 정언 명령이다. 칸트는 인간이 실천 이성을 통해 보편적 도덕 법칙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다고 보았다. 정언 명령은 어떤 행위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명령이다.

바로알기 | 준칙이란 주관적인 의지에 따른 행위 규칙이다. 선의지란 오직 의무이기 때문에 행하려는 의지이다. 가언 명령이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행위를 지시하는 조건부 명령이다.

429 **모범 답안** (가):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나): 목적으로 대하도록

43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정언 명령의 대표적 형식으로 자신의 행위 원칙이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성의 정식'과, 인간을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대하고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성의 정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은 이성에 따라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그 법칙에 자율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칸트는 타인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그를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면 된다. ㄹ. 칸트는 도덕 법칙이 인간에게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고 보았다. 가언 명령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부 명령에 해당한다.

43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③ 칸트는 행복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의무를 실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행복이나 개인의 이익을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432 **모범 답안** 로스, 상황에 따라 다른 의무에 의해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는 의무

43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로스이다. 로스는 현대 칸트주의 사상가로, 칸트 윤리의 난점인 절대적인 도덕 의무들이 상충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ㄴ. 로스에 따르면 어떤 도덕 원칙이 우선하는지의 판단은 우리의 상식과 직관에 따라 결정된다. ㄹ. 로스는 각각의 조건부 의무가 다른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 한 우리를 구속하며, 의무가 충돌할 경우에는 더 중요한 의무가 실제 의무가 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로스는 조건부 의무가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았다. ㄷ. 로스는 언제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어느 하나의 의무도 또 다른 의무와 상충하게 되면 다른 의무에 의해 유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434 **모범 답안** 칸트에 따르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는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도덕 법칙이므로 A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따라야 한다. 반면 로스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보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보므로 A는 거짓말을 하여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435

실제 의무 앞에서 조건부 의무로 전환됨

갑(로스): 도덕 원리는 그 자체 외에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자명한 것이다. 구체적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한 측면에서는 일견 옳더라도, 더 중요한 다른 측면에서 그르다면 실제 의무가 될 수 없다. 특정 상황에서 가장 옳은 행위를 수행하는 것만이 실제 의무가 된다.

의무가 충돌할 때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실천해야 하는 의무

을(칸트): 도덕적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을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유한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이를 따르기에 지나치게 나약하다. 따라서 도덕 법칙은 의무이자 강제로 작용하며, 단지 '의무에 맞는' 행위가 아니라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순수하게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만으로 수행한 행위

갑은 로스, 을은 칸트이다. A에는 로스가 칸트에게, B에는 칸트가 로스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로스는 여러 조건부 의무가 충돌할 수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서 직관과 숙고를 통해 가장 중요한 의무를 실제 의무로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② 로스는 칸트에게 절대적인 도덕 법칙만을 강조할 경우 여러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의무를 우선해야 하는지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칸트 역시 행위가 도덕 법칙과 의무에 부합하는지를 중시하므로 로스가 칸트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로스는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 하나의 절대적 도덕 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조건부 의무 가운데 상황에 따라 실제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④, ⑤ 로스가 칸트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칸트는 도덕적 의무들이 서로 모순되어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진정한 의무 충돌을 인정하지 않는다. 로스는 구체적 상황에서 직관과 숙고를 통해 의무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43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벤담이다. 벤담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존재라고 보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것이 가져오는 쾌락과 고통의 양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벤담은 사회 전체의 행복은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벤담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보았다. ② 벤담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을 도덕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④ 벤담은 금욕주의를

공리의 원리와 대립하는 원리로 보고 비판하였다. ⑤ 벤담은 절대적 도덕 법칙보다 행위가 가져오는 쾌락과 고통의 결과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다.

✓ 개념 보충

공리주의의 특징

결과주의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됨
쾌락주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고려되는 유일한 요인은 행위에 의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임
보편주의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할 때 어떤 사람의 쾌락이나 고통도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됨 → 공평성을 중시함

437 제시된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벤담이다. 벤담은 공리의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원리이며 도덕과 입법의 원리라고 주장하였다. ④ 벤담은 사회 전체의 행복은 개개인의 행복의 총합이라고 보았으며,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가시킨다면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⑤ 밀의 입장이다. 벤담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고 양적 차이만 있으므로, 쾌락의 가치를 양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벤담은 모든 사람의 쾌락이나 고통을 동등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보편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③ 벤담은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원리로 공리의 원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제시하였다.

438 제시된 내용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벤담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439 벤담은 쾌락의 측정 기준으로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파급 범위를 제시하였다. (가)는 지속성, (나)는 근접성, (다)는 다산성에 해당한다.

44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벤담이다. ㄱ.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기준으로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파급 범위의 일곱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ㄴ. 벤담은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ㄷ. 벤담은 강도, 지속성 등 쾌락의 객관적 측정 기준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다. ㄹ. 벤담은 개인의 쾌락과 고통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쾌락과 고통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44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①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 판단의 원리로 삼았다. ② 밀은 정상적인 사람은 저급한 쾌락보다 지적·도덕적 쾌락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③ 밀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를 옳다고 보았다. ⑤ 밀은 사람들이 언제나 고상한 쾌락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수준이 낮은 쾌락을 택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④ 밀은 공리주의자로, 행위의 도덕성을 행위의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 즉 관련된 사람들의 행복과 쾌락을 얼마나 증진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44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2)이다. (1) 밀은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고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밀은 쾌락을 저급한 쾌락과 고상한 쾌락으로 분류하고, 저급한 쾌락보다 고상한 쾌락이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3) 밀은 두 종류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의 선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4) 밀은 쾌락의 질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면 그들 중 다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쾌락에 가치가 없다고 보지 않았다.

44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여러 쾌락을 모두 경험한 쾌락의 전문가의 선호를 기준으로 질적 우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공리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444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② 밀은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지적 쾌락과 같은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밀은 감각적 쾌락을 저급한 쾌락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진정한 행복을 위해 이를 최대한 많이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③, ⑤ 밀은 질적 공리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욕망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금욕적인 삶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④ 칸트의 입장이다. 밀은 행복의 증진을 도덕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았다.

445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⑤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자, 밀은 질적 공리주의자로 둘 다 행위의 도덕성이 결과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는 공리주의 입장을 취한다.

바로알기 | ① 벤담은 쾌락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았고, 밀은 정신적 쾌락과 육체적 쾌락을 각각 고상한 쾌락, 저급한 쾌락으로 분류하였으나 정신적 쾌락 이외의 쾌락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② 벤담은 긍정, 밀은 부정할 입장이다. 밀은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③ 벤담과 밀은 모두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성향을 지닌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자연적 경향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④ 벤담과 밀은 모두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도덕의 중요한 목표로 보았다.

446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A에는 벤담은 '예', 밀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B에는 벤담이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C에는 밀이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ㄱ. 벤담은 '예', 밀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므로 적절하다. ㄴ. 벤담이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므로 적절하다.

바로알기 | ㄷ. 밀은 개인의 쾌락과 사회 전체의 선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밀은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도덕 법칙 자체에 복종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행위가 가져오는 쾌락과 행복의 결과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447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① 벤담은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의 동기나 의도가 아닌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보는 공리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② 벤담은 각 개인의 행복이 모여 사회 전체의 행복을 이룬다고 보았다. ④ 밀은 감각적 쾌락을 저급한 쾌락, 정신적 쾌락을 고상한 쾌락으로 보고 후자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⑤ 벤담과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공리의 원리로 삼았다.

바로알기 | ③ 밀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라도 때로는 고통이나 불만족을 수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밀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쾌락의 질과 전체적인 행복의 증진이다.

448

(가) 유용성의 원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개별적인 각각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옳은 행위란 다른 어떤 가능한 행위보다 더 큰 유용성을 갖는 것으로 정의된다. (행위 공리주의) — 개별 행위의 결과를 직접 평가함

(나) 유용성의 원리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타당한 행위 규칙에 적용된다. 옳은 행위란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과 더 적은 불행을 일으키게 하는 규칙을 따르는 행위이다. (규칙 공리주의) — 개별 행위가 아니라 행위 규칙의 유용성을 평가함

(가)는 행위 공리주의, (나)는 규칙 공리주의 입장이다. ④ 행위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개인의 개별적 행위에 직접 적용하지만, 규칙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는 행위 규칙에 공리의 원리를 적용하고자 한다.

바로알기 | ① 행위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② 규칙 공리주의도 쾌락과 고통을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개별 행위가 아니라 행위 규칙의 결과를 평가한다. ③, ⑤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는 모두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행위 또는 규칙이 실제로 가져오는 결과와 공리의 크기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 개념 보충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비교

구분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 적용 대상	개별적인 행위	행위 규칙
도덕 판단 방법	구체적 상황에서 가장 큰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선택함	일반적으로 가장 큰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을 선택하고 따름
옳은 행위	가능한 행위들 가운데 전체 행복을 가장 크게 증진하는 행위	전체 행복을 최대화하는 규칙에 부합하는 행위
공통점	행위의 결과가 가져오는 행복과 공리의 증진을 중시함	

449 갑은 규칙 공리주의자, 을은 행위 공리주의자이다. 규칙 공리주의자는 공리의 원리에 따른 도덕 규칙 준수를 강조하므로, 개별 행위의 유용성만으로 도덕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아 C에 해당한다. 반면 행위 공리주의자는 행위 결과를 평가하므로, 행복을 증진한다면 도덕적 직관에 반하는 행위도 정당화할 수 있어 A에 해당한다.

45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싱어이다. 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의 이익을 인간의 이익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④ 싱어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의 이익도 인간의 이익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451 모범 답안 갑은 벤담, 을은 칸트이다. 벤담은 주민 전체의 행복을 고려할 때 식수 확보가 정원에 물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공리를 가져오므로 A에게 물을 주지 말라고 조언할 것이다. 칸트는 식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 정원에 물을 주겠다는 준칙은 보편화할 수 없으므로 A에게 물을 주지 말라고 조언할 것이다.

452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칸트와 벤담은 모두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 즉 의무에 따른 행위가 개인이나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바로알기 | ㄷ. B에는 칸트와 벤담의 공통 입장이 들어가야 한다. 칸트는 개인의 행복 추구를 도덕적 의무로 보지 않았으며, 도덕 법칙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중시하였다. 벤담은 행복의 증진을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를 무조건적인 의무라는 형식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08 윤리적 삶의 근거는 무엇인가?

개념 확인 문제 106쪽

453 단독자 454 죽음 455 도구 456 책임 457 배려
458 사르트르 459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460 실용주의자
461 진화 심리학 462 관계

난이도별 필수 기출 106~113쪽

463 ④ 464 ④ 465 ③ 466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
467 ① 468 ⑤ 469 해설 참조 470 ③ 471 ②
472 ③ 473 ② 474 성장 475 ① 476 ⑤ 477 ④
478 ⑤ 479 ③ 480 ④ 481 ④ 482 감정 483 ④
484 ⑤ 485 ① 486 요나스 487 ②
488 해설 참조 489 ④ 490 ④ 491 ④ 492 ②
493 ② 494 ① 495 ⑤ 496 ③ 497 ②

463 (가)에 들어갈 말은 실존주의이다. 실존주의는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문제를 보편적 이성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개별적 인간의 구체적 선택과 결단을 통한 삶의 의미 회복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실존주의는 인간을 미리 정해진 본질로 규정하기보다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중시하였다. 특히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신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스스로의 본질을 형성해 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ㄷ. 근대 이성주의 입장에 가깝다.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에게 고정된 본질은 없으며, 구체적 개인의 실존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464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심미적 단계에서 윤리적 단계로 나아가며, 궁극적으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성을 자각하는 종교적 단계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가) 심미적, (나) 윤리적, (다) 종교적이 들어가야 한다.

✓ 개념 보충

키르케고르의 실존의 3단계

1단계: 심미적 실존 단계	• 순간적인 쾌락과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단계 • 쾌락을 좇다가 허무함을 느끼고 절망에 이르게 됨
↓ 주체적 결단	
2단계: 윤리적 실존 단계	• 보편적인 도덕규범과 의무에 따라 살아가는 단계 • 자신의 유한성을 깨달으며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절망에 이르게 됨
↓ 주체적 결단	
3단계: 종교적 실존 단계	• 신에 대한 주체적 결단과 믿음을 통해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단계 • 유한한 인간이 신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함으로써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내리는 존재가 됨

46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키르케고르이다. ③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실존의 마지막 단계인 종교적 단계에 이르러 신에게 귀의함으로써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주장한 사르트르의 입장이다. 키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주장하였다. ② 키르케고르는 신에게 귀의함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인간은 실존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며 주체적 결정을 회피하거나 유보하면서 절망에 빠지게 된다. ⑤ 키르케고르는 심미적 실존 단계, 윤리적 실존 단계가 아닌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466 하이데거는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본래적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46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ㄱ. 하이데거는 인간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지만, 이를 회피하지 않고 죽음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ㄴ.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점유한 존재이다.
바로알기 | ㄷ. 하이데거는 인간이 삶의 유한성을 인정할 때 실존을 자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하이데거는 인간만이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6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1)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지만, 이를 회피하지 않고 언제든 죽음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죽음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4)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생물과 달리 유일하게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다.
바로알기 | (2) 하이데거는 대중적인 삶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을 경계하였다. (3) 하이데거는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가능성을 인식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469 모범 답안 사르트르에 따르면 사물은 존재하기 전에 그 본질이 정해져 있지만, 인간은 정해진 본질 없이 먼저 존재한 뒤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간다.

47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사르트르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②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주장한 키르케고르의 입장이다. ④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본질을 부여하는 초월적 존재는 없다고 주장하며, 인간은 사물과 달리 본질이 정해지지 않은 존재라고 보았다. ⑤ 하이데거의 입장이다.

471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사르트르이다. ① 키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로서 인간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으로 신앙을 결단하는 종교적 실존에 이를 때 참된 자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④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로서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은 없으며,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 지워진 존재로 자신의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 간다고 보았다. ⑤ 두 사상가 모두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주체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② 키르케고르는 실존의 3단계에서 각 단계로 이행하는 것은 인간의 주체적 선택이 필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47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제임스이다. 제임스는 마치 현금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 가치를 현금 가치라고 칭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지식이나 사상, 학문, 종교 등이 우리 삶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때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제임스는 도덕적 가치가 실제 삶에서 어떤 유용한 결과를 낳는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도덕적 행위는 사회적 유용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ㄹ. 제임스에 따르면 종교나 예술도 삶에 실제적인 유용성을 제공할 때 현금 가치를 지닌다.

47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제임스이다. 제임스는 진리란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제임스에 따르면 지식과 신념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치가 있다.
바로알기 | ① 제임스는 어떤 것의 가치를 유용성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④ 제임스는 도덕이나 종교, 문학이나 철학 등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문제 해결에 유용할 때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보았다. ⑤ 제임스는 실용성이 증명된 진리가 참된 진리라고 보았다.

47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듀이이다. 듀이는 도덕적 삶을 고정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가)에는 '성장'이 들어가며, 듀이는 성장 그 자체를 도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았다.

47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듀이이다. ① 듀이는 도덕이나 윤리도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가설이며 그렇기 때문에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듀이는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듀이는 도덕적 인간이 고정불변하는 절대적 선에 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④, ⑤ 듀이는 도덕이나 윤리, 종교 또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모두 변화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476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듀이이다. 듀이는 지식과 관념을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 보았다. 따라서 ⑤ 듀이에게 가치 있는 지식이란 삶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이다.
바로알기 | ① 현금 가치를 강조한 제임스의 대답으로 적절하다. ② 듀이는 지식을 고정되고 확실한 진리로 보지 않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끊임없이 검토하고 수정되는 도구로 보았다. ③ 듀이는 지식의 가치를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서 찾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서 찾았다. ④ 듀이는 지식이 오직 이성만으로 얻어진다고 보지 않고, 경험과 탐구를 통해 형성되고 수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47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듀이이다. ㄱ. 듀이는 도덕적 인간이란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ㄴ. 듀이에 따르면 도덕적 지식은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이므로 언제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 ㄹ. 듀이는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듀이는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성적 추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과 실천을 통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478 갑은 제임스, 을은 듀이이다. 제임스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 가치인 '현금 가치'를 강조하였다. 듀이는 지성적 탐구를 통해 인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제임스와 듀이는 모두 실용주의 사상가로, 인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제임스는 지식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때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② 제임스는 문학이나 철학도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기여하므로 현금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듀이는 진리란 경험 속에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검증되며, 새로운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듀이는 지식이나 이론이 지성적 탐구를 통해 상황에 맞게 수정되고 발전하여,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479 갑은 듀이, 을은 퍼스, 병은 제임스로, 모두 실용주의 사상가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ㄷ. 인간의 실생활에 유용하지 않은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ㄹ. 이들은 경험과 실천을 통해 유용성이 입증된 지식을 참된 지식으로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실용주의는 유용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진리는 경험과 실제적 결과에 따라 검증되고 수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ㄴ. 실용주의는 이성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았다. 특히 듀이는 인간이 지성을 활용하여 경험을 반성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간다고 보았다.

480 진화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 도덕성의 기원을 자연 선택과 진화적 적응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이타적 행동이 개인이나 집단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작용해 형성되었다고 본다.
바로알기 | ㉣ 인간의 도덕 판단을 특정 뇌 영역의 활성과 신경 작용을 통해 설명하려는 것은 신경 윤리학의 관점이다.

481 (가)에 들어갈 말은 진화 심리학이다. 진화 심리학은 도덕의 기원을 인간의 이성이나 정신이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에서 찾는다. ㄱ. 진화 심리학은 이타적 행위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ㄴ. 진화 심리학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특성이 자연 선택되는 진화 과정에서 도덕성이 발달했다고 본다. ㄷ. 진화 심리학은 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은 혈연관계의 이타적 행동을 유전적 동질성이 높은 개체의 생존을 돕는 행동으로 설명한다.
바로알기 | ㄹ.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상호 이타적인 사람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보다 생존과 종족 보존 면에서 더 유리한 경향이 있으므로 세대가 거듭될수록 사회 전체에 걸쳐 이타성을 지닌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된다.

48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이트이다. 하이트는 신경 윤리학의 관점에 따라 대부분의 도덕 판단은 감정에 뿌리를 둔 직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48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이트이다. ① 하이트는 도덕 판단에서 이성적 추론보다 감정과 직관이 먼저 작용하며,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② 하이트는 도덕 판단 과정에서 감정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③ 하이트는 도덕 판단에서 감정적 직관이 먼저 작용하지만, 이후 이성적 추론도 판단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⑤ 하이트는 도덕 판단에서 직관과 감정이 먼저 작용하고, 이성이 이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④ 하이트는 도덕적 의사 결정이 도덕적 추론에만 뿌리를 둔다고 보지 않고, 대체로 감정적 직관이 먼저 판단을 이끌며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이성적 추론은 주로 그 판단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한다고 보았다.

48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이트이다. ① 하이트는 도덕적 직관이 이성적 숙고에 앞서 작동하며, 이러한 직관적 판단은 감정에 바탕을 둔다고 보았다. ② 하이트는 직관적 판단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론적 판단에서는 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③ 하이트는 도덕 판단의 유형에 따라 감정이나 이성과 관련된 서로 다른 뇌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하이트는 도덕적 의사 결정에서 직관적 판단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이후 이성적 추론이 이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⑤ 하이트는 도덕 판단에서 감정적 직관이 이성적 추론보다 먼저 작용하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므로 도덕 판단에서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485 제시된 글은 요나스의 책임 윤리를 설명한 것이다. ㄱ, ㄴ. 요나스는 현대 과학 기술의 영향력이 자연과 미래 세대의 생존에까지 미치게 되었으므로, 인간은 상호적 책임이 아니라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일방적 책임을 지며 도덕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문제는 기존의 전통 윤리를 단순히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책임 윤리를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ㄷ. 요나스는 전통적 윤리가 행위의 가까운 결과와 현재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종의 먼 미래와 실존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ㄹ. 요나스는 현대 과학 기술이 초래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 윤리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48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현대 과학 기술이 미래 인류의 생존과 삶의 조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미래에도 진정한 인간적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87 밑줄 친 ㉠은 인간의 행위가 미래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 명령으로, ② 현세대는 미래 인류가 존속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행위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488 **모범 답안** (가): 생태학적 정언 명령, (나):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 확장

489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④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영향이 미래 세대까지 미친다고 보고,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조건이 보장되도록 행위의 장기적 결과까지 고려하여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요나스는 미래 세대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현세대와 이익이나 책임을 주고받을 수 없으므로,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해 일방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② 요나스는 미래의 결과가 불확실할수록 낙관적인 전망보다 최악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공포의 발견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요나스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도 현세대가 책임져야 할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고 보았다. ⑤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영향이 장기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기술의 파급력이 커진 만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까지 예견하고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490 그림의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ㄱ. 요나스는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 현세대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며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ㄹ. 요나스에 따르면 우리의 책임은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일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이다.

바로알기 | ㄷ. 요나스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관계를 상호적 책임 관계로 보지 않았다. 미래 세대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 현세대와 책임을 주고받을 수 없으므로, 현세대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조건을 보장해야 하는 비상호적·일방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491

길리건에 따르면 이는 관계·책임·배려를 중시하는 여성의 도덕적 관점을 말함

우리는 몇백 년에 걸쳐서 남성들의 목소리를 들어 왔고,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발달 이론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여성들의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배려 윤리가 보여 주는 진실, 인간관계와 책임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 공격성이 발현되는 이유는 사람들 간의 연대가 깨졌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남성들의 삶과는 다른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부분적인 이유는 사회적 경험과 그 해석에 하나의 방식만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전제를 버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해석 방식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간 경험에 대한 더 발전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는 서로 다른 도덕적 관점으로 모두 필요하다고 봄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길리건이다. ④ 길리건은 남성 중심의 정의 윤리가 여성 중심의 또 다른 목소리를 간과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을 때 도덕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길리건은 정의, 공정성, 의무, 권리, 규칙 등을 남성 중심적 윤리의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배려, 공감, 관계성 등은 여성 윤리의 특성에 해당한다. ② 길리건은 정의 윤리가 여성을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보아 왔다고 주장하였다. ③ 길리건은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를 구분하고 양자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였다. ⑤ 길리건은 정의 윤리를 배려 윤리로 대체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성숙을 위해 정의의 도덕성과 배려의 도덕성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9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길리건이다. ㄱ, ㄷ. 길리건은 도덕의 문제들은 인간관계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남성과 달리 여성은 추상적인 도덕 원칙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며, 개인의 권리보다는 상호 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길리건은 보살핌, 유대감과 같은 특성을 여성의 도덕적 성향이라고 보았다. ㄹ. 길리건은 남성 중심의 정의 윤리와 여성 중심의 배려 윤리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493

갑은 길리건, 을은 보편적 원칙과 정의를 중시하는 정의 윤리의 입장이다. ㄱ, ㄷ. 길리건은 이러한 입장이 구체적 상황과 인간관계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배려와 책임을 중시하는 도덕적 관점도 정당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정의 윤리의 입장에서 길리건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ㄹ. 길리건은 도덕 문제를 이해하는 남성과 여성의 관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 정의와 배려의 관점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룬다고 설명하였다.

49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나딩스이다. ②, ③, ④ 나딩스는 배려하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받는 사람의 상황과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배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배려받는 사람의 응답이 없다면 배려는 완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받는 사람의 상호 책임 관계를 강조하였다. ⑤ 나딩스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배려의 원형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자연적 배려의 성향을 바탕으로 타인, 자연 전체로 배려 대상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나딩스에 따르면 진정한 배려는 배려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판단이나 의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배려받는 사람이 그 배려를 받아들이고 응답할 때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

49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나딩스이다. ⑤ 나딩스는 진정한 배려의 완성은 배려하는 사람이 배려받는 사람의 필요나 요구를 잘 파악하여 채워 주고, 배려받는 사람이 배려를 수용하고 적절히 반응할 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배려 윤리에서는 정의, 공정성, 자유, 권리보다는 배려, 공감, 관계성, 책임 등을 도덕성의 핵심으로 본다. ② 나딩스에 따르면 윤리적 배려가 자연적 배려에 근거한다. ③ 나딩스에 따르면 배려는 배려받는 사람의 필요나 구체적인 요구를 잘 파악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나딩스는 사람들이 처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개념 보충

나딩스의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

자연적 배려	• 타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구에서 비롯됨 • 특별한 윤리적 노력이나 의무감 없이 자발적으로 실천함 예 어머니의 모성적 배려
윤리적 배려	• 자연스럽게 배려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배려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식에서 비롯됨 • 자신의 윤리적 이상에 따라 의식적으로 배려를 선택하고 실천함

→ 나딩스는 윤리적 배려가 자연적 배려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형성되므로, 자연적 배려가 윤리적 배려의 토대가 된다고 봄

496

갑은 길리건, 을은 나딩스이다. 길리건과 나딩스는 배려 윤리 사상가들로, 기존의 남성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윤리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여성들이 가진 도덕성이라 할 수 있는 관계, 공감, 동정심 등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길리건은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를 구분하였으며, 이 둘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ㄹ. 나딩스는 도덕 문제를 논리적 추론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 공감과 동정심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97

갑은 나딩스, 을은 요나스이다. ② 나딩스는 배려가 배려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려받는 사람의 응답을 통해 관계가 형성될 때 완성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나딩스는 배려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요나스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보았다. ④ 요나스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사태도 미리 예측하여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나딩스는 감정과 관계를 배려의 중요한 토대로 보았으며, 요나스 역시 책임 윤리에서 감정보다 이성을 언제나 우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 05~08강 | 114~117쪽

498 ④	499 ④	500 ①	501 ⑤	502 ②	503 ②
504 ④	505 ③	506 ②	507 ⑤	508 ⑤	509 ②
510 ③	511 ⑤	512 ④	513 ①		

498 갑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ㄱ.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감각적 경험이 도덕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ㄴ. 프로타고라스에게 사회적 관습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현실적인 도구이다. 따라서 절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보다 사회적 합의이자 관습을 따르는 것이 유용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ㄷ. 소크라테스는 감각적 경험보다 이성을 통한 성찰과 문답을 통해 보편적이고 참된 앎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ㄹ.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는 모두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과는 달리 자연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철학적 논의의 주요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

49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④ 플라톤은 현실의 개별 사물은 완전한 실재인 이데아를 본떠 존재하는 불완전한 모방물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플라톤은 통치자와 방위자 계층은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생산자 계층에게는 사유 재산을 허용하였다. ② 플라톤에 따르면 선의 이데아는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③ 플라톤에 따르면 수호자 계층에는 통치자, 방위자가 모두 포함되며, 방위자는 용기,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 실현을 위해 세 계층은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50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지혜를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며, 품성적 덕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절도나 질투처럼 그 자체로 잘못된 행위와 감정에는 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감정과 행위의 적절한 정도인 중용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 중용을 판단하게 하는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 것은 품성적 덕에 해당한다. 실천적 지혜는 지성적 덕으로서 교육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501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A에는 소크라테스만의 입장, B에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 입장, C에는 아리스토텔레스만의 입장이 들어가야 한다. ㄱ, ㄹ. 소크라테스는 참된 앎이 반드시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지행일치를 주장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앎이 있더라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지와 행 사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주의주의(主意主義)를 주장하였다. ㄴ.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통적으로 덕을 갖추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앎 그 자체가 덕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덕을 갖추려면 선악에 대한 참된 앎을 바탕으로 옳은 행위를 꾸준히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개념 보충

지(知), 덕(德), 행복에 대한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소크라테스	•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고의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음 • 모든 덕은 참된 앎에서 나오고, 모든 악은 무지에서 비롯됨 • 참된 앎은 덕이고 덕은 곧 행복이므로 참된 앎과 덕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
아리스토텔레스	• 선이 무엇인지 알아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악을 행할 수 있음 •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자신의 앎과 달리 행동할 수 있음 •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덕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참된 앎을 바탕으로 옳은 행위를 습관화할 때 가능함

50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②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최고선으로 보았지만, 참된 쾌락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를 바탕으로 욕망을 분별하고 절제하여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에피쿠로스는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현재의 고통을 감수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③ 에피쿠로스는 욕구를 절제하는 가운데 참된 쾌락을 누릴 것을 강조하였다. ④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과 인간관계가 불안과 고통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덕은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할 때 가치를 지닌다.

503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의 아우렐리우스이다. ㄱ. A에는 에피쿠로스는 '예', 아우렐리우스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스토아학파 사상가들과는 달리 공적인 삶과 인간관계는 고통과 불안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면서 은둔적 생활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A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다. ㄹ. C에는 아우렐리우스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에 의해 운명 지어진 것으로 바꿀 수 없으며 이러한 자연의 필연적 질서와 법칙을 파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B에는 에피쿠로스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자연적인 정념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ㄷ.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충족하지 않아도 고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50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이다. (3) 스토아학파는 인간과 우주 및 자연에 공통된 이성인 로고스가 존재하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1) 스토아학파는 이성에 따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2) 스토아학파는 신과 자연을 초월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신·자연·우주에 공통된 이성인 로고스가 지배하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4) 스토아학파는 외적 결과보다 자신의 의지와 판단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내적인 것을 중시하므로, 개인의 동기와 의지도 도덕적 평가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505 갑은 아퀴나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①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 영원법에 참여한 것이므로 영원법에 기초한다. ② 아퀴나스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자연법에 담긴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이성적 인식을 넘어 신앙과 사랑을 통해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로 보았다. ⑤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두 현세의 행복은 불완전하며, 궁극적인 행복은 내세에서 신과 하나 됨으로써 완성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③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자연과 동일한 존재로 보지 않고, 자연과 만물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로 보았다.

506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아퀴나스, 병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② B에는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기할 비판이 들어가야 한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완전한 행복이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을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으로 정의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A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퀴나스에게 제기할 비판이 들어가야 한다. 완전한 행복을 위해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종교적 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아퀴나스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C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아퀴나스에게 제기할 비판이 들어가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자유 의지를 부여받았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A, F에는 각각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제기할 비판이 들어가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세에서 이성에 따른 덕의 실천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B에는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D에는 아퀴나스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제기할 비판이 들어가야 한다.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인간의 도덕적 삶에서 이성과 의지의 역할을 인정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50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⑤ 칸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고유한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간접적 의무가 될 수 있지만 결코 직접적 의무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② 칸트는 보편화 가능한 준칙을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준칙으로 보았지만, 모든 준칙이 곧바로 도덕 법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보편화가 가능한 준칙은 '해도 괜찮은 행동'일 뿐, 모두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이다. ③ 칸트는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가 모두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④ 칸트에 따르면 순수한 실천 이성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할 것을 의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오직 의무가 문제시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508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로 얻는 쾌락이나 행복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의무를 도덕적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⑤ 칸트는 벤담에게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결과가 아니라 의무에서 찾아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도덕과 행복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벤담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보편적 도덕 판단 원리를 제시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칸트는 도덕 법칙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필연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사회적 유용성을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벤담의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509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② 벤담과 밀은 모두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자연적 경향성을 도덕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벤담은 '예', 밀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③ 벤담과 밀 모두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④ 벤담은 '예', 밀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⑤ 벤담은 '아니요', 밀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510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하이데거이다. 두 사상가는 모두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보다 개별 인간의 구체적인 실존을 중시하므로, ③ "진리의 보편성을 인정하여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키르케고르와 하이데거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추상적인 보편성보다 개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실존을 중시하였다. ② 키르케고르는 신에 대한 주체적 신앙의 결단을 통해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하이데거는 신앙을 실존 회복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④ 하이데거만의 입장이다. ⑤ 키르케고르와 하이데거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구체적 실존을 자각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선택하며 결단하는 태도를 중시하였다.

51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듀이이다. ⑤ 듀이는 지식이나 이론, 사상, 도덕, 윤리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듀이에 따르면 도덕적 인간은 최고선에 도달한 인간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② 듀이는 고정불변의 도덕 원리나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③ 듀이는 도덕이나 윤리, 종교도 변화하고 성장하며 발전한다고 보았다. ④ 듀이는 도덕적 삶이 고정된 규칙의 반복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정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51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고, ㉠은 생태학적 정언 명령에 해당한다. 생태학적 정언 명령이란 인간의 행위가 미래에도 지상에서 진정한 인간적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도덕적 명령을 의미한다.

바로알기 | ㄷ. 요나스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은 상호 책임의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에 대해 일방적인 책임의 의무를 갖는다.

513 갑은 길리건, 을은 나딩스이다. ① 길리건은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정의 윤리를 비판하고, 타인과의 관계, 공감, 책임, 배려를 도덕적 판단의 핵심으로 두는 여성 중심의 배려 윤리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② 길리건은 정의 윤리가 배려 윤리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나딩스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보다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에 따른 배려를 중시하였다. ④ 나딩스는 배려가 완성되려면 배려받는 사람의 수용과 응답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⑤ 길리건과 나딩스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도덕관이 간과한 여성의 배려 중심적 도덕 관점에 주목하며, 남성의 도덕성과 여성의 도덕성을 구분하였다.

09 국가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시민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개념 확인 문제 120쪽

514 대동 사회 515 소국과민 516 소극적 자유 517 자유
518 비지배 519 민본주의 520 정치적 521 일반 의지
522 공화주의 523 헌법

난이도별 필수 기출 120~129쪽

524 ⑤ 525 ② 526 ② 527 ③ 528 해설 참조
529 ③ 530 ⑤ 531 ② 532 ④ 533 ③
534 해설 참조 535 ② 536 ③ 537 ② 538 ④
539 ② 540 ③ 541 ③ 542 해설 참조 543 ④
544 ② 545 ① 546 ④ 547 ③ 548 ③
549 해설 참조 550 ⑤ 551 ⑤
552 (가): 자연권, (나): 비지배 553 ④ 554 ④ 555 ④
556 ② 557 ⑤ 558 ③ 559 ④ 560 해설 참조
561 ② 562 ② 563 ⑤ 564 ④ 565 ④ 566 ③
567 ② 568 해설 참조

524 유교에서는 통치자가 덕으로 백성을 이끌고 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공자는 국가의 기원을 가족 공동체의 질서가 사회 전체로 확장된 것에서 찾았다. 또한 공자는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며, 모든 구성원이 가족처럼 어울려 사는 대동 사회를 이상으로 삼았다.

바로알기 | ㄱ.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볍다고 하여 임금의 권위를 가장 낮게 보았다. 이는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는 민본주의 사상으로, 군주 중심의 권위주의와는 구별된다.

52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민본주의에 입각하여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 보았으며, ② 군주가 덕을 잃고 천명을 저버리면 새로운 군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역성혁명을 인정하였다.

바로알기 | ① 강력한 법령과 상벌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법가의 입장이다. ③ 국가를 지배 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본 것은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④ 맹자는 군주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직접 부여된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⑤ 맹자는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생업인 항산(恒産)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2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② 노자는 욕심과 인위를 버리고 작은 공동체에서 자족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① 겸애는 묵자가 강조한 개념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③ 민본주의는 맹자가 강조한 유교의 정치사상으로,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는 사상이다. ④ 사회 계약은 홉스, 로크, 루소 등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 제시한 개념으로, 개인들의 동의를 통해 국가가 성립된다는 이론이다. ⑤ 대동 사회는 공자가 제시한 이상 사회로,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구성원이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527 그림의 사상가는 공자이다. ③ 공자는 통치자가 먼저 군자다운 인격을 닦은 후에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수기안인(修己安人)]고 보며, 통치자가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는 덕치(德治)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공자는 내세보다 현세의 삶에 초점을 두었다. ② 공자는 인(仁)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④ 사단(四端)의 확충을 강조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⑤ 무위지치(無爲之治)를 주장한 노자의 입장이다.

528 모범 답안 노자는 인위적인 제도와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욕망과 다툼을 키운다고 보았다. 따라서 작은 나라에서 적은 백성이 욕심을 줄이고 자연에 순응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소국과민을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제시하였다.

52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③ 노자는 인위적인 법과 규범을 없애고 자연의 도(道)에 따라 무위로 통치해야 하며, 백성이 소박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소국과민을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백성이 통치자의 존재만을 알 뿐인 나라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덕치를 통해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고 인륜의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본 것은 유교의 입장이다. ② 국가가 백성의 이익을 위해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통일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본 것은 묵자의 입장이다. ④ 인간이 국가 공동체에 참여하여 본성을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⑤ 국가를 개인의 자연권 보호를 위해 구성원 간의 동의와 계약으로 수립된 것으로 본 것은 로크의 입장이다.

✓ 개념 보충

동양 사상가들의 국가관

구분	유교(공자·맹자)	묵가(묵자)	도가(노자)
국가 기원	가족 질서의 확장	사람들이 혼란 극복을 위해 수립	자연의 흐름에 따른 소규모 공동체
통치 방식	덕치, 교화	중앙 집권, 통일된 기준	무위, 인위 배제
이상 사회	대동 사회	겸애가 실현되는 사회	소국과민

530 제시된 노트 필기는 동서양의 국가관에 대한 내용이다. ㉠ 유교는 국가의 기원을 혈연 공동체인 가족의 질서가 사회 전체로 확장된 것에서 찾았으며, 인의예지 등 인륜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추구하였다. 한편 ㉡ 노자는 인위적 법과 제도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아 이를 제거하고, 자연의 도(道)에 따라 백성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소국과민을 이상으로 삼았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가정, 마을 등 여러 공동체가 단계적으로 결합한 최고 단계의 공동체로 보았으며, 인간은 국가 안에서만 최고선인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공화주의에서는 국가를 법치와 공동선에 기반한 정치 공동체로 보았으며, 시민의 자유 보장과 정치 참여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 국가를 사람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공동체로 본 것은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 해당하나, 일반 의지와 국민 주권을 강조한 사상가는 홉스가 아니라 루소이다.

53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홉스이다. ①, ④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간주하고,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절대 권력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다고 보았다.

③, ⑤ 홉스는 국가의 역할을 시민의 안전 보장과 사회 전반의 평화, 질서 유지로 보았으며, 강력한 절대 권력이 자연 상태의 혼란과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② 국가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시민이 저항권을 행사하여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로크의 입장이다. 홉스는 원칙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532

국가의 목적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최고선인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의미함

> 국가는 생존을 위해 형성되었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국가는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이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국가 없이 살아가는 자는 인간으로서 무언가 결핍된 사람이거나, 반대로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존재일 뿐이다.

폴리스(국가) 없이 홀로 자족할 수 있는 자는 짐승이거나 신일 뿐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뜻임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적 존재로 보았으며, 국가는 인간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라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국가를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것은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② 국가를 백성이 천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세운 인위적 공동체로 본 것은 묵자의 입장이다. ③ 국가를 개인이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을 통해 구성한 것으로 본 것은 로크 등 사회 계약론자들의 입장이다. ⑤ 통치자가 인위적 규범을 없애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소규모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 것은 노자의 입장이다.

53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만 본성을 실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하였으므로, 공동 문제에 무관심해진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공동선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바로알기 | ① 강력한 법률과 상벌로 공동체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법가적 접근이다. ②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공동체를 통한 본성 실현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계급 간 갈등 해소와 지배 계급의 착취 구조 개혁을 강조한 것은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⑤ 인위적 규범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소규모 자급자족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노자의 입장이다.

534 **모범 답안** 로크는 개인이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수립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부가 권리를 침해할 경우 시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홉스는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다고 보았으며, 원칙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53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마르크스이다. ㄱ.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사유화가 폐지되고 계급이 철폐되는 미래 공산 사회에서는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ㄷ. 마르크스는 국가를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인위적 도구로 보았다.

바로알기 | ㄴ. 개인이 자연권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와 계약을 맺고 복종한다고 본 것은 로크의 입장이다. ㄹ. 국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로 수립되었다고 본 것은 사회 계약론자들의 입장으로, 국가를 지배 계급의 도구로 파악한 마르크스와 대비되는 견해이다.

53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로크이다. ③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더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자발적 동의를 통해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국가가 인간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라고 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②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보고 절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본 것은 홉스의 입장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로 보았으나,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한 심판자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④ 국가를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에게 행사하는 억압의 도구로 본 것은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⑤ 국가가 일반 의지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루소의 입장이다.

53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루소이다. ② 루소는 시민이 일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입법하고 그 법에 복종하는 자치적 정치 체제를 지향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현하고 시민의 번영과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규정하고 강력한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홉스의 입장이다. ③ 국가가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었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하는 자연의 산물이라고 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④ 국가가 통치자의 덕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공동체이며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고 본 것은 유교, 특히 맹자의 입장이다. ⑤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되며 이를 침해하면 저항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로크의 입장이다.

538 갑은 마르크스, 을은 공자이다. A에는 마르크스가 공자에게, B에는 공자가 마르크스에게 제기할 비판이 들어가야 한다. ④ 공자는 국가를 인륜이 실현되는 도덕 공동체로 보았으므로, 마르크스에게 국가를 지배 계급의 도구로만 파악하여 도덕 공동체로서의 국가 역할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국가의 정당성이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로크 등 사회 계약론자들의 입장이다. ② 마르크스는 계급이 철폐되고 국가가 소멸한 공산주의를 지향하였다. 따라서 국가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마르크스의 입장이 아니다. ③ 미래 사회에서 계급이 사라지면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는 주장은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⑤ 통치자가 덕치가 아닌 강력한 법과 형벌로 사회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 것은 법가의 입장이다.

53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ㄴ. 맹자는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민본주의에 입각하여 군주가 천명을 잃고 백성을 해치면 새로운 군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역성혁명을 인정하였으며, ㄷ. 군주는 백성을 진심으로 섬기는 위민(爲民)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국가를 소멸되어야 할 지배 착취의 산물로 본 것은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ㄹ. 국가의 정당성이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은 로크 등 사회 계약론자들의 입장으로, 천명과 민본주의에서 정당성을 찾은 맹자와는 구별된다.

54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로크이다. ㄴ. 로크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수립된다고 보았으며, ㄷ.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묵시적 동의로서 국가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삶이 고독하고 가난하며 잔인하고 짧다고 본 것은 홉스의 입장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비교적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로 보았다. ㄹ. 시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자치적 정치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 것은 루소의 입장이다.

54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홉이다. ③ 홉은 평화와 질서 등 국가가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유용한 혜택에서 국가의 정당성을 찾았으며, 국민은 국가가 유용성을 제공하는 한 국가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인간이 본성적으로 국가 안에서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② 국가가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④ 국가의 성립 근거를 개인들의 자발적 동의에서 찾은 것은 로크의 입장으로, 동의론을 비판하고 국가의 유용성을 바탕으로 복종 의무를 설명한 홉과 차이가 있다. ⑤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므로 국가의 정당성이 민본주의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은 맹자의 입장이다.

542 모범 답안 홉은 평화와 질서 등 국가가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유용한 혜택에서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찾았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최고선인 행복과 좋은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찾았다.

54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홉이다. ④ 홉은 국가가 질서 유지와 평화 등 구성원에게 유용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서 국가의 정당성을 찾았으며, 정치적 복종의 의무는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통치자가 백성을 위해 왕도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본 것은 맹자의 입장이다. ② 국가를 인간 본성에 따른 최고 단계의 공동체로 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③ 국가가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들의 자발적 동의로 성립했다고 본 것은 로크의 입장으로, 국가의 유용성을 중시한 홉의 관점과 구별된다. ⑤ 국가가 지배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소멸해야 한다고 본 것은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544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었지만 훌륭한 삶, 즉 최고선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만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정할 질문이 아니라 긍정할 질문이므로 A에 들어갈 수 없다.

545 제시된 글에서 '나'는 로크, '어떤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인간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로 파악하였다. 반면 로크는 국가를 자연의 산물이 아닌 구성원 간의 계약으로 수립된 인위적 산물로 보았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국가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계약으로 수립된 것임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국가가 지배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억압의 도구라는 것은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③ 인간은 국가 공동체 안에서만 최고선인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④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루소의 입장이다. ⑤ 국가가 천명에 따라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맹자의 입장이다.

✓ 개념 보충

국가 권위의 정당성 근거 비교

구분	천명론	본성론	동의론	혜택론
대표 사상가	맹자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흄
정당화 근거	백성의 뜻 = 하늘의 뜻	인간의 사회적 본성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과 유용성

546 갑은 맹자, 을은 로크이다. 맹자는 백성을 위한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④ 로크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행위 자체인 묵시적 동의도 국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악하므로 외적 규범으로 교정해야 한다고 본 것은 순자의 입장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② 맹자는 군주가 천명을 잃고 백성을 해치면 역성혁명을 통해 교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국가의 정당성이 인간의 타고난 자연적 본성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로크는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에서 국가의 정당성을 찾았다. ⑤ 맹자는 국가를 인간이 도덕적이고 훌륭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로 본 반면, 로크는 국가를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547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홉스이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목적이 구성원이 본성을 실현하고 최고선인 행복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았으나, 홉스는 국가의 목적을 시민의 안전 보장과 평화 유지에 두었다.

바로알기 | ① 군주가 덕을 잃어 구성원을 해친다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하지 않으며, 홉스 역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② 국가는 개인이 자연권을 보호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수립한 것인가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정한다. ④ 통치자가 인위적 규범을 없애고 자연에 따라 소규모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 것은 노자의 입장이다. ⑤ 국가는 지배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도구이므로 계급 철폐를 통해 소멸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548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로크이다.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인간의 사회적 본성이 실현되는 완전한 공동체로 보았다. ㄴ. 아리스토텔레스와 로크는 모두 국가가 구성원의 삶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ㄹ. 로크는 국가를 개인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에 의해 성립된 인위적 산물로 보았다.

바로알기 | ㄷ. 국가 권력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날 경우 시민이 저항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로크만의 입장이다.

549 모범 답안 맹자와 로크는 모두 통치자가 구성원의 권리와 안녕을 침해할 경우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두 사상가는 공통적으로 통치자의 교체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550 자유주의는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며, 국가의 역할은 이를 보호하는 데 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과 공권력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타인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를 자유로 보는 것은 페팃의 공화주의 관점이다. 자유주의, 특히 벌린은 자유를 타인의 간섭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자유로 이해한다. ② 자유주의는 공동선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한다. 또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③ 자유주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생명권, 자유권 등의 자연권을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따르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④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의 법과 정치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공화주의의 입장이다.

551 공화주의는 자유를 단순한 불간섭이 아니라 비지배(자의적 지배의 부재)로 이해한다. 따라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와 시민의 능동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자연권을 바탕으로 자유와 권리를 설명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공화주의는 자유와 권리가 공동체의 법과 시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 실현되고 유지된다고 본다. ② 공화주의는 개인의 사적 선택에 대한 존중만으로는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본다. 시민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와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③ 공익을 개인의 이익의 총합으로 보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공화주의는 공동체와 공적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의 참여를 통해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한다. ④ 자유를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로 이해하는 것은 벌린의 소극적 자유에 기반한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공화주의는 단순한 불간섭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한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비지배)를 자유로 본다.

552 자유주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는 자연권 사상을 토대로 한다. 반면 공화주의, 특히 페팃은 자유를 단순한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타인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인 비지배로서의 자유로 이해한다.

553 제시된 글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자유주의에서 개인은 공동체보다 앞서는 자율적·독립적 존재이며, 국가와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적 존재에 불과하다. ㄱ, ㄷ, ㄹ. 이에 따라 자유주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사적 영역을 우선시하며,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종교적·도덕적 가치관에 원칙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ㄴ. 공동선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앞세우는 것은 공화주의의 관점이다. 자유주의에서 공동선은 개인의 선이나 이익을 합산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54 아무리 효율적인 제도라도 정의롭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뜻임

>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 자유는 경제적 보상이나 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위해 훼손될 수 없으며, '옳음'은 '좋음'보다 앞선다.

옳음(정의, 기본적 자유)이 좋음(효용, 복지)에 우선한다는 뜻임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ㄴ. 롤스는 기본적 자유가 경제적 보상이나 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도 결코 훼손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제1원칙)이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제2원칙)에 항상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ㄹ.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모든 직위와 직책이 공정하게 개방될 때에만 허용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롤스는 행복이나 효용을 이유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거부하고,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보장을 강조하였다. ㄷ. 자유가 정치 공동체 안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은 공화주의의 관점이다. 롤스는 자유주의자로서 자유를 공동체 이전에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로 본다.

55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①, ③ 밀은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면 사회가 정체되며,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의 창의성과 발전에도 이바지한다고 강조하였다. ②, ⑤ 밀은 타인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사회가 개입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만 관련된 행위에는 도덕적 다수의 판단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도 개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④ 밀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개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였다.

55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페팃이다. 페팃은 자유를 단순한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자의적 지배의 가능성 자체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았다. ㄴ, ㄷ. 페팃은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며, 시민의 정치 참여가 그 핵심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자유가 외부의 간섭이 없는 소극적 상태에서 완전히 실현된다는 것은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 개념이다. 페팃은 실제 간섭이 없더라도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력이 존재하는 한 자유는 온전하지 않다고 보았다. ㄹ. 자유와 권리가 공동체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연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페팃은 자유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공동선으로 보았다.

55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벌린이다. ⑤ 벌린은 타인이나 집단의 간섭이 없는 상태 그 자체를 자유로 보고, 개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외부의 강제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공동체의 전통과 선을 개인의 선택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다. ②, ③, ④ 자의적 지배에 대항하는 정치 참여를 통해 자유를 획득하거나, 시민이 공공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자유가 실현되거나, 국가가 시민이 공동선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 공간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공화주의의 관점에 해당한다.

55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벌린이다. 벌린은 외부의 강제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자유로 보았으므로, ③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주민의 사적 권리와 종교적 가치관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자유주의에서 국가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원칙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며,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바로알기 | ① 소수 주민이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 생활 터전 이전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사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자유주의 입장에 어긋난다. ② 시민적 덕성을 발휘하여 재개발 사업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공화주의적 접근이다. ④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재개발 사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공동체주의적 접근이다. ⑤ 투표와 공론을 통해 재개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동선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공화주의적 접근이다.

55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비롤리이다. ④ 비롤리는 자유를 자의적 지배에 맞서 모든 시민이 함께 성취해 나가야 할 공동선으로 규정하였으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도록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이 공적 자유를 지키는 핵심 장치라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② 공동체의 선이 개인의 자유보다 언제나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다. 공화주의자인 비롤리는 공동체의 선이 개인을 일방적으로 압도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③ 타인의 간섭이 실제로 없는 상태만으로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것은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관점이다. 비롤리는 실제 간섭이 없더라도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력이 존재하는 한 자유는 위협받는다고 보았다. ⑤ 비롤리는 시민이 정치 참여를 통해 공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에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60 **모범 답안** 자유주의는 공동선을 개인이 추구하는 다양한 개인선의 총합으로 본다. 반면 공화주의는 공동선을 개인선의 총합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561 공화주의에서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공동선을 구현하며 시민적 자유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공적 공간이다.

바로알기 | ①, ③, ④, ⑤ 국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 자유를 공동체 형성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로 보는 것, 개인이 공동체에 앞서는 존재라는 것, 국가가 개인의 가치관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모두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562 갑은 공화주의, 을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①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실현이 법에 의한 지배로 가능하다고 본다. ③, ④, 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며, 개인이 지닌 인격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체제와 제도에 반대하며, 공동선보다 개인선의 추구를 중시한다.

바로알기 | ② 국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563 갑은 자유주의, 을은 공화주의의 입장이다. ⑤ 공화주의 입장에서 자유주의는 자유를 단순히 간섭이 없는 상태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실제 간섭이 없더라도 자의적 지배 가능성만으로 자유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② 공화주의에서 자유주의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에 해당한다. ③, ④ 자유주의에서 공화주의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에 해당한다.

564 갑은 공화주의, 을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공화주의에서는 공동선이 개인선의 총합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보고 공동선의 추구를 강조하며, ㄴ.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중시한다. 반면 자유주의에서는 공동선을 개인선의 총합으로 보고 공동선의 실현보다 개인선의 추구를 중시하며, ㄹ. 애국심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파악한다.

바로알기 | ㄱ. 공동선을 개인선의 총합으로 보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ㄷ. 공동선을 개인선의 총합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은 공화주의의 입장이다.

565 (가)는 공화주의, (나)는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공화주의는 사적인 삶보다 공화국에 참여하는 공적인 삶을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반면, ④ 자유주의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②, ③, ⑤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566 갑은 롤스(자유주의 입장)이다. 롤스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시민들이 공정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강조하며, ③ 국가가 특정한 종교적·도덕적 가치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롤스의 입장이다.

바로알기 | ①, ② 자유가 공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되거나, 정치 참여 자체가 자유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공화주의의 관점이다. ④, ⑤ 국가가 시민의 공동선 구현을 위한 필수적 공적 공간이라는 것과, 모든 시민이 공익을 추구하며 권력을 함께 견제해야 한다는 것도 공화주의의 입장에 해당한다.

567 갑은 롤스, 을은 비롤리이다. ② 롤스는 시민 정신과 공정감 등의 정치적 덕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공동체에 대한 정치적 참여를 모든 시민의 핵심 의무로 보지는 않았다. 반면 비롤리는 공화주의 입장에서 시민이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고 공공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핵심 의무로 보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롤스는 긍정, 비롤리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자유가 정치 참여를 통해서만 온전히 실현된다는 것은 공화주의가 긍정하는 내용이다. ③ 자유가 자의적 지배의 가능성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은 공화주의의 비지배의 자유 개념이다. ④, ⑤ 시민적 덕성이 자유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국가가 공동선 실현을 위한 필수적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도 공화주의만이 긍정하는 내용이다.

✓ 개념 보충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비교

구분	자유주의	공화주의
자유	공동체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	공동체 안에서 참여를 통해 실현
개인과 공동체	개인이 공동체에 앞섬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
공동선	개인 이익의 합	시민이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
국가의 역할	개인의 권리 보호 수단	공동선 실현을 위한 필수적 공간

568 **모범 답안** 마키아벨리는 자유로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공공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10 민주주의의 이상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 자본주의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개념 확인 문제 132쪽

569 대의 민주주의 570 심의 민주주의 571 시민 불복종
572 자본주의 573 수정 자본주의 574 직접 민주주의
575 참여 민주주의 576 고전적 자본주의 577 정부 실패
578 케인스

난이도별 필수 기출 132~139쪽

579 ④ 580 ⑤ 581 ⑤ 582 ⑤ 583 ②
584 해설 참조 585 ③ 586 ④
587 (가): 참여 민주주의, (나): 심의 민주주의 588 ③ 589 ④
590 ② 591 ③ 592 ① 593 ② 594 ②
595 경제적 불평등 596 ④ 597 ② 598 ② 599 ④
600 ④ 601 해설 참조 602 해설 참조 603 ④
604 ① 605 ④ 606 (가): 인, (나): 대동 사회, (다): 공동체
607 ④ 608 ② 609 ④ 610 ④ 611 ③

579 (가)에 들어갈 말은 민주주의이다. ㄱ.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 계약론은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민 주권, 권력 분립, 법치주의 등을 들 수 있다. ㄴ.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 사상을 실현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려는 이상과 이를 위한 제도까지 포함하는 정치사상 및 제도이다. ㄷ.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바로알기 | ㄹ.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 민주주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58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ㄴ. 밀은 자유주의자로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밀은 공동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정부 형태는 대표자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밀은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은 조그만 마을을 넘어서지 않는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581 갑은 로크, 을은 루소이다. ⑤ 이들은 모두 사회 계약론자로서, 정치 공동체는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계약을 통해 맺어진 인위적 산물이라고 주장하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이론을 제공하였다.

바로알기 | ① 로크에 따르면,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 ② 로크는 정부가 공동체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③ 루소는 주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으며, 분할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④ 구성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절대 군주에게 주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본 것은 홉스이며, 이 절대 군주를 리바이어던이라고 한다.

582 갑은 로크, 을은 루소이다. ㄴ. 로크와 루소는 모두 사회 계약론자로, 사람들이 불안정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로크는 사람들이 먼저 정치 사회를 구성한 뒤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으로 정부를 세운다고 보았다. 루소는 시민들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공동의 의사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정부는 주권을 대신 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보조적 기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ㄷ. 또한 국가는 오직 공공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로크는 입법부나 정부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정부는 공동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에 불과하므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공동체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권자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한다고 본 것은 홉스이다.

58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정치가는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였던 페리클레스이다. (1), (3) 페리클레스는 시민들이 직접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2) 시민의 역할을 투표를 통한 대표자 선출에 한정한 것은 슘페터이다. (4) 페리클레스는 간접 민주주의 또는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584 **모범 답안** (가): 대의 민주주의, (나): 엘리트 민주주의, (다): 정치적 소외감과 무관심이 증대될 수 있다.

585 (가)에 들어갈 말은 참여 민주주의이다. ㄴ. 참여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현대사회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ㄹ.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 각 개인이 처한 현실 여건의 차이로 모든 시민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기도 한다.

바로알기 | ㄱ.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도 전달될 수 있어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ㄷ. 참여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민주주의와 동일한 수준의 정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86 (가)에 들어갈 말은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배, 인민의 지배를 뜻하는 말로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 및 사상을 의미한다. ㄱ, ㄹ.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율성, 상호성, 관용, 책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민주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ㄴ. 사회적 차원에서는 민주적 제도의 마련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바로알기 | ㄷ. 소수의 대표자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엘리트 민주주의는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587 (가)에 들어갈 말은 참여 민주주의, (나)에 들어갈 말은 심의 민주주의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며,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한편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선호를 반영하고 공공성을 증진하며, 시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588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가 아니라 정치가의 지배'라고 주장하면서 시민의 역할을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자의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는 엘리트 민주주의의 입장

(가) 엘리트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정치가의 지배'이다. 시민은 정치 지도자 즉 정치 엘리트들만큼 정치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은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선출된 대표자가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정책 결정과 운영을 해 나가야 한다.

(나) 참여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배, 국민에 의한 지배'이다. 시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직접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정치를 운영해야 하지만,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상 대표자를 선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표자가 정치를 임의대로 하는 대표성의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참여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입장

(가)는 엘리트 민주주의, (나)는 참여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엘리트 민주주의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가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보지만,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한다. 엘리트 민주주의의 입장에 비해 참여 민주주의의 입장에서는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정도(X)'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려는 정도(Z)'는 높고, '정치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엘리트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정도(Y)'는 낮다. (가)의 입장과 비교한 (나)의 입장의 상대적 특징은 그림의 ㉢이다.

589 (가)에 들어갈 말은 심의 민주주의이다. ㄱ, ㄹ.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자신의 선호를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으로 심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ㄴ. 심의 민주주의는 사회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공적 심의를 중시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바로알기 | ㄷ. 심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 개념 보충

대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비교

대의 민주주의	의미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치 활동을 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장점	•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 극복 • 다양한 의견을 정제하여 효율적인 의사 결정 가능
	한계	• 소수 의견 배제 가능성으로 인한 사회 통합 저해 • 시민의 정치적 소외감과 정치적 무관심 증대
참여 민주주의	의미	다수의 시민이 공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장점	• 시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범위 확대 • 소수의 의견도 전달 가능
	한계	•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음 •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려움
심의 민주주의	의미	시민이 직접 공적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장점	• 정책 결정자가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시민들 간 소통이 활성화되고 사회적 유대가 강화될 수 있음
	한계	• 시민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심의가 왜곡될 수 있음 •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면 심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적절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59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소로이다. ㄱ. 소로는 불의한 법에 즉각적으로 불복종함으로써 정의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ㄷ. 소로는 많은 사람들이 준법을 위해 정의를 저버리고 살아간다고 지적하면서, 불의한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바로알기 | ㄴ, ㄹ. 롤스의 입장이다.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를 개인의 양심에 두었다.

591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보았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싱어는 공리주의에 근거하여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②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불의한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변혁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행위로 보았다. ④ 싱어는 불의한 모든 법에 대한 즉각적 불복종을 주장하지 않았다. ⑤ 롤스와 싱어는 모두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92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사회적 다수의 공적 정의관을 근거로 시민 불복종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결과 즉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ㄱ.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ㄴ. 롤스와 싱어는 모두 시민 불복종이 공개적·비폭력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시민 불복종은 정의를 실현하고자 일부러 법을 어기는 위법 행위이다. ㄹ. 롤스와 싱어의 공통 입장에 해당한다.

593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제, 경제적 자율성,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핵심 원리로 한다. ② 따라서 개인은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는 사회주의의 특징이며,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③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윤 추구보다 공동체의 연대를 우선시하지 않는다. ④ 국가의 경제 계획에 따라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계획 경제 또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특징으로, 자본주의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중시한다. ⑤ 자본주의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핵심 원리로 하며,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594 자본주의에서는 ① 개인의 능력, 재산, 교육 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③ 이윤과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물질만능주의와 가치 전도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④ 또한 부의 세습, 독과점, 정경 유착 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⑤ 자본주의는 생산성과 이윤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수단화하여 인간 소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바로알기 | ②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개인의 창의성과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물질적 풍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한계가 아니라 장점에 해당한다.

595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경쟁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의 격차가 확대되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는 사회 양극화와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하는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한계로 지적된다.

596 (가)에 들어갈 말은 자본주의이다. ㄱ.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ㄴ. 자본주의에서는 생산 수단을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ㄷ.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경제 활동을 한다.

바로알기 | ㄹ.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597 그림의 사상가는 고전적 자본주의를 강조한 스미스이다. ㄱ, ㄹ. 그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 사회 전체의 부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되는 자유방임주의 경제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ㄴ, ㄷ. 케인스의 입장이다. 유효 수요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할 의사와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의미하며, 케인스는 유효 수요를 창출하여 생산과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케인스는 공공 투자와 완전 고용 정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시장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59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케인스이다. 케인스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 통제, 즉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ㄴ. 케인스는 정부의 개입 없이는 시장이 저절로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ㄷ. 시장 실패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공공 투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 것은 케인스가 아니라 스미스이다. ㄹ. 개인의 이익 추구가 시장에서 저절로 사회 전체의 부나 국가의 부와 조화를 이룬다고 본 대표적인 사상가는 스미스이다.

599 제시된 글은 하이에크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다. ①, ②, ⑤ 신자유주의는 수정 자본주의 시행 결과 나타난 정부의 비효율성,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 등과 같은 정부 실패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축소 및 시장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였다. ③ 또한 공공 복지 제도 확대와 같은 정부의 개입이 정부의 비효율성과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는 복지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바로알기 | ④ 신자유주의는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의 혼합을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자 하이에크는 계획 경제가 노예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하였다.

60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미스이다. (1) 그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국부의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았으며, 국가의 간섭이 없어야 각 개인의 이익이 증대되고 국가의 부도 증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3), (4) 스미스는 각 개인이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윤 추구 활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부가 증진하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2) 스미스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만 각 개인의 이윤 추구가 정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601 **모범 답안** (가): 보이지 않는 손, (나): 국방과 치안 질서 유지

602 **모범 답안** (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 (나): 수정 자본주의

603 갑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시장 실패의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④ 하이에크는 정부 실패 문제의 극복을 위한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 보장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케인스는 시장의 자동 가격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장 실패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② 케인스는 사회주의 채택을 주장하지 않았다. ③ 하이에크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에 반대하였다. ⑤ 케인스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정책을 주장하였다. 하이에크 또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604 갑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이다. ㄱ, ㄴ. 케인스는 공공사업이나 복지 정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하여 불황과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통해 자유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ㄷ. 하이에크에 따르면, 국가의 경제 계획을 통한 시장 개입은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 ㄹ. 공기업의 민영화, 복지 정책 감축, 노동 시장의 유연화, 시장의 자율성 보장 등은 하이에크가 강조한 신자유주의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다.

✓ 개념 보충

고전적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비교

고전적 자본주의	•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인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강조 •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자유방임주의 경제학 • 한계: 시장 실패 발생 • 대표적 사상가: 스미스
수정 자본주의	• 시장 실패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 강조 • 유효 수요 창출을 통한 불황과 실업의 문제 극복 강조 • 한계: 정부 실패 발생 • 대표적 사상가: 케인스
신자유주의	• 정부 실패 극복을 위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유로운 경쟁, 시장 경제의 원리 강화 강조 •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 정부 기구의 축소 등과 같은 정책 강조 • 한계: 시장 실패와 같은 문제를 다시 초래할 수 있음 • 대표적 사상가: 하이에크

605 ① 민주 사회주의는 빈부 격차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또한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전제하지 않으며, 주요 부문에서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그리고 ③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보장 확대와 완전 고용을 주장한다. ⑤ 민주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자유로운 의회 활동 중심의 점진적 사회 개혁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④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 계급 없는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강조하는 사상은 마르크스주의이다.

606 유교에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의미의 견리사의를 강조하였다. 즉 이익보다 윤리를 중시하는 윤리적 경제 행위를 지향하는 것이다. 특히 공자가 강조한 대동 사회는 사적 이익 추구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마음 즉 인(仁)을 강조하는 공동체로서 이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60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묵자이다. 묵자는 겸애교리 즉,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상생하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묵자는 천하의 혼란이 자신과 자국을 먼저 사랑하는 차별적 사랑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익을 나누는 겸애교리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묵자는 겸애와 교리가 양립할 수 있으며 서로 일치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② 묵자는 자신과 타인, 자국과 타국을 차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동등하게 사랑하는 겸애를 강조하였다. ③ 묵자는 존비친소를 구분하는 분별적 사랑인 인(仁)을 비판하고 겸애(兼愛)를 주장하였다. ⑤ 묵자는 자신과 자국의 이익을 버리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60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금은보화를 귀하게 여기면 백성이 그것을 가지려고 욕망에 몰입되고 마침내 도둑질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가 사상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지나친 물질주의나 빈부 격차,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② 노자를 비롯한 도가 사상에서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하는 허정(虛靜)의 수양법을 통해 욕망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도가 사상에서는 사회적 지위나 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③ 도가 사상에서는 물질적 가치나 물질적 풍요로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지 않으며,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 ④ 도가 사상에서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지 않으며 특히 노자는 통치자가 무위의 정치를 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노자는 사회 전체의 부나 소득 증가를 주장하지 않았다.

60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마르크스이다. ㄱ, ㄴ, ㄷ.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착취당하고 억압받았다고 비판하였으며, 계급 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승리함으로써 자본주의는 붕괴되고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필요에 따른 분배가 실현되고 노동의 본질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ㄹ. 마르크스는 사유 재산, 계급, 국가가 소멸된 공산 사회를 이상 사회로 보았으며 여기에서 필요에 따른 분배가 실현되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균등한 분배'를 지향한 것은 아니다.

610

케인스: 케인스는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업 문제 해결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갑(케인스): 정부는 소비 성향 및 투자 성향을 조정하기 위한 각종 재정 정책들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다양한 공공 정책을 펼친다면 민간의 부족한 유효 수요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기업가의 투자에서 비롯되는 불안정성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 사회주의: 민주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평등을 강조함

을(민주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사적 이윤보다 우선하는 제도를 통해 자본주의를 대체하고자 한다.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경제적 목표는 완전 고용, 생산 증대, 생활 수준의 향상, 사회 보장, 그리고 소득과 재산의 공정한 분배이다.

갑은 케인스, 을은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이다. 케인스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와 고전적 자본주의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수정 자본주의를 주장하였다. 민주 사회주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이러한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사적 이윤의 추구보다 우선시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바로알기 | ① 케인스는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주장하였다. ② 케인스는 시장의 자동 가격 조절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아 자원의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시장 실패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강조하였다. ③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강조한 사상가는 마르크스이다. ⑤ 케인스는 공공 정책 계획과 추진,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을 강조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입장이지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611 갑은 케인스, 을은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이다. 케인스는 시장 실패의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와 경제 정책을 강조하였다. ㄷ. 민주 사회주의는 급진적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 개혁을 통한 경제적 평등 실현과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ㄹ. 민주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되 일정 부분 사적 소유를 인정하였으며, 완전 고용, 보다 높은 생산, 생활 수준의 향상, 사회 보장 및 소득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수정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민주 사회주의 또한 완전 고용을 지향하였으며 불평등한 분배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였다. ㄴ. 민주 사회주의는 사적 소유를 부정하지 않았다.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소 공업 등에 있어서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였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 09~10강 | 140~143쪽

612 ②	613 ④	614 ③	615 ⑤	616 ②	617 ③
618 ③	619 ④	620 ③	621 ③	622 ④	623 ①
624 ②	625 ③	626 ②	627 ⑤		

61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② 그는 국가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민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적 부와 공정한 분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③ 무위의 통치를 강조한 사상가는 동양 사상가 노자이다. ④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습관을 길러 영혼의 탁월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자연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613 갑은 공자, 을은 노자이다. 공자가 주장한 대동 사회는 인륜을 실현하고 가족의 질서가 확장된 공동체이다. 노자가 주장한 소국과민은 무위의 다스림을 통해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는 공동체이다. ④ 노자는 통치자가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 즉 무위의 다스림을 행함으로써 백성이 스스로 순박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공자가 아니라 노자의 입장이다. ② 공자는 풍요롭지 않음을 걱정하기보다는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노자는 백성들이 재물에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고 무지와 무욕의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공자만의 입장이다.

61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로크이다. ㄷ. 로크는 자연 상태가 비교적 평화롭기는 하나 생명, 자유, 재산권 보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개인은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또한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도 시민의 정치적 복종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로크를 비롯한 사회 계약론 사상가들은 국가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계약에 의한 산물이라고 보았다. ㄴ. 로크는 정부가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권 보장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자의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면 인민은 정부를 해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61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화주의자인 비롤리이다. 그는 역사적 기억을 통해 시민적 덕성을 기르고,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⑤ 비롤리는 시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볼 것이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시민적 책임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② 비롤리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나 개인의 욕구 충족을 중시하기보다 시민적 덕성을 기르고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③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칸트의 입장과 관련된다. ④ 비롤리는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사회 전체의 행복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616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전쟁 상태로 간주하고, 이러한 불안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이에 따라 그는 강력한 국가 권력과 절대 군주의 권한을 옹호하였다. 반면 로크는 자연 상태를 비교적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보았지만, 자연법을 집행할 공정한 권위가 없어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립하여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 존재하고 인간은 자연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③ 로크는 자연 상태를 비교적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라고 보았으나 공평한 재판관의 부재로 불안한 상태이기도 하다고 보았다. ④ 로크는 국가 권력의 분립, 즉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하였다. ⑤ 절대 군주제는 홉스만의 주장이다.

61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벌린이다. ③ 벌린은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적극적 자유가 아닌, '~으로부터의 자유' 즉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벌린은 타인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간섭이 최소화되는 자유를 추구한 것이지 국가의 소멸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② 타인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는 것은 공화주의의 입장이다. ④ 벌린은 공동선 존중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우선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자유의 의미이다.

61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현대 공화주의자 페팃이다. 페팃은 비지배로서의 자유, 즉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를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하였다. ③ 페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에 복종함으로써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본 벌린의 입장이다. ② 페팃은 타인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를 진정한 자유라고 규정하였다. ④ 페팃은 법에 의한 간섭,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⑤ 페팃은 진정한 자유가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라고 본 것이지 모든 지배와 모든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법에 의한 간섭, 법에 의한 지배를 긍정한다.

✓ 개념 보충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비교

구분	자유주의	공화주의
핵심 입장	• 개인의 자유는 타인이나 국가가 침해하거나 강제로 박탈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임 • 개인의 권리와 정치적 의무가 충돌할 때 개인의 권리가 우선시됨 •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	•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정치적 참여 및 공동체의 법과 제도적 노력을 통해 만들어짐 • 시민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서 공공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자유의 개념	• 대표적 사상가: 벌린 • 불간섭의 자유, 소극적 자유: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 국가나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음	• 대표적 사상가: 페팃 • 비지배로서의 자유: 타인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 자유의 실현은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 가능하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를 누릴 수 있음

619 (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나)는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 공화주의 입장이다. ④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자유는 '비지배의 자유'로 표현되는데, 이는 자의적 지배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바로알기 | ①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절대적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② 자유주의에서는 법의 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의 자유는 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다. ⑤ 자유주의에서는 '~로부터의 자유'를, 공화주의에서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한다.

620 (가)에 들어갈 말은 참여 민주주의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에 기여한다. ㄱ. 참여 민주주의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배, 국민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본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ㄷ. 그러나 시민의 정치 참여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못하고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바로알기 | ㄴ. 참여 민주주의는 심의 민주주의와 함께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행해지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즉, 대표성의 위기 문제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주주의의 형태이다.

62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람은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였던 페리클레스이다. 그의 연설문에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추구했던 민주주의의 이상, 특히 직접 민주주의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ㄷ.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정치 공동체의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였으며, ㄹ. 시민이 직접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을 집행하기도 하면서 정치에 직접 참여하였다.

바로알기 | ㄱ, ㄴ. 정치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일임되어야 하며 시민의 역할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엘리트 민주주의를 주장한 슘페터의 입장이다.

622 갑은 소로, 을은 롤스이다. 소로는 불의한 법에 대해 개인의 양심에 따라 정의에 대한 존중심을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불복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롤스는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을 바탕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 불복종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존중하면서 불의한 법이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소로는 불의한 법에 대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양심과 정의감에 따라 즉각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를 개인의 양심에 두었다. ③ 롤스는 체제의 변혁을 시민 불복종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⑤ 롤스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소로는 불의한 법이나 정책에 대한 즉각적 불복종을 주장하였다.

62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ㄱ.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부정의한 모든 법이 아니라 공공의 정의감에 위배되는 심각한 정도의 부정의한 일부 법이나 정책이라고 보았다. 또한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 자체가 아니라 법이나 정부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ㄴ. 시민 불복종의 주체는 체제 자체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목적에는 정부 정책의 개혁도 포함된다. ㄹ. 롤스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차등의 원칙 위반은 그 근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624 갑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보는 정도(X)'와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 지출의 확대를 강조하는 정도(Y)'는 갑(케인스)이 더 높고,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대응해 시장 자율성의 확대를 강조하는 정도(Z)'는 을(하이에크)이 더 높다. 따라서 을의 상대적 위치는 ㉡이다.

625 (가)는 유교 사상, (나)는 불교 사상, (다)는 도가 사상의 입장이다. ① 공자는 극기복례가 바로 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② 석가모니는 물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에 대한 탐욕이나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④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 모두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 등에 대한 집착이 개인의 인격 수양과 사회 전체의 조화에 해악을 가져온다고 본다. ⑤ 또한 불교 사상과 도가 사상 모두 집착을 버리고 바람직한 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③ 노자는 백성들이 무지와 무욕의 상태에 있도록 해야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626 갑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와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하였다. 특히 ② 케인스는 유효 수요 부족 문제가 시장의 작동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인 낙관론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정부가 공공 정책과 다양한 개입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케인스는 자본주의 사상가로, 국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③, ④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공공 정책 시행은 케인스가 강조한 내용이다. ⑤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사회주의로의 전환이나 이행을 주장하지 않았다.

627 갑은 스미스, 을은 마르크스, 병은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이다. 스미스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자동 가격 조절 기능을 신뢰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사유 재산, 계급, 국가가 모두 소멸된 공산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 사회주의는 점진적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⑤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는 스미스의 입장에서 민주 사회주의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민주 사회주의는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바람직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되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소 공업 등의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였다.

실전 대비 해설

실전 대비 Ⅰ. 동양 윤리사상 1회 146~150쪽

628 ④	629 ②	630 ④	631 ⑤	632 ②	633 ④
634 ②	635 ④	636 ⑤	637 ①	638 ①	639 ③
640 ④	641 ②	642 ④	643 ③	644 ①	645 ④
646 ②	647 ⑤	648 ①	649 해설 참조		

628 그림의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서 찾았다. ㄱ. 공자는 통치자가 먼저 덕성을 갖추어 백성을 이끄는 덕치를 강조하였고, ㄷ. 정명(正名)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ㄹ. 인의 실천이 가족 관계에서 출발하여 사회로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순자의 입장이다. 공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인간의 악한 본성이 아닌 도덕성과 예의 상실에서 찾았다.

62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① 공자는 인의 실천이 부모와 형제로부터 시작하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③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서(恕)를 인의 실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④ 인은 예를 통해 발현되어야 하며, 예는 인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⑤ 공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명분에 맞는 덕을 갖추고 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② 공자는 덕과 예로 백성을 교화하는 덕치를 강조하였으며, 법과 형벌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백성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고 비판하였다.

63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ㄱ. 공자는 관계의 가까움 등을 고려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인이라고 보았으며, ㄴ. 개인의 수양인 수신(修身)을 바탕으로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ㄷ. 정명(正名)을 통해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역할에 걸맞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ㄹ. 도가의 입장이다. 공자는 도덕규범인 인과 예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631 맹자는 ㉠, ㉡ 모든 인간이 지닌 사단의 확충을 통해 사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고, ㉢ 구방심과 집의를 통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 백성의 항산이 항심의 전제가 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 맹자는 군주가 인의(仁義)를 저버리고 백성을 해친다면 이미 천명을 잃은 것이므로 백성이 새로운 군주를 세울 수 있다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주장하였다.

632 맹자는 ② 백성이 일정한 생업인 항산(恒産)을 가질 때 변치 않는 도덕적 마음인 항심(恒心)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인간의 본성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본 것은 고자의 성무선악설이다. ③ 맹자는 사단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후천적 교화 없이도 사단은 드러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맹자는 백성의 경제적 문제인 항산을 보장하는 것이 왕도 정치의 기본이라고 보았다. ⑤ 호연지기를 갖춘 이상적 인간상은 대장부(大丈夫)이다. 진인은 장자가 제시한 이상적 인간상이다.

633 ④ 호연지기는 집의(集義), 즉 의로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기를 수 있으며, 맹자는 호연지기를 갖춘 이상적 인간을 대장부(大丈夫)라고 하였다.

바로알기 | ① 호연지기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집의를 통해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② 호연지기는 사단 중 시비지심을 형성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는 집의를 통해 길러진다. ③ 호연지기를 제시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한 사상가로서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한 마음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⑤ 성인이 제정한 외적 규범을 따름으로써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순자의 화성기위(化性起僞)이다.

63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에 따르면 ② 백성은 일정한 생업인 항산(恒産)이 있어야 변치 않는 도덕적 마음인 항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무위자연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노자이다. ③ 순자의 입장이다. 순자는 성왕이 제정한 예를 통해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성무선악설을 주장한 고자의 입장이다. ⑤ 법가의 입장이다. 특히 법가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한비자는 법, 술, 세를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35 갑은 공자, 을은 묵자이다. ④ 공자는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화합하게 하고 인격 완성에 이바지한다고 보았던 반면에 묵자는 예악을 비판하며 근검절약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공자가 묵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③ 묵자에 따르면 군주는 천하의 이익을 마련하고, 천하의 해로움을 없애야 한다. 또한 묵자는 실리주의에 입각하여 허례허식을 비판하였는데, 예악은 사람의 시간을 빼앗고 재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묵자의 입장에서 공자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② 통치자가 덕보다 엄격한 상벌로 백성의 행동을 규율해야 한다고 본 것은 법가의 입장이다. 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동등하게 베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묵자의 겸애(兼愛)이다.

636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⑤ 맹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도덕 감정인 사단을 확충하여 이상적 인간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고, 순자는 예를 통한 인위적 노력으로 누구나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두 사상가 모두 후천적 수양과 노력을 통해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바로알기 | ① 맹자는 선천적 도덕 감정의 확충을 강조하였다. 타고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순자이다. ② 맹자는 백성이 일정한 생업인 항산을 가질 때 변치 않는 도덕적 마음인 항심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순자는 인간이 예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고 보았다. ④ 순자는 하늘을 자연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63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① 주희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격물치지(格物致知)와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거경(居敬)을 수양의 핵심으로 강조하였으므로 매일 경전을 탐구하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며 마음을 다잡아 수양하는 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바로알기 | ② 불선한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즉시 바로잡으려는 것은 앎과 실천이 하나라는 왕수인의 지행합일(知行合一) 입장에 부합한다. ③ 인위적 규범을 내려놓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도가의 입장이다. ④ 마음속 욕망을 씻어 내어 도(道)에 통하고자 하는 것은 장자의 심재(心齋) 수양에 해당한다. ⑤ 팔정도의 실천으로 번뇌를 제거하여 해탈에 이르고자 한 사상가는 불교의 석가모니이다.

63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주희는 ② 심통성정(心統性情)을 주장하여,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통괄하며 본성이 발하여 감정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또한 ③ 본연지성은 순수한 천리로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며 인의예지의 사덕을 지니므로 순선하다고 보았다. ④ 주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본연지성은 같으나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므로 기질지성은 다르다. ⑤ 주희는 기질지성은 기질의 맑고 탁한 상태에 따라 선하거나 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질을 바로잡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수양을 통해 기질을 맑게 함으로써 본래부터 내재된 본연지성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수양의 목표이다.

바로알기 | ① 주희의 입장에 따르면 기질지성이 변화하여 본연지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부여한 이 그 자체로서의 본성을 본연지성이라고 하고, 본연지성이 기질 속에 들어 있는 것을 기질지성이라고 한다. 본연지성이 순수한 이가 드러난 순선한 것이라면, 기질지성은 이와 기가 혼재되어 선할 수도,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양으로 감정과 욕구를 통해 드러나는 기질을 변화시켜야 본연지성이 드러날 수 있다.

639 제시된 글의 '나'는 왕수인이고, '어떤 학자'는 주희이다. ③ 왕수인은 격물치지를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아 양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에 주희는 격물치지를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지극히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왕수인의 격물치지는 주희가 외적 사물 탐구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마음 안의 양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내적 수양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바로알기 | ① 마음은 이(理)와 기(氣)의 결합체로서 본성과 감정을 통괄하는 것임을 간과한다고 본 것은 주희의 심통성정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② 인간의 선천적인 도덕 지각 능력인 양지는 배우고 생각해야 얻어진다고 본 것은 왕수인의 입장이 아니다. 왕수인에 따르면 양지는 선과 악을 즉각적으로 가려내고, 이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④ 주희와 왕수인 모두 지식의 확충은 반드시 구체적인 실천이 완료된 후에야 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다. ⑤ 사물에 내재된 객관적 이치를 먼저 파악해야 마음의 올바름을 얻을 수 있다고 본 사상가는 주희이므로 주희가 왕수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64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ㄷ. 왕수인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여 참된 앎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르며, ㄱ. 불선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불선을 행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ㄹ. 격물치지를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아 양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바로알기 | ㄴ. 양지는 후천적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도덕적 앎이다.

641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② 주희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외적 공부를 강조한 반면에 왕수인은 마음 밖에서 이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희가 왕수인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도덕적 앎과 실천은 본래 하나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③ 마음 안의 양지(良知)를 실현하는 것이 수양의 핵심이라고 본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④ 본성이 곧 천리라고 본 사상가는 주희이다. ⑤ 주희와 왕수인 모두 누구나 사사로운 욕구를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면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개념 보충

성리학과 양명학 비교

구분	성리학(주희)	양명학(왕수인)
핵심 사상	성즉리: 본성이 곧 이치임	심즉리: 마음이 곧 이치임
수양 방법	• 격물치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지극한 앎을 이룸 • 거경궁리: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본성을 함양하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함	격물치지: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서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됨
앎과 행함의 관계	• 지행병진: 도덕적 앎과 도덕적 행함은 병행되어야 함 • 선지후행: 도덕적 앎이 도덕적 행함보다 먼저임 • 행중지경: 도덕적 행함이 도덕적 앎보다 중요함	지행합일: 도덕적 앎이 곧 도덕적 행함임 → 도덕적 앎은 도덕적 행함의 시작이고, 도덕적 행함은 도덕적 앎의 완성임
공통점	• 사사로운 욕구를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존천리거인욕을 강조함 • 수양을 통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봄	

64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ㄱ. 노자는 인의와 같은 인위적 도덕규범이 강조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본래의 순수함을 잃게 된다고 보았으며, ㄷ. 마음을 텅 비우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허정(虛靜)의 수양을 통해 도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ㄹ. 성인은 공적을 세우려는 의도 없이 만물을 이롭게 하고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노자에 따르면 도는 일정한 형체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언어로 규정하거나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노자는 학문적 탐구가 아니라 백성들이 무위자연, 무지, 무욕의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64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① 도가 만물에 두루 존재하며 만물이 도를 본성으로 삼는다고 보았다. ②, ⑤ 장자는 제물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좌망(坐忘)과 심재(心齋)를 제시하였다. 좌망은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심재는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장자는 ④ 자기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고, 공적과 명예에 얽매이지 않으며, 도와 합일되어 있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도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사람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보았다.

바로알기 | ③ 장자는 인의와 예악과 같은 인위적 도덕규범의 실천이 아닌 도와의 합일을 통해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시비와 귀천의 분별을 초월하여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제물(齊物)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644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A에는 장자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 B에는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② 인위적 분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의와 예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본 것은 유가의 입장이다. 장자는 인의와 예악 자체가 인위적 분별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③ 도의 관점에서 만물 사이에 귀천이 없다고 본 것은 장자의 입장에 부합한다. ④ 세속을 초월하여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장자의 입장에 부합한다. ⑤ 제물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 것은 장자의 입장에 부합한다. 장자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편견을 버리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제물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장자는 제물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좌망(坐忘)과 심재(心齋)를 제시하였으므로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645 갑은 순자, 을은 노자이다. ㄱ, ㄴ. 순자는 통치자가 덕과 예를 바탕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예치를 강조하였다. 예치에서는 예(禮)를 기준으로 상하(上下), 존비(尊卑), 친소(親疏), 귀천(貴賤)을 구분하며, 타고난 신분보다 덕과 능력을 중시하여 이에 따라 지위와 직분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노자는 만물의 차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았으며, 인위적인 분별과 욕망에서 벗어나 무위자연에 따라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ㄷ. 노자만의 입장이다. 순자는 성인이 제정한 예(禮)가 사회 혼란을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64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① 석가모니는 팔정도를 중도의 수행이라고 하여 극단적 쾌락과 고행을 모두 경계하였다. ③ 석가모니는 무명으로 인해 집착이 생기고, 집착으로 인해 괴로움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무명과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소멸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태도는 적절하다. ④, ⑤ 불교에서는 나와 다른 존재가 연결되어 있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한다면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마침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② 석가모니는 연기의 이치를 바탕으로 모든 존재가 여러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되므로 모든 존재에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는 무아(無我)를 강조하였다.

647 제시된 글은 대승 불교의 입장을 보여 준다. ㄷ. 대승 불교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과 중생 구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강조하였으며, ㄴ, ㄹ.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을 바탕으로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자비의 실천을 모든 생명체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번뇌를 소멸하여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수행자인 아라한(阿羅漢)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삼은 것은 부파 불교이다. 대승 불교는 깨달음과 중생 구제를 함께 추구하는 보살(菩薩)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

648 (가)는 대승 불교, (나)는 부파 불교이다. ㄱ. 대승 불교는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수행자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깨달음도 중시한다. ㄹ. 대승 불교와 부파 불교는 모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계승하였으므로 대승 불교와 부파 불교 모두 연기 사상을 받아들인다. 즉 두 교파 모두 연기의 이치를 깨닫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ㄴ. 부파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였으며, 수행자가 자신의 내면에 몰입하여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ㄷ. 대승 불교만의 입장이다. 대승 불교에서는 위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菩薩)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삼았는데,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여섯 가지 수행의 덕목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바라밀을 제시한다.

649 모범 답안 (가)는 자비이다. 자비 사상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함으로써 타인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보시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자비의 실천이 모든 생명체로 확장된다면 현대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실전 대비 Ⅰ. 동양 윤리사상 2회 151~155쪽

650 ④	651 ③	652 ⑤	653 ③	654 ⑤	655 ④
656 ⑤	657 ③	658 해설 참조		659 ①	660 ③
661 ⑤	662 ①	663 ③	664 ④	665 ①	666 ⑤
667 ②	668 ②	669 ③	670 ②		

65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그는 인(仁)의 실천을 강조하였는데, ㄷ. 인은 인간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사랑의 정신과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또한 ㄱ. 공자는 덕과 예를 바탕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덕치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ㄹ.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않는 서(恕)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남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충(忠)을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ㄴ. 공자는 사욕을 이기고 예를 따르는 것이 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예는 인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65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③ 공자는 사회 질서가 혼란해진 원인을 인간다운 도덕성과 예의 상실에서 찾았으며, 사욕을 절제하고 예를 회복하는 극기복례(克己復禮)와 도덕적 수양의 강화를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①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된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본 것은 불교의 입장이다. ②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소박한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 본 것은 도가의 입장이다. ④ 이기적 욕망을 억제할 법과 처벌이 부족하므로 강력한 상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것은 법가의 입장이다. ⑤ 차별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본 것은 묵자의 겸애(兼愛)에 해당한다.

65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을 타고난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으며, ① 구체적인 수양 방법으로 욕망을 줄이는 과욕(寡欲)과 놓아 버린 본심을 되찾는 구방심(求放心)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② 의로운 일을 꾸준하게 실천함으로써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개인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 낼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③ 맹자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며 군주는 백성들이 도덕적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④ 군주가 인의를 저버리고 백성을 해친다면 새로운 군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⑤ 인간의 본성이 선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진술은 성무선악설을 주장한 고자의 입장에 해당한다. 고자에 따르면 선악은 후천적인 환경과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다.

653 갑은 공자, 을은 맹자이다. ㉡ 공자는 춘추 시대의 사회적 혼란이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개인의 내면적 도덕성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 내면적 도덕성인 인과 외면적 사회 규범인 예를 강조하는 사상을 정립하였다. 한편 ㉢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사단을 확충하고 올바르게 키워 나가면 누구나 사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맹자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정치사상도 전개하였는데, ㉣ 군주가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며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으며, 강한 힘과 부국강병책에만 의존하는 당시의 정치를 비판하고, 나아가 백성을 저버린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는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 공자는 춘추 시대의 사회 혼란이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인과 예를 통해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654 갑은 공자, 을은 순자이다. ⑤ 공자는 덕과 예를 통한 교화를 중시하였다. 순자는 예로써 욕구를 절제하고 사회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두 사상가 모두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면 사회 구성원을 다스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공자는 인의와 같은 도덕규범으로 사회 혼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② 통치자가 엄격한 상벌로 백성을 규율해야 한다고 본 것은 법가의 입장이다. ③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는 백성의 선한 본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④ 순자는 통치자가 선한 본성을 함양하여 백성이 자연스럽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655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ㄱ. 순자는 하늘을 자연 현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기적 본성을 지녔을지라도 예를 통한 인위적 노력으로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맹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도덕 감정인 사단의 확충을 통해 인의예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ㄹ. 순자와 맹자 모두 후천적 수양과 노력을 통해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바로알기 | 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으나, 예를 통한 교화로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덕적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순자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65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ㄷ. 주희는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와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을 주장하여 이와 기는 현실에서 분리될 수 없으나 개념적으로는 뒤섞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ㄹ. 이일분수(理一分殊)를 바탕으로 하나의 이(理)가 만물 각각에 온전히 내재하며, 사물 간의 차이는 기(氣)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주희는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통괄한다고 보았으나, 감정이 발하여 본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발하여 감정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ㄴ. 기질지성은 이(理)와 기(氣)가 결합된 본성으로, 순수한 이(理)만을 가리키는 것은 본연지성이다.

657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그는 앎과 행함의 관계와 관련하여 도덕적 앎과 도덕적 행동은 본래 하나라는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왕수인은 ③의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마음에 사욕이 가려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천리가 드러난다고 본 사상가는 왕수인이므로 왕수인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격물(格物)이란 양지를 구체적인 사물에서 실현하여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본 사상가는 왕수인이므로 왕수인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왕수인에 따르면 양지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따라서 왕수인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도덕적 이치는 마음 밖의 사물을 경건하게 탐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본 사상가는 주희이므로 왕수인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658 **모범 답안**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그는 '격물'을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아 마음의 본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치지'를 양지가 아는 바를 그대로 행하는 것, 즉 치양지(致良知)로 보았다. 즉 격물치지란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서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659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① 왕수인은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여 이치는 마음 안에 갖추어져 있으므로 마음 밖의 사물에서 이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반면에 주희는 사물의 이치를 하나씩 궁구하는 격물치지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왕수인이 주희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②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이 수양의 핵심이라고 본 것은 주희와 왕수인이 공통 입장이므로 비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③ 왕수인이 주희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다.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을 논한 사상가는 주희이며, 그는 도덕적으로 행위하려면 기질지성이 아닌 기질을 바로잡아 본래의 순선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선지후행(先知後行)을 강조한 주희의 입장이다. ⑤ 주희는 앎과 실천의 관계에서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앎과 실천은 서로 의존하는데, 중요도를 따지면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순서를 나눌 때는 앎이 먼저라고 보았다.

660 ㄴ. 주희는 이와 기의 관계를 현실에서는 떨어질 수 없으나, 개념적으로는 섞일 수 없다고 보았다. ㄹ. 주희와 왕수인 모두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에 따르는 존천리거인욕을 수양의 목표로 삼았다.

바로알기 | ㄱ. 왕수인은 지행합일을 주장하여 불선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불선을 행한 것이라고 보았다. ㄷ. 순서상 도덕적 앎을 충분히 갖춘 뒤에 도덕적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661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지행합일을 주장하여 불선한 의도를 마음속에 지니는 것 자체가 이미 악한 행위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주희는 앎이 먼저이고 실천이 나중이라는 선지후행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⑤의 질문에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갑,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② 도덕적 앎과 실천은 본래 하나라고 본 사상가는 왕수인이므로 갑은 긍정의 대답을, 주희는 선지후행을 강조하였으므로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③ 마음 밖의 사물에서 도덕적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주희이므로 을은 긍정의 대답을, 왕수인은 마음 밖에 이치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갑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④ 본연지성은 순선하나 기질지성은 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상가는 주희이므로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왕수인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논하지 않았다.

662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ㄱ. 왕수인은 사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수양을 강조하였다. 또한 ㄴ. 왕수인은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여 이치는 마음 안에 갖추어져 있으므로 마음 밖의 사물에서 이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주희는 이기불상리, 이기불상잡을 주장하여 이와 기는 현실의 사물에서는 분리될 수 없지만 개념적으로는 서로 섞일 수 없다고 보았다. ㄹ. 도덕적 앎과 실천이 본래 하나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은 왕수인의 입장이다. 주희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을 강조하여 앎과 실천을 순서상 구별하였다.

663 제시된 글의 '나'는 노자이며, '어떤 학자'는 공자이다. ③ 노자는 인위적인 인과 예를 강조하는 유가 사상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삶을 훼손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소박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사회 질서는 강력한 법과 상벌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법가의 입장이다. ② 인간은 선천적으로 도덕 감정인 사단을 지니므로 이를 확충해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맹자이다. ④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확장하는 격물치지의 수양을 강조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사회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사상가는 묵자이다.

664 언어로 규정하거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다고 해서 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님 → 도는 천지의 시작이자 만물의 근원으로, 도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을 덕(德)이라고 함

> 갑(노자): 도(道)는 천지의 시작이자 만물의 근원으로, 언어로 규정하거나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상덕(上德)을 지닌 성인은 덕을 행하려는 의도 없이 만물을 이롭게 할 뿐이다.
>
> 을(장자): 이것도 저쪽에서 보면 저것이고, 저것도 이쪽에서 보면 이것이다. 사람이 습한 곳에서 자면 허리 병이 생기지만 미꾸라지는 그렇지 않고, 사람은 나무 위에 있으면 두려워하지만 원숭이는 그렇지 않다. 이 가운데 누가 올바른 거처를 알고 있다고 하겠는가.

인간은 자신이 가진 감각과 지각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므로 인식의 절대적 기준을 세우기 어려움 → 도는 분별을 초월한 절대 평등의 경지이고, 인간의 분별적 사고는 상대적인 관점일 뿐임

갑은 노자, 을은 장자이다. ① 인의와 같은 도덕규범이 강조될수록 사회는 본래의 순수함을 잃게 된다고 본 것은 노자의 입장에 부합한다. ② 허정(虛靜)의 수양을 통해 도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본 것은 노자의 입장에 부합한다. ③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제물(齊物)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 것은 장자의 입장에 부합한다. ⑤ 갑, 을 모두 인위적 규범에서 벗어나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④ 장자는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인이 제정한 예를 배울 것이 아니라, 심재(心齋)와 좌망(坐忘)을 통해 분별심을 버리고 도와 합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665 갑은 장자, 을은 순자이다. ① 장자는 인위적 규범 없이 도와의 합일을 통해 참된 삶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순자는 성왕이 제정한 예를 통해 본성을 교화해야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①의 질문에 갑은 '예', 을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② 장자와 순자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장자는 예가 아니라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이 평등하다고 보았다. 순자에 따르면 예란 귀천, 장유, 빈부 등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사회 질서를 유지해 준다. ③ 장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장자는 예와 같은 인위적인 기준이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며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다. ④ 장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장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지 않았다. ⑤ 순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심재와 좌망을 통해 도에 이를 수 있다는 진술은 장자의 입장과 부합한다.

666 갑은 순자, 을은 장자이다. 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반드시 쟁탈과 혼란이 발생하므로 스승의 가르침과 예(禮)를 통한 교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장자는 만물이 각각 도에 따르는 적합한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가 타고난 본성대로 살 때 자유로워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순자가 장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 사이에 귀천의 차이가 없음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② 통치자가 무위(無爲)로 백성을 다스릴 때 사회가 안정된다고 본 사상가는 노자이다. ③ 선천적으로 타고난 도덕 감정을 확충하는 것이 수양의 근본이라고 본 사상가는 맹자이다. ④ 인위적 도덕규범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 것은 도가 사상이다. 따라서 순자가 장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다.

66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ㄷ.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원인을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으로 설명하였으며,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날 때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ㄴ. 극단적 쾌락과 고행을 피하는 중도(中道)의 수행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ㄱ. 석가모니는 우주의 모든 존재와 현상이 원인[因]과 조건[緣]의 상호 관계로 생겨난다고 보았다. ㄹ. 석가모니는 고정불변하는 자아를 부정하고, 불변하는 실체적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無我)를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66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욕망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며, 연기(緣起)의 이치를 바탕으로 자타불이(自他不二)를 깨달아 자비를 실천할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A는 자신과 타인이 별개의 존재라고 여기며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이러한 A에게 석가모니는 ②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석가모니는 극단적 쾌락과 고행을 모두 경계하는 중도(中道)를 강조하였다. ③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홀로 수양할 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것은 석가모니의 연기적 세계관과 어긋난다. ④ 절대적 존재에 귀의하여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본 것은 불교의 입장이 아니다. ⑤ 고정불변하는 자아의 실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본 것은 석가모니의 무아(無我) 사상에 어긋난다.

66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용수이다. ㄴ, ㄷ. 용수는 공 사상을 체계화한 대승 불교 사상가로서 모든 현상에 고정불변하는 자성(自性)이 없음[空]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연기의 원리를 바탕으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자비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개인의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阿羅漢)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삼은 교파는 부파 불교이다. 대승 불교는 깨달음과 중생 구제를 함께 추구하는 보살(菩薩)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 ㄹ. 대승 불교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과 중생 구제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670 갑은 부파 불교, 을은 대승 불교의 입장을 지닌다. 대화의 맥락을 보았을 때 (가)에는 대승 불교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대승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에만 머무르는 수행을 비판하고,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② 수행자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깨달음도 중시하여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菩薩)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한다.

바로알기 | ① 대승 불교는 중생을 돕는 행위를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중생 구제 자체를 보살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실천으로 본다. ③ 보살은 자신의 해탈을 먼저 완성한 후에야 중생을 돕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과 중생을 구제하는 실천을 함께 추구한다. ④ 대승 불교는 교리의 체계적 연구만을 중시하기보다 자비와 이타적 실천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긴다. ⑤ 대승 불교는 수행의 완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깨달음과 더불어 다른 중생의 고통을 덜어 주는 실천까지 중시한다.

✓ 개념 보충

부파 불교와 대승 불교 비교

구분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이상적 인간상	아라한: 개인의 번뇌를 소멸한 수행자	보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는 존재
수행의 특징	• 복잡한 교리 연구 중심으로 발전함 • 출가를 통한 엄격한 수행과 개인의 해탈을 강조함	• 대중과 함께하는 종교로 나아가고자 함 • 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법으로 바라밀 실천을 강조함
공통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뿌리로 둠	

실전 대비 Ⅱ. 한국 윤리사상 1회 156~158쪽

671 ③ 672 ② 673 ④ 674 ⑤ 675 ② 676 ③
677 ③ 678 ① 679 ④ 680 ② 681 ① 682 ③
683 ④ 684 ④

671 원효는 일심이문을 주장하여 청정한 진여의 마음(진여문)과 번뇌가 일어나는 생멸의 마음(생멸문)이 서로 대립하는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지닌 두 양상임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양지를 실현하면 앎과 실천이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양명학의 치양지, 지행합일이다. ② 고정불변하는 자아의 실체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불교가 비판하는 아집에 해당하며, 원효는 무아의 관점에서 이를 부정하였다. ④ 사물의 이치를 하나씩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는 것은 주희의 격물치지이다. ⑤ 인위적 분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제물의 경지를 추구한 것은 장자이다.

672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지눌은 선교의 근본이 다르지 않으므로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정혜쌍수를 수행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일상의 소소한 실천 속에서도 깨달음의 길이 열려 있다고 보았다. 경전 탐구만으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지눌이 긍정할 입장이 아니다.

바로알기 | ② 지눌은 돈오점수를 주장하여 단박에 깨달은 이후에도 점진적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눌이 긍정할 질문이다.

673 갑은 원효, 을은 의천이다. 원효는 일심을 토대로 각 종파의 주장을 화쟁으로 회통하였으며 ㄱ. 염불만으로도 극락왕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ㄷ.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의 관법 수행을 함께 닦는 교관겸수를 강조하였다. ㄹ. 두 사상가 모두 인간이 본래 청정한 불성을 깨달음으로써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불성을 단박에 깨달은 이후에도 그릇된 습기를 점진적으로 소멸해야 한다는 것(돈오점수)은 지눌의 입장이다.

674 갑은 의천, 을은 지눌이다. 의천은 교관겸수를 통해 교학 연구와 마음 수행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보았고, 지눌은 돈오 이후에도 꾸준한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⑤ 두 사상가 모두 선교 간 대립을 해소하고 조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바로알기 | ① 의천은 경전의 가르침을 중시하는 교종을 중심으로 참선 수행을 중시하는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② 마음의 참모습을 곧바로 깨닫고 난 뒤에도 남은 습기를 닦는 수행을 중시한 것은 지눌이다. ③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의 수행법을 함께 닦는 것이 올바른 수행임을 강조한 것은 의천이다. ④ 경전에 담긴 부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본 것은 의천이다.

675 이황은 이기호발설을 주장하여 ㄱ. 사단은 이가 주도하여 드러난 순선한 도덕 감정으로 칠정과 근원이 다르다고 보았으며, ㄹ. 이와 기는 섞일 수 없고 이가 기보다 가치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이기불상잡, 이귀기천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ㄴ.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로,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하나의 경로를 갖는다고 본 이이의 입장이다. ㄷ. 이이의 입장으로, 이이는 이가 형체가 없어 무위하므로 감정을 직접 일으키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황은 오히려 이가 스스로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676 이이는 기질이 이를 가려 도덕 감정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③ 기질을 맑게 하는 교기질 수양을 통해 도덕 감정이 바르게 발현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심재와 좌망을 통해 인위적 분별심을 버리고 도와 합일되는 경지를 추구한 것은 장자이다. ② 경전을 치밀하게 탐구하고 교리를 이해하는 것을 깨달음의 핵심으로 삼는 것은 의천(교종)의 입장이다. ④ 선을 기호하는 본성에 따라 홀로 있을 때도 상제를 의식하며 언행을 삼가는 신독은 정약용이 제시한 수양 자세이다. ⑤ 마음 안의 양지를 가리는 사욕을 제거하여 앎과 실천이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것은 양명학의 치양지이다.

677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하나의 경로를 갖는다고 보았으며, 사단과 칠정은 모두 같은 연원에서 나오므로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와 기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오묘한 관계(이기지묘)이고, 이치는 형체가 없어 만물에 두루 통하고 기는 형체에 국한된다(이통기국)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이는 경(敬)을 통해 하늘의 이치이자 인간 마음의 본성인 성(誠)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다르며 칠정은 가선가악하다고 본 것은 이황의 입장이다.

678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①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각각 이와 기로 달라야만 사단이 왜 순선한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기발이승일도만을 인정하는 이이에게 이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이황과 이이 모두 이와 기가 개념적으로는 구별된다고 보았다. ③ 이통기국은 이이의 입장이다. ④ 이는 형체가 없어 무위하므로 감정을 직접 일으키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이의 주장이다. ⑤ 교기질 수양을 통해 도덕 감정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은 이이의 입장이다.

67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ㄱ, ㄴ. 정약용은 인간에게만 선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이 부여되어 있어 도덕적 책임이 전적으로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다. ㄹ. 또한 홀로 있을 때에도 하늘을 의식하며 마음과 언행을 삼가는 신독을 수양의 핵심으로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ㄷ. 인의예지가 마음 안에 선천적으로 내재한 이치이므로 이를 발현시키는 것이 수양의 핵심이라는 것은 성즉리를 주장한 주희(성리학)의 입장이다. 정약용은 인의예지가 실천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68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조식이다. 조식은 경과 의를 수양의 근본으로 삼아 내면의 깨어 있음인 경이 전제될 때 비로소 외적 실천이 욕망의 표출이 아닌 참된 의로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일상의 도덕 실천인 하학이 형이상학적 탐구인 상달보다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ㄷ. 조식은 벼슬보다 오히려 처(處)의 삶을 선택하여 재야에서 심성 수양과 후학 양성에 힘쓰는 것이 의로운 실천의 방식이라고 보았다.

681 갑은 정제두, 을은 정약용이다. 정제두는 지행합일을 역설하여 참으로 알면 반드시 실천이 뒤따른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① 정제두는 정약용에게 앎과 실천의 본래적 일치를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인간에게 선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이 하늘로부터 주어져 있다는 것은 정약용의 입장이다. ③ 마음 바깥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외적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희의 격물치지 입장으로, 정제두가 오히려 비판하는 방식이다. ④ 임정종욕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정제두가 양명학의 폐단으로 지적한 것이므로 정약용이 정제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사덕이 선천적으로 마음 안에 갖추어진 이치라는 것은 성리학(주희)의 입장으로, 정약용은 이를 부정하였다.

68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이(理)로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경향성으로 파악하는 성기호설을 주장하였으며, 인의예지의 사덕은 실천을 통해 비로소 이름이 붙여진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교기질은 기질을 맑게 하는 이이의 수양 방법이다. ② 돈오점수는 단박에 깨닫고 점진적으로 습기를 소멸해 가는 지눌의 수행론이다. ④ 지행합일은 양명학의 사상으로, 도덕적 앎과 실천이 본래 하나임을 강조한 것이다. ⑤ 거경궁리는 마음을 경건히 유지하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성리학의 수양 방법이다.

683 갑은 이황이다. ④ 이황은 성즉리와 거경궁리를 강조하여 개별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하나씩 탐구하는 궁리를 통해 도덕적 앎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감정이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하나의 경로를 갖는다는 것은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이다. ② 인간의 본성이 선을 좋아하는 기호로서 고정된 이치가 아니라는 것은 정약용의 성기호설이다. ③ 사덕은 마음 안의 이치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은 정약용의 단시설이다. ⑤ 하늘이 자연 현상에 불과하여 인간의 도덕 행위를 살피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순자의 천인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이황은 하늘을 도덕의 근거로 보았다.

684 갑은 이황, 을은 정약용이다. ④ 정약용은 인의예지의 사덕이 마음 안에 미리 내재한 이치가 아니라 사단의 감정을 시작으로 도덕적 실천을 쌓아 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형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덕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는 이황에게 이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이황은 이가 스스로 발동하여 사단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이황은 사단이 이가 발한 것으로 칠정과 근원이 다르다고 보았다. ③ 기질지성을 바로잡아 본연지성이 드러나도록 수양해야 한다는 것은 주희의 입장으로 이황도 이에 동의한다. ⑤ 정약용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선악을 선택할 자율적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보았으므로 정약용이 이황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다.

실전 대비 Ⅱ. 한국 윤리사상 2회 159~161쪽

685 ⑤	686 ②	687 ④	688 ③	689 ③	690 ①
691 ④	692 ⑤	693 ⑤	694 ②	695 ⑤	696 ⑤

685 제시된 글의 '나'는 원효이다. ⑤ 원효는 화쟁 사상을 통해 서로 대립하는 이론들이 각각 부분적 진리를 담고 있으며 일심이라는 근원적 마음에서 하나로 회통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논파를 통한 통합을 주장하는 이에게 이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양지를 실현하면 도덕적 앎과 실천이 저절로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양명학의 입장이다. ② 사물의 이치를 하나씩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주희의 격물치지 입장이다. ③ 인위적 분별과 집착을 덜어 내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삶이 참된 수행이라는 것은 노자, 장자의 무위자연 사상이다. ④ 선악의 갈림길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정약용이 주장한 자주지권이다.

68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ㄱ. 지눌은 정혜쌍수를 통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ㄷ. 선종과 교종의 근본이 다르지 않다는 선교일원의 관점에서 선교 갈등의 해소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ㄴ. 깨달음에 이르면 수행이 완성되므로 더 이상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진술은 지눌의 입장이 아니다. 지눌은 돈오 이후에도 오랜 습기를 소멸시키는 점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ㄹ. 경전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교리를 탐구하는 수행을 깨달음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교종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지눌은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포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687 갑은 지눌, 을은 의천이다. ④ 지눌은 돈오점수를 주장하여 단박에 깨달은 이후에도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두 사상가 모두 교종과 선종 간의 갈등 해소와 통합을 추구하였다. ② 교관겸수를 주장하였는가의 질문에는 의천만 긍정한다. ③ 경전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은 교종의 입장이다.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의 수행 방법을 함께 닦는 방식으로 선교 통합을 추구하였다. 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의 교리를 포용하여 선교 통합을 추구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688 이황은 이기호발설을 주장하여 ③ 사단은 이가 주도하여 드러난 순선한 도덕 감정으로 칠정과 근원이 다르다고 보았으며, 이귀기천을 강조하여 이가 기보다 가치론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역설하였다.
바로알기 | ① 이는 형체가 없어 만물에 두루 통하고 기는 형체가 있으므로 사물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은 이이의 입장이다. ② 사단과 칠정이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동일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이다. ④ 기질을 맑게 하는 교기질이 도덕 감정을 온전히 실현하는 핵심 수양법이라는 것은 이이의 입장이다. ⑤ 이이가 긍정하고 이황은 부정할 내용이다.

68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ㄴ. 이이는 이기지묘를 주장하여 이와 기가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ㄷ. 이는 형체가 없어 무위하므로 감정을 직접 일으키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이이는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하여 이는 만물에 두루 통하고 기는 형체에 국한된다고 보았다. ㄹ. 이이는 경이 수양의 요령이고 성이 수양의 결과라고 보았으므로, '성에 이르기 위해 경을 실천해야 한다.'고 해야 이이의 입장에서 옳은 서술이다.

690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이이는 교기질을 강조하여 기질의 치우침이 도덕 감정을 가리는 원인이며, 후천적 수양을 통해 기질을 바로잡으면 이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따라서 이이는 기질을 바로잡는 수양을 통해 감정의 치우침을 극복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② 감정이 무명과 집착에서 비롯된 괴로움의 원인이므로 팔정도의 수행으로 탐욕과 성냄을 소멸해야 한다는 것은 불교적 관점이다. ③ 인위적 교정의 마음을 내려놓고 무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노자, 장자의 입장이다. ④ 감정의 흔들림이 오래된 습기에서 비롯되므로 단박의 깨달음 이후에도 점진적 수행으로 이를 덜어 내야 한다는 것은 지눌의 입장이다. ⑤ 감정이 사욕에 가려질 때 양지가 흐려지므로 마음 안의 양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양명학의 입장이다.

691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ㄴ. 이이는 이가 형체가 없어 스스로 발동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이의 능동적 발동을 주장하는 이황에게 이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으며, ㄹ. 사단과 칠정의 근원을 둘로 나누면 마음의 발현에 두 근원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도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이황도 이이와 마찬가지로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를 인정하므로 이와 기가 현실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황이 간과한다고 볼 수 없다. ㄷ. 사단이 칠정과 근원을 달리하지 않으면 순선한 사단을 명확히 구별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황이 이이에게 제기할 비판의 내용이다.

692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⑤ 이이는 기발이승일도설을 주장하여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하나의 경로만 있다고 보았으나, 이황은 이기호발설을 주장하여 이가 스스로 발동하는 경로도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이황과 이이 모두 현실에서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를 인정하였다. ② 사덕이 선천적으로 내재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실천을 통해 비로소 형성된다고 보는 것은 정약용의 입장으로, 이황과 이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③ 마음의 작용이 이의 발현과 기의 발현으로 구분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이는 부정, 이황은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④ 사단과 칠정의 근원은 동일하며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관계라는 주장은 이이만의 입장에 해당하므로 이황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693 갑은 조식, 을은 정제두이다. ① 조식은 벼슬에 나아가는 출이아닌 재야에서 심성 수양과 후학 양성에 힘쓰는 처의 삶을 선택하였으며, ② 일상의 도덕 실천인 하학이 형이상학적 탐구인 상달보다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제두는 성리학의 격물치지 해석 방식이 이론에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③ 격물치지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양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재해석하였다. 또한 정제두는 ④ 인간에게 부여된 생리를 스스로 밝게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능동적 이치로 보아 돌멩이나 초목에 내재된 물리와 구별하였다.

바로알기 | ⑤ 정제두는 양명학자로서 이치가 마음 안에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으나, 조식은 성리학자로서 마음 밖 사물에서도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69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이 선을 기호하는 마음의 경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② 하늘을 의식하며 홀로 있을 때도 스스로 실천을 쌓아 가는 신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경을 통해 내면을 밝히고 의로써 외적 행동을 단호하게 결단하는 수양은 조식의 경의(敬義) 사상이다. ③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을 타고난다고 본 것은 맹자의 성선설이다. 정약용은 성선설이 아닌 성기호설을 주장하였다. ④ 흐린 기질을 바로잡는 교기질 수양을 통해 일상의 감정이 도덕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이이의 수양론이다. ⑤ 개별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마음을 경건히 유지하는 거경궁리를 통해 도덕적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성리학의 수양론이다.

695 갑은 정제두, 을은 이이이다. 정제두는 양명학의 심즉리설을 수용하여 이치가 마음 안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⑤ 정제두는 이치가 기가 발할 때 수동적으로 드러난다고 본 이이에게 이치는 마음에서 벗어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마음 안에서 이치를 구해야 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고 천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정제두와 이이 모두 긍정하는 내용이므로 정제두가 이이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이이는 이와 기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을 인정하였다. ③ 도덕적 앎을 충분히 쌓은 이후에야 올바른 실천이 뒤따를 수 있다는 선지후행에 대해 정제두는 지행합일을 주장하며 부정하였다. ④ 이는 기가 발할 때 함께 드러날 뿐이므로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이는 없다는 것은 이이의 입장이다.

696 갑은 이황, 을은 정약용이다. 이황은 사단을 도덕 실천의 근거로 보아 거경궁리를 통해 이를 보존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정약용도 사단을 도덕 실천의 시작점으로 보았다. ⑤ 따라서 두 사상가 모두 사단을 바탕으로 도덕적 실천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알기 | ① 사단과 칠정이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하나의 경로를 갖는다는 것은 이황이 아니라 이이의 입장이다. ② 인의예지가 마음 안에 갖추어진 이치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이름이 붙여진다는 것은 정약용의 입장이다. ③ 정약용은 인간이 선을 기호하는 경향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④ 이황뿐만 아니라 정약용도 도덕적 이치에 따르는 삶, 즉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실전 대비 Ⅲ. 서양 윤리사상 1회 162~165쪽

697 ④ 698 ② 699 ⑤ 700 ③ 701 ④
702 해설 참조 703 ⑤ 704 ② 705 ④ 706 ②
707 ③ 708 정언 명령 709 ①
710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711 ③ 712 ⑤ 713 ④
714 ③ 715 ④

697 갑은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며 옳고 그름은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④ 소크라테스는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③ 소크라테스는 윤리가 공동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고,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② 소크라테스는 정의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진다고 보지 않고,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정의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소크라테스는 인간 각자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고 보지 않았으며, 이성을 통해 보편타당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698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플라톤이다. ① 소크라테스는 악행이 무지에서 비롯되므로 누구도 자발적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④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최고의 이데아로 보고, 이성이 기개와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모두 선에 대한 참된 앎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때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통해 얻은 참된 앎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69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ㄴ.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성, 기개, 욕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ㄷ. 플라톤은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철인왕이 되어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플라톤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급이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때 국가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플라톤은 수호자 계급의 사유 재산 소유를 금지했으나, 생산자 계급은 허용된다고 보았다.

70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 (4), (5)이다. (3)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을 갖추려면 욕구에 굴복하는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4)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적절한 중용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5)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단순한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 상황과 개인을 고려한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적절한 상태로 보았다. 학생은 (1), (3), (5)를 바르게 판단하고 (2), (4)를 잘못 판단했으므로, 문항당 1점씩 총 3점을 받는다.

바로알기 | (1)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 덕이 없으면 품성적 덕을 기를 수 없다고 보았다. (2)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에서도 이성을 통해 좋음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701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④ 플라톤은 선 그 자체가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았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이상주의를 비판하고 선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주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② 플라톤은 긍정,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정할 입장이다. ③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두 부정할 입장이다. ⑤ 플라톤은 긍정,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정할 입장이다.

702 **모범 답안** 아타락시아,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며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정치적 활동을 피하고 작은 공동체 내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은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703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역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봄

> 너는 극작가의 바람에 의해 결정된 연극에서의 배우라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그가 짧기를 바란다면 그 연극은 짧고, 만일 길기를 바란다면 그 연극은 길다. 만일 그가 너에게 거지의 구실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구실조차도 또한 능숙하게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가 절름발이를, 공직자를, 평범한 사람의 구실을 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해야만 하는 너의 일인지라.

외적 지위나 조건에 관계없이 주어진 삶을 자연의 질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봄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이다. ⑤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삶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에픽테토스는 감각적·육체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이성에 따라 욕망과 판단을 다스리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중시하였다. ② 에픽테토스는 공적인 삶이나 인간관계 자체가 불안과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았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조건에 집착하는 잘못된 판단과 욕망이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③ 에픽테토스는 부동심에 이르기 위해 모든 감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이성에 어긋나는 정념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④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은 자연의 질서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판단과 태도를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704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의 아우렐리우스이다. A에는 에피쿠로스만의 입장, B에는 에피쿠로스와 아우렐리우스의 공통 입장, C에는 아우렐리우스의 입장만이 들어가야 한다. 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모두 마음의 평온함을 추구하였으며,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는 삶 가운데 평온함과 평정심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ㄹ.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내리는 잘못된 판단과 그로 인해 생기는 정념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더라도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반드시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ㄷ. 에피쿠로스와 아우렐리우스는 모두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욕망을 절제하고 마음의 평온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70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ㄱ.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한 행복에 이르려면 신의 은총이 필요하며, ㄷ.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 신앙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존재라고 보았다. ㄹ.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도덕적 악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남용한 결과로 발생한다.

바로알기 | ㄴ.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악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70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② 아퀴나스는 영원법에는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인 자연법이 새겨져 있으며, 인간은 신이 부여한 지성이라는 유익한 빛을 통해 이러한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내재한 자연적 성향을 이성이 파악하여 따르는 법이라고 보았다. ③ 아퀴나스는 영원법을 신의 이성에 존재하는 우주 질서의 근본 법칙으로 보았으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영원법에 참여한 자연법을 인식하고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④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지만, 신앙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았다. ⑤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가 이성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고 보고, 운동·인과·우연과 필연·완전성·목적성에 근거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신의 존재를 논증하였다.

707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비해 아퀴나스는 '신을 이성으로 파악하려는 정도(X)'는 높고,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수용하려는 정도(Y)'는 낮으며, '신학과 철학,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따라서 ㉢이 적절한 상대적 특징의 위치이다.

708 칸트의 정언 명령은 어떤 목적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도덕 명령이다. 칸트는 이를 통해 자신의 행위 원칙을 보편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을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709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②, ③, ④, ⑤ 칸트는 도덕적 행위가 단순히 의무에 부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도덕 법칙에 대한 존중에서 의무 그 자체를 동기로 삼아 자율적으로 행위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에 따르면 정언 명령을 따르고 선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도덕적 행위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행위가 우연히 의무에 부합하더라도 경향성이나 이익을 동기로 한 경우에는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보았다.

710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얼마나 많은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는가에 따라 판단한다. 이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로 표현하며, 개인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을 도덕과 입법의 기준으로 삼는다.

71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벤담이다. ① 벤담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공리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② 벤담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성향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다. ④ 벤담은 사회를 개인들의 집합으로 보고, 더 많은 사람의 쾌락과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⑤ 벤담은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쾌락과 고통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③ 벤담은 쾌락의 종류는 한 가지로,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 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71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ㄴ.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행복의 증진을 추구한다는 공리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ㄷ. 밀은 쾌락의 가치를 양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쾌락의 질적 차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밀은 여러 종류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쾌락을 질적으로 더 높은 쾌락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밀은 쾌락뿐만 아니라 고통도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았다.

713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사르트르이다. A에는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가 모두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B에는 키르케고르는 '예', 사르트르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 C에는 사르트르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ㄱ. 키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로 신에게 귀의하고 신 앞에서 단독자로서 결단할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로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인간은 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ㄴ.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르는 사르트르와는 달리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키르케고르는 심미적 단계도 윤리적 단계도 아닌 종교적 단계에서 비로소 인간이 참된 실존을 회복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ㄹ.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다.

714 갑은 제임스, 을은 듀이이다. ③ 제임스와 듀이는 모두 실용주의 사상가로서 지식과 관념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제임스와 듀이는 행위의 동기보다 실제적인 결과와 유용성을 중심으로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였다. ② 제임스와 듀이는 고정된 절대적 선이나 덕에 도달하는 것을 도덕적 삶의 본질로 보지 않고, 경험 속에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④ 제임스와 듀이는 지식이나 이론의 가치를 실제 삶에서 유용한 결과를 낳는지에 따라 평가하였으므로, 유용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고 보지 않았다. ⑤ 제임스와 듀이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였지만, 이를 통해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원리를 발견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진리는 경험 속에서 검증되고 수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715 그림 속 강연자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당위적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 기술 시대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책임 윤리가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④ 요나스에 따르면 미래 세대와 자연은 현세대에게 책임을 되돌려 줄 수 없으므로 현세대는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해 일방적·비호혜적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전 대비 **Ⅲ. 서양 윤리사상** 2회 166~169쪽

716 ③	717 ①	718 ⑤	719 ②	720 해설 참조	
721 ③	722 ①	723 ③	724 ④	725 ④	726 ④
727 ①	728 ⑤	729 ⑤	730 ②	731 ⑤	732 ④

716 갑은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피치자가 아니라 강자의 이익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소크라테스는 정의는 통치자가 아니라 피치자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며 정의는 덕이고 지식이라는 입장을 폈다.

바로알기 | ①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를 강자의 이익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정의에 관한 보편적 기준을 찾아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②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를 피치자의 이익이 아니라 통치자, 즉 강자의 이익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았다. ④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통한 참된 앎의 추구를 강조하였다. ⑤ 소크라테스만의 입장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의 기준이 정체와 통치자의 이익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으므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71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이 각자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진정 나라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플라톤은 계층 간 자유로운 역할 교환을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려 들 때 나라가 혼란과 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718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플라톤이다. ⑤ 두 사상가는 모두 선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추는 것이 도덕적 덕을 실천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 바탕이라고 보는 주지주의 입장을 공유한다.

바로알기 | 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모두 선에 대한 참된 앎이 있다면 올바르게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② 플라톤만의 입장이다. 플라톤은 참된 실재인 이데아가 감각적 현실을 넘어 존재한다고 보았다. ③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플라톤은 이성이 기개와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각 계층이 자신에게 맡겨진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71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앎을 바탕으로 덕 있는 행위를 지속할 때 형성된다고 보았다. ㄷ.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 중용을 판단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품성적 덕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나 살인처럼 그 자체로 악한 감정과 행위에는 중용이 없다고 보았다. ㄹ.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은 산술적 평균이 아닌 상황에 따른 최선의 상태라고 보았다.

720 **모범 답안** 소크라테스는 선에 대한 앎, 덕에 대한 앎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과 덕에 대한 앎이 있어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아는 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면서 실천 의지를 기르고 옳은 행위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21 제시된 칼럼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③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행복의 기준으로 보았지만, 감각적 쾌락이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한 상태가 아니라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과 동요가 없는 평온한 상태를 참된 쾌락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욕구의 성격과 결과를 이성적으로 숙고하여 선택하고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에피쿠로스는 생존에 필요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까지 억제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이를 적절히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이나 불안을 낳지 않도록 절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에피쿠로스는 쾌락과 고통을 선택할 때 그 결과를 따져 보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⑤ 에피쿠로스는 모든 쾌락을 무조건 선택하거나 모든 고통을 무조건 회피하지 않고, 결과를 따져 어떤 쾌락은 포기하고 어떤 고통은 감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72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이다. ㄱ.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우주와 자연을 지배하는 이성인 로고스를 공유하는 존재이므로, 인간의 자연적 본성도 우주와 자연의 질서에 속한다고 보았다. ㄴ.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들과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은 것이 있다고 구분하였으며,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은 모든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고 자연의 섭리와 법칙,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에피쿠로스의 입장이다. 스토아학파는 공적 의무의 수행을 중시하였다. ㄹ. 스토아학파는 부동심의 상태를 위해 모든 정념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정념은 인정하였다.

72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아우렐리우스이다. ③ 아우렐리우스는 철저하게 이성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자연의 섭리, 우주의 섭리, 자연법칙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스토아학파는 자연스러운 감정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이성에 어긋나는 정념에 휘둘리지 않고 초연한 태도를 지닐 것을 강조하였다. ② 스토아학파는 타인의 충고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이성적으로 검토하여 정의와 공익, 자연의 질서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자신의 결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스토아학파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지 않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사건은 자연의 질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⑤ 스토아학파는 영혼의 모든 감정과 충동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어긋나는 정념을 다스려 부동심에 이르는 것을 중시하였다.

724

죽을 수밖에 없는 성질, 즉 인간이 유한한 생명을 지닌 존재라는 특성을 뜻함

갑(에피쿠로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가사성(可死性)도 즐겁게 된다. 이것은 그러한 앎이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의 삶을 보태어 주기 때문이 아니라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시켜 주기 때문이다.

을(에픽테토스):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것은 그것이 두렵다는 사람들의 판단이다. 우리는 죽음을 비롯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외적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불안을 일으킨다고 봄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이다. A에는 에피쿠로스와 에픽테토스 모두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B에는 에피쿠로스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C에는 에픽테토스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ㄱ.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살아 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죽음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다. 에픽테토스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라는 사람들의 판단이 바로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죽음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정해진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A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ㄴ. 에피쿠로스는 에픽테토스와 달리 은둔자적 삶을 통해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B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ㄷ.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을 얻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할 것을 강조하였다. 반면 에픽테토스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이성에 따라 자신의 판단과 태도를 다스려 부동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ㄹ. 에픽테토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여 공동선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에픽테토스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므로 C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725 제시된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ㄱ.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자연적 악은 완전한 존재인 신으로부터 멀어져 발생한 선의 결핍이고, 도덕적 악은 신이 부여한 자유 의지를 인간이 남용한 결과로 발생한 선의 결핍이다. ㄷ, ㄹ.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죄악을 인정하고 신에게 귀의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 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신을 사랑하고 신과 하나 되는 삶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익숙함을 이유로 악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인간은 자유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악을 멀리하고 최고선인 신을 지향하며 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726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④ 아퀴나스는 신학과 철학,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하였지만 신앙이 이성보다 우월하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최고선인 신을 사랑하고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결합할 때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라고 보았다. ③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이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신을 직접 관조하고 신과 결합할 때 성취되며, 이를 위해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모두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보았지만, 악을 신이 창조한 독립적인 실체로 보지는 않았다. 악은 선의 결핍으로 이해하였다.

72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ㄱ.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는 다섯 가지 길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제시된 글은 첫 번째 내용으로 운동의 최초의 원인, 곧 그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제1 운동 원인이 바로 신이라는 내용이다. ㄴ. 아퀴나스는 실정법이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연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아퀴나스는 신을 실존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았다. ㄹ.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 구분되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728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⑤ 도덕은 행복을 위한 수단임을 명확히 밝힌 벤담과는 달리 칸트는 도덕은 그 자체로 숭고하며 가치가 있는 것이고, 다른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바로알기 | ① 칸트와 벤담은 모두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므로, 칸트가 벤담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과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③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벤담의 결과주의적 입장이므로 칸트가 벤담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공리의 원리를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벤담의 입장이다. 칸트는 행복이나 유용성이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72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⑤ 칸트는 의무와 행복 추구가 충돌을 일으킬 때 즉, 의무가 문제시될 때는 행복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의무를 따르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도덕은 행복과 무관하게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칸트는 자기 행복의 추구가 직접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행복의 결핍이 의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복을 돌보는 것이 간접적으로 의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칸트는 인간은 본성상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닌다고 보았다. ④ 칸트는 도덕을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지켜야 할 의무라고 보았다.

730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밀이다. ㄱ.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향락보다 마음의 평온을 중시하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소박한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였다. ㄹ. 에피쿠로스와 밀은 공통적으로 감각적·육체적 쾌락보다 지적·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밀은 타인을 위한 자기희생이 그 자체로 목적이거나 숭고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지 않았다. 자기희생도 전체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때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ㄷ.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쾌락의 양이 충분히 확보된 뒤에만 고려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쾌락의 양과 함께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731 갑은 하이데거, 을은 사르트르이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인 인간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음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르트르는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⑤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모두 신에게 자신을 맡기는 결단을 통해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죽음 가능성을 자각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선택하며 본래적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고, 사르트르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자유로운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았다.

73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길리건이다. ④ 길리건은 기존의 도덕 발달 이론이 정의·권리·자율성을 중시하는 남성 중심의 관점을 기준으로 삼아, 관계와 책임을 중시하는 여성의 도덕적 관점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바로알기 | ① 길리건은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를 서로 보완되어야 할 도덕적 관점으로 보았다. ② 길리건은 남성 중심의 정의의 관점과 여성 중심의 배려의 관점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길리건은 보편적 원리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인간관계의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길리건은 도덕적 인간은 책임·관계·배려의 가치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실전 대비 Ⅳ. 사회사상 1회 170~172쪽

733 ①	734 ⑤	735 ④	736 ②	737 ①	738 ⑤
739 ②	740 ①	741 ②	742 ②	743 ⑤	744 ②

733 ㉡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인간의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산물로 보았으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정치적·사회적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 로크는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지닌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가 결성에 동의하였다고 보았다. ㉣ 로크는 국가의 영토 안에서 재산을 소유하거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묵시적 동의가 성립하며, 이러한 묵시적 동의는 명시적 동의와 함께 국가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 흄은 시민의 동의나 계약이 아닌 국가가 제공하는 질서와 안전 등의 실질적 혜택이 국민의 복종 의무와 국가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 맹자는 군주가 백성의 뜻을 받들어 덕을 바탕으로 한 위민 정치, 즉 덕치(德治)를 펼쳐야 하며, 덕을 저버리고 천명을 잃은 군주는 백성의 뜻에 따라 교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강력한 법으로 통치하는 법치를 강조한 것은 한비자이다.

73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흄이다. ㄷ. 흄은 국가가 제공하는 질서와 안전 같은 실질적 유용성을 누리는 국민에게는 국가의 통치 질서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보았으며, ㄹ. 국가에 복종하는 근거는 시민의 의사 표명 여부가 아니라 국가가 실제로 가져다주는 혜택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흄은 국가 권위의 근거를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나 인정이 아닌 국가가 실제로 제공하는 혜택의 유용성에서 찾았다. 국가 권위를 구성원의 동의에서 찾는 것은 사회 계약론의 입장이다. ㄴ. 흄은

국가에 대한 복종 의무가 권리 보장을 약속한 계약에서 비롯된다고 보지 않았다. 계약을 복종 의무의 근거로 삼는 것은 홉스, 로크, 루소 등 사회 계약론자들의 입장이다.

735 갑은 공화주의, 을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④ 공화주의는 진정한 자유가 단순히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사적 영역에서가 아니라, 시민이 공적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공동선을 추구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공동체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②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③ 참된 자유가 외부의 강제나 간섭이 없는 소극적 상태에서 실현된다는 것은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내용이다. 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과 도덕적 가치관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내용이다.

736 제시된 글은 공화주의의 입장이다. 공화주의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시민이 공적 공간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선을 추구할 때 비로소 실현되며, 단순히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자의적 지배로부터 벗어난 온전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바로알기 | ㄱ. 개인이 공동체에 앞서는 존재이며 공동선이 개인 이익의 합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공화주의는 공동선을 개인 이익의 단순 합산 이상으로 본다. ㄹ.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공동체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지며 국가는 사적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공화주의는 공동체 안에서의 참여를 통해 자유가 실현된다고 본다.

737 갑은 자유주의, 을은 공화주의의 입장이다. ① 자유주의는 국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며, 공익을 명분으로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바로알기 | ② 국가가 시민이 공동선을 구현하며 자유를 실현하는 필수적 공간이라고 보는 것은 공화주의의 입장이다. ③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공동체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④ 부당한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유주의, 공화주의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⑤ 참된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정치 참여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보는 것은 공화주의의 입장이다. 자유주의는 사적 영역에서도 자유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738 (가)는 참여 민주주의, (나)는 심의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참여 민주주의는 다수의 시민이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의 범위를 시민 전체로 확대한다. 심의 민주주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 공직자들, 전문가들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보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한다.

바로알기 | 대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실현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73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① 그는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③ 불복종을 행하는 자가 처벌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표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④ 시민 불복종은 사회에서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하여 평등한 자유나 공정한 기회균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만 정당화된다고 보았으며, ⑤ 합법적 수단을 충분히 시도하였음에도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시민 불복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②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근거를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 신념이 아닌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정의의 원칙(공유된 정의관)에서 찾았다.

74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부정의한 모든 법이 아니라 공공의 정의감에 위배되는 심각한 정도의 부정의한 일부 법이나 정책이라고 보았다. 또한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 자체가 아니라 법이나 정부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며, 시민 불복종의 주체는 체제 자체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공개적·비폭력적 정치 행위로 보았다. 따라서 정의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정부 정책의 개혁도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될 수 있다. ㄹ.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제1원칙이나 제2원칙 중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법에 대한 저항인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때 차등의 원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741 제시된 글은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이다. ㄴ, ㄷ. 민주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계급 독재나 폭력 혁명이 아닌 선거와 의회 제도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경제 질서가 사적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ㄱ. 민주 사회주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점진적 개혁을 강조한다. ㄹ. 국가가 시장 경쟁에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소유권과 자유 경쟁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나 고전적 자본주의의 입장이다. 민주 사회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742 갑은 대의 민주주의, 을은 심의 민주주의의 입장이다. ② 대의 민주주의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가 시민의 뜻을 반영하여 공적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방식을 지지한다.

바로알기 | ① 모든 시민이 직접 모든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만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의 입장이다. ③, ④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심의를 통한 집단적 의사 형성을 기반으로 한다. ⑤ 전문성을 갖춘 소수 엘리트가 정치 문제를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엘리트 민주주의의 관점이다. 대의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는 모두 시민의 뜻을 중시한다.

74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미스이다. 스미스는 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의도치 않게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진된다고 보았으며, 국가의 개입보다 시장의 자율적 작동을 중시하였다.

바로알기 | ① 스미스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인과 기업이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② 스미스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 도입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사적 이윤 추구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한다고 보았다. ③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케인스(수정 자본주의)의 입장이다. ④ 사회 보장 제도 확대와 복지 정책을 통한 불평등 완화는 케인스의 입장이다. 스미스는 시장의 자율적 작동을 강조하였다.

744 갑은 케인스(수정 자본주의), 을은 프리드먼(신자유주의)이다. 케인스는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프리드먼에게, ②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만 의존할 경우 시장 실패, 사회 양극화, 물질만능주의 등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기업이 이윤 극대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프리드먼의 주장이다. ③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장기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도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④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통해 시장 실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케인스의 핵심 주장이다. ⑤ 사회 보장 제도 확충과 복지 확대를 통한 불평등 완화는 케인스가 강조하는 내용이다.

실전 대비 Ⅳ. 사회사상 2회 173~175쪽

745 ③	746 ④	747 ①	748 ③	749 ⑤	750 ②
751 ④	752 ⑤	753 ③	754 ③	755 ④	756 ④

745 로크는 개인이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 공동체 결성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았으며, 직접적 의사 표명 없이도 국가의 영토 안에서 재산을 소유하거나 그 보호 아래 생활하는 것 자체가 묵시적 동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로크는 국가의 정당성이 군주의 일방적 권위가 아니라 구성원 각자의 자발적 동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으며, 국가가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시민의 자연권을 침해할 경우 시민이 저항권을 행사하여 정부를 해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③ 로크가 제시한 자연권은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에 한정되므로, 행복 추구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수립된다는 진술은 로크의 입장으로 옳지 않다.

746 갑은 맹자,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ㄱ. 맹자는 군주가 덕을 잃어 천명을 상실하면 백성의 뜻에 따라 새로운 통치자로 교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ㄴ. 두 사상가 모두 통치자가 덕을 바탕으로 구성원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ㄹ.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정치적 존재이며, 국가 공동체 안에서만 최고선인 행복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ㄷ. 국가가 개인의 자연권 보호를 위해 수립된 인위의 산물이라는 것은 사회 계약론자인 로크의 입장이다. 맹자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국가를 단순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산물로 보지 않는다.

747 ① 마르크스는 국가를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로 파악하였으며, 계급 갈등이 해소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역시 존재 근거를 잃고 소멸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② 국가의 정당성이 구성원이 누리는 혜택의 관념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흄의 혜택론이다. ③ 군주가 덕을 잃어 천명을 상실하면 새로운 군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역성혁명론은 맹자의 입장이다. ④ 국가가 시민의 자발적 동의로 수립되며 자연권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고 본 것은 로크를 비롯한 사회 계약론자들이다. ⑤ 국가가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이 본성에 따라 국가에 복종한다고 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74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군주가 덕을 갖추고 위민 정치를 펼칠 때만 통치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보았다. ③ 〈문제 상황〉의 통치자는 백성을 외면한 채 사리사욕에 몰두함으로써 천명을 상실하였으므로 역성혁명을 통해 새로운 통치자로 교체하는 것이 맹자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바로알기 | ① 계약 위반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시민의 동의 재확인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로크(사회 계약론)의 관점이다. ② 맹자는 덕을 잃은 군주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군주가 백성을 해치면 역성혁명을 통한 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④ 법과 형벌 강화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한비자로 대표되는 법가의 입장이다. ⑤ 국가의 유용성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제도 개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흄의 혜택론의 관점이다.

749 제시된 글은 공화주의의 자유관에 대한 페팃의 주장이다. 공화주의에서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타인이 마음만 먹으면 나의 선택을 좌우할 수 있는 자의적 지배 가능성 자체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비지배의 자유라고 일컫는다.

바로알기 | ① 자연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생명, 자유, 재산 등의 권리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②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목표를 실현하는 자유를 뜻한다. ③ 소극적 자유는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④ 묵시적 동의는 로크의 사회 계약론에서 명시적 의사 표명 없이도 성립하는 동의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750 갑은 자유주의, 을은 공화주의 입장이다. ② 자유주의는 개인이 공동체에 앞서는 존재이며 국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반면, 공화주의는 자유와 권리가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실현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비지배의 자유를 위해 시민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공화주의의 입장이다. ③ 법치를 통해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공화주의의 주장이다. ④ 자유가 공동체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⑤ 시민의 자유가 외부 간섭이 없는 개인적 영역에서만 실현된다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751 제시된 글은 심의 민주주의의 입장이다. ㄱ.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공적 문제에 대해 서로 근거를 제시하고 다른 이의 의견을 검토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ㄹ. 의사 결정은 단순히 선호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합리적 논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ㄴ. 또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 차이로 인해 모든 시민이 토론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이 심의 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된다.

바로알기 | ㄷ. 심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참여 인원이 많아진다고 해서 민주성이 보장된다고 보지 않는다. 참여의 양보다 시민들이 서로 이유를 제시하고 검토하며 숙고하는 심의의 질을 중시하므로 숙의 과정 없는 직접 참여 확대만으로는 민주성을 담보할 수 없다.

752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결과론적 이익 계산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 구성원들이 공적으로 공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⑤ 법을 어겼을 때의 손실과 막을 수 있는 부정의의

크기를 비교하는 공리주의적 접근에 그치는 싱어에게, 공적으로 승인 가능한 정의의 기준에 따라야 함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싱어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결과와 사회적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② 행위자의 양심과 신념을 사회 질서보다 우선해야 정당화된다는 것은 소로가 강조할 내용이다. ③ 롤스는 정치적 다수의 결정이라도 정의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④ 롤스는 합법적 수단을 충분히 시도한 뒤 최후의 방법으로 불복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753 갑은 소로이다. ③ 소로는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정의를 따라야 하며, 법에 대한 존중보다 정의에 대한 존중이 더 근본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불의한 법이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그 법에 맞서 복종을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시민 불복종이 반드시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야 정당화된다고 본 것은 롤스이다. 소로는 개인의 양심에 따른 불복종도 정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개인적 신념에 따른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유된 정의관을 강조하는 롤스의 입장이다. ④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목적을 기존 체제의 전면적 변혁이나 재구성에 두지 않았다. 그는 불의한 법에 가담하지 않을 개인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였다. ⑤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정당화된다는 것은 롤스의 입장이다.

754 갑은 소로, 을은 롤스이다. ③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개인의 도덕적 신념이나 종교적 교설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사회 구성원들이 공적으로 공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의 원칙에 근거할 때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롤스는 합법적 수단을 충분히 시도한 뒤 최후의 방법으로 불복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법보다 정의를 우선하며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소로의 입장이다. ④ 불의한 법에 저항하는 것이 도덕적 책무가 될 수 있으며 양심에 따른 거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소로가 강조하는 내용이다. ⑤ 소로와 롤스 모두 시민 불복종이 정의 실현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75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마르크스이다. ㄱ.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의 일부가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구조를 착취로 규정하였으며, ㄷ. 분업화된 생산 방식이 노동자를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분리시켜 인간 본연의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소외를 심화시킨다고 보았다. ㄹ. 마르크스는 이러한 착취와 소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며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에게 공정한 분배를 실현한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불평등한 체제라고 비판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756 갑은 케인스, 을은 프리드먼이다. ① 케인스는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정부가 복지 제도를 확충하여 불평등 심화와 사회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②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아 정부의 적극적 규제와 개입을 통해 시장의 불균형과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③ 프리드먼은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게임 규칙을 지키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⑤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 자유화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빈부 격차 심화나 사회 양극화 등 고전적 자본주의의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바로알기 | ④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적 방법이라는 주장은 프리드먼이 아니라 케인스의 입장이다.

MEMO